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차례

요약	9
제1장 거시경제 전망	3
1. 국내 실물경제 동향	23
2. 대내외 여건 전망	26
3. 2026년 국내경제 전망	36
<참고> 가공단계별 수출 구조 변화와 3대 소비재의 부상	4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6
1. 2026년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61
2.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부문별 전망	74
3. 종합	92

표 차례

<표 1-1> 세계경제 성장을 추이와 전망	2
<표 1-2> 세계 주요 권역별 및 국가별 경기선행지수(CLI) 추이	2
<표 1-3> 국제유가 전망(미국 EIA 기준)	3
<표 1-4> 2026년 국제유가 전망	33
<표 1-5> 2026년 원/달러 환율 전망	5
<표 1-6>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5
<표 1-7> 민간소비 관련 지표 증감률	3
<표 1-8> 민간소비 전망	40
<표 1-9> 설비투자 추이	40
<표 1-10> 부문별 설비투자 추이	4
<표 1-11> 설비투자조정압력 추이	43
<표 1-12> 설비투자 전망	44
<표 1-13> 건설투자 추이	45
<표 1-14> 건설투자 전망	47
<표 1-15> 주요 13대 품목별 수출 증가율	50
<표 1-16> 가공 단계별 수입	52
<표 1-17> 수출입 전망	53
<표 2-1>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6
<표 2-2>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공급구조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6
<표 2-3>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6
<표 2-4> 2026년 중동 전쟁 및 수출 영향	71
<표 2-5> 2026년 산업별 기타 주요 이슈 및 수출 영향	73
<표 2-6>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77
<표 2-7>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82
<표 2-8>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87
<표 2-9>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91
<표 2-10>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산업 전망 기상도	95

<표 2-11>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달러 기준)	97
<표 2-12>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물량, 원화 기준)	98
<표 2-13>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99
<표 2-14>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100
<표 2-15>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달러 기준)	101
<표 2-16>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물량, 원화 기준)	102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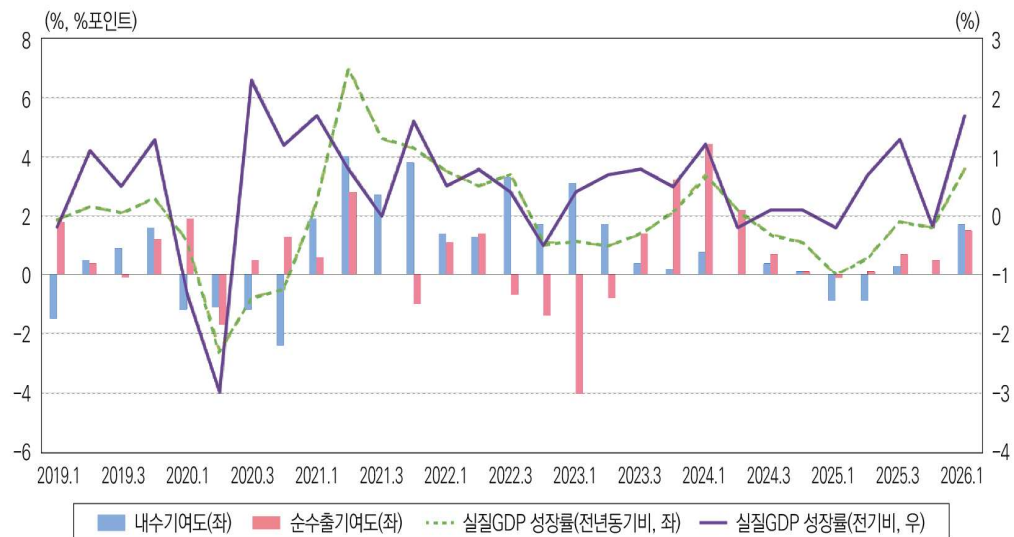
<그림 1-1> 국내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1
<그림 1-2>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추이	2
<그림 1-3>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2
<그림 1-4> 무역정책·지정학적 불확실성 지수 추이	3
<그림 1-5> 전 세계 및 권역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3
<그림 1-6> 세계 주요국 2026년 성장률 전망치	7
<그림 1-7> 세계 주요국의 경제지표 및 체감지표 추이(월별)	8
<그림 1-8>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실질GDP 성장률(분기별)	9
<그림 1-9> 세계 주요국의 산업생산과 경기선행지수 변화율 추이(월별)	10
<그림 1-10> 세계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및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월별)	13
<그림 1-11> 국제유가 추이	32
<그림 1-12> 원/달러, 달러 인덱스 추이	34
<그림 1-13> 소비지표 추이	38
<그림 1-14> 고용지표 추이	39
<그림 1-15> 소비자심리지수,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추이	39
<그림 1-16>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41
<그림 1-17>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	42
<그림 1-18> 제조업 재고율과 자본재 수입 추이	43
<그림 1-19>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액 추이	44
<그림 1-20> 건설투자 선행지표 추이	46
<그림 1-21> 건물건설 인허가 및 착공 추이	46
<그림 1-22>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47
<그림 1-23> 수출물량 및 단가, 금액지수 추이	48
<그림 1-24> 지역별 수출 증가율	49
<그림 1-25> 반도체와 비(非)반도체 수출 증가율 추이	51
<그림 1-26> 수출 품목별 집중도 및 반도체 비중	51
<그림 1-27> 수입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51

<그림 2-1>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전망	71
<그림 2-2>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률 전망	80
<그림 2-3>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률 전망	84
<그림 2-4>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률 전망	88

제1장 거시경제 전망

- 현 경기 판단: 수출과 내수 동반 개선에 힘입어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
- 국내 실물경기는 올 들어 소비가 전년 대비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IT 수출 급증과 반도체 관련 투자 확대, 교역조건 개선 등이 성장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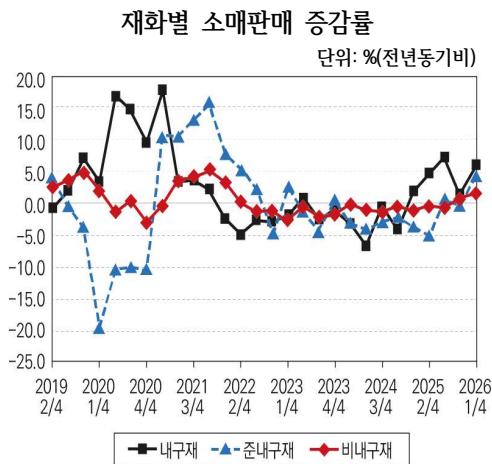
국내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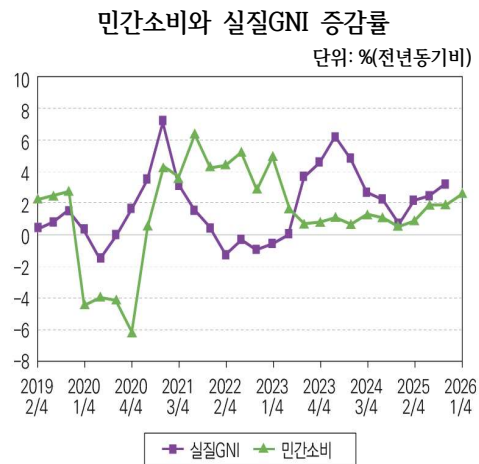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주: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 소비심리 안정화, 고용 여건 개선,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재화(내구재, 준내구재 등) 중심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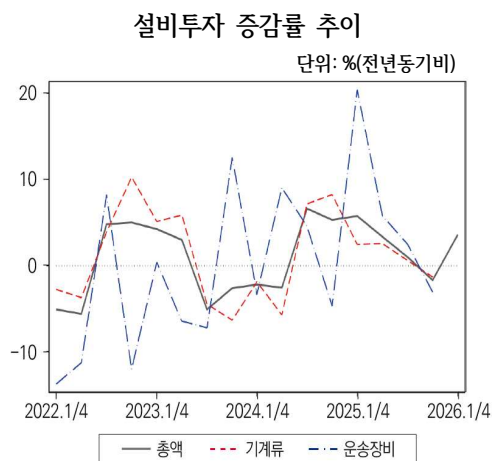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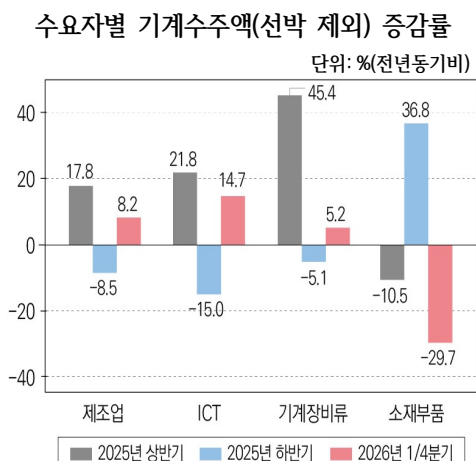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설비투자는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2025년 4분기의 감소세를 벗어나 재차 반등하면서 회복세를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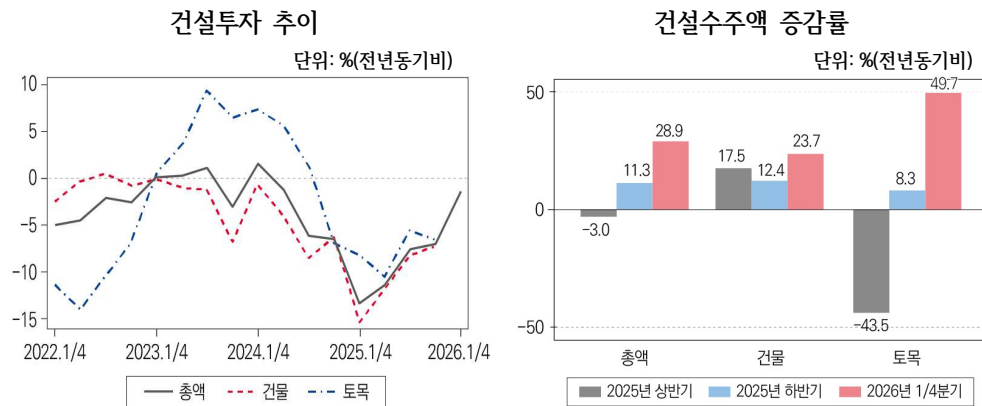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주: 설비투자지수 증감률은 3개월 중심합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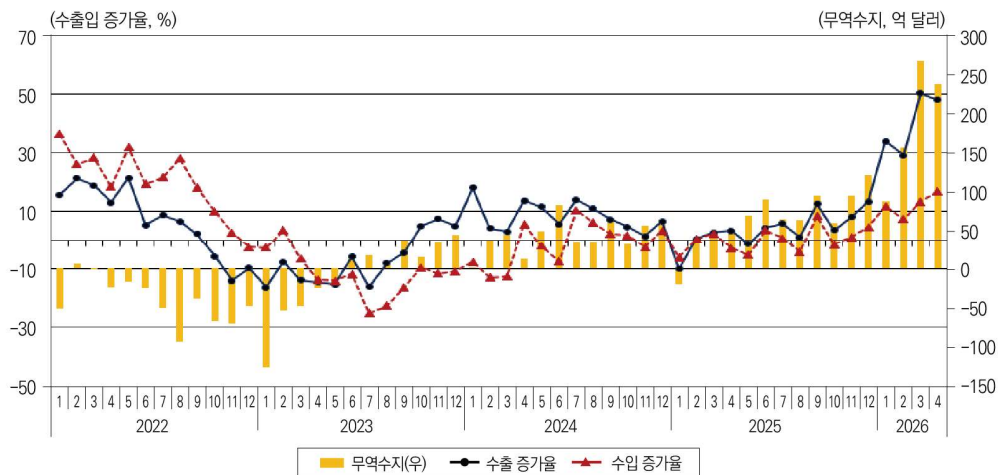
- 건설투자는 지난 2025년에 상당폭 감소한 데 이어 2026년 들어서도 특히 건물건설 중심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8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 지속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저.

- 수출(통관 기준)은 연초 예상치 못한 미국·이란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미국·중국)의 경제성장과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초유의 호황을 구가하는 모습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전제) 2026년 세계경제: 전년보다 낮은 성장세 예상

- 2026년 세계경제는 연초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미국-이란 전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 속에 현 상황에서 급속히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도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향방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면서 전년보다 낮은 성장이 예상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2024	2025					2026	2026(연간 예상치)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IMF	OECD
전 세계	3.4 (2.9)	-	-	-	-	3.4 (2.9)	-	3.1 (2.6)	2.9
선진권	(1.8)	-	-	-	-	(1.9)	-	(1.8)	-
미국	2.8	2.0	2.1	2.3	2.0	2.1	2.7	2.3	2.0
유로존	0.9	1.6	1.6	1.4	1.2	1.5	0.8	1.1	0.8
일본	-0.2	1.5	2.0	0.5	0.2	1.1	0.6	0.7	0.9
신흥권	(4.5)	-	-	-	-	(4.4)	-	(3.9)	-
중국	5.0	5.4	5.2	4.8	4.5	5.0	5.0	4.4	4.4
세계교역 [재화]	3.7 [2.8]	-	-	-	-	5.1 [5.4]	-	2.8 [2.8]	-

자료: IMF(2026. 4월); OECD(2026. 3월).

주: 1) 전 세계 괄호 안의 수치는 시장환율 적용 기준.

□ (전제) 2026년 유가 및 환율: 두바이유 배럴당 92달러, 환율 1,460원 내외 전망

- 2026년 국제유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송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쟁이 앞으로 격화되지 않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점진적 개방을 전제하더라도 더딘 하락이 예상

2026년 국제유가 전망

단위: 달러/배럴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두바이유	71.9 (-13.6)	67.0 (-11.8)	69.4 (-12.8)	94.8 (31.8)	89.3 (33.4)	92.1 (32.6)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2) 2026년 상·하반기 및 연간은 5월 18일 현재 기준.

- 2026년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인플레이 부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과 대(對)미국 투자 집행 등이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나,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세, 국내 증시 관련 외국인 투자 유입,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영향 등을 바탕으로 점진적 하향이 예상

2026년 원/달러 환율 전망

단위: 원/달러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426.1 (5.6)	1,417.3 (3.0)	1,422.4 (4.3)	1,474.6 (3.4)	1,447.5 (2.1)	1,461.0 (2.7)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2) 2026년 상·하반기 및 연간은 5월 18일 현재 기준(한국은행 원/달러 환율 증가).

□ 2026년 국내경제: 연간 성장률 2.5% 전망

- 2026년 국내경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과 관련 비용 상승이 소비 및 생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함께 반도체 등 IT 경기 호조로 인한 투자 및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5%의 성장률이 예상
- 대외적으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전개 양상,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 영향 정도, AI 수요 기반의 ICT 경기 호조 지속 여부,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대내적으로는 소비 회복과 투자 호조의 지속 여부, 해외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의 부정적 영향 정도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 2026년 소비: 전년 대비 2.2% 증가 예상

-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금융시장(증시 등) 호조세 등을 배경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나,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환율 등이 물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금리 인하 지연 등이 회복세를 제한하면서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6년 투자: 설비투자 2.9% 증가, 건설투자 0.9% 증가 전망

- 설비투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투자 여력 확대, AI 관련 첨단산업의

투자 수요 지속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나, 비IT부문의 업황 부진 지속과 함께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

- 건설투자는 수주 → 착공 → 기성 전환의 지연 구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 부문에서의 제한적 회복 등이 우려되나, 건설수주 증가세 지속, 정부 SOC 예산 확대(27조 5천억 원, 전년 대비 7.9% 증가) 등에 힘입어 소폭의 증가 전환이 예상

□ 2026년 수출입: 수출 30.3%, 수입 11.6%, 무역수지 2,190억 달러 전망

- 수출(통관 기준)은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출 호조 핵심인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의한 반도체 수요와 정보통신기기 등 ICT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전체 30.3% 증가 예상
- 무역수지는 올해 연간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약 2,2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

	2024	2025			2026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2.0	0.3	1.7	1.0	2.9	2.1	2.5
민간소비	1.1	0.7	1.9	1.3	2.5	1.8	2.2
설비투자	1.7	4.5	-0.4	2.0	3.0	2.8	2.9
건설투자	-3.3	-12.4	-7.3	-9.8	-0.5	2.2	0.9
통관 수출	6,836 (8.1)	3,347 (0.0)	3,747 (7.4)	7,093 (3.8)	4,585 (37.0)	4,659 (24.3)	9,244 (30.3)
통관 수입	6,318 (-1.7)	3,072 (-1.5)	3,246 (1.5)	6,319 (0.0)	3,481 (13.3)	3,573 (10.1)	7,054 (11.6)
무역수지	518	275	501	774	1,104	1,086	2,190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6년 상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1. 2026년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글로벌 수요 여건) AI 투자와 신흥국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이란 전쟁, 관세 강화, 고유가 및 교역 둔화로 전반적인 수요 증가세는 제한될 전망

○ 자동차·일반기계·철강은 신흥국 수요와 일부 회복 요인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관세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화 영향으로 성장세가 제한될 전망

○ 조선은 LNG선 중심 발주는 건조하나 중동 사태와 규제 지연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정유·석유화학은 고유가와 경기 둔화로 수요 약세가 예상

○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는 AI·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고성능 수요 증가로 구조적 성장세가 지속

○ 가전·디스플레이는 혼조세이나 신흥시장 회복이 제한적 반등을 이끌고, 이차전지·바이오헬스는 중장기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

□(글로벌 공급 여건) AI 및 친환경 전환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편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갈등, 보호무역 강화, 중동 지정학 리스크 등으로 지역별 생산거점 다변화와 공급망 블록화가 가속화될 전망

○ 자동차는 전동화 투자 부담과 보호무역 강화로 보수적 공급 전략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 업체의 해외 생산 확대로 글로벌 공급 영향력이 강화될 전망

○ 조선산업은 대규모 수주잔량과 설비 확충을 기반으로 중국 중심의 공급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투자 확대 움직임도 점진적으로 확대

○ 철강은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와 보호무역 강화로 구조 재편이 진행되며 경쟁 압력이 확대될 전망

○ 정유·석유화학은 지역별 증설에도 불구하고 지정학 리스크와 수요 불확실성으로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되며, 석유는 생산기지 이전과 글로벌 가격 경쟁 심화로 공급구조 변

화가 가속화될 전망

- 반도체는 AI 수요 대응을 위한 고부가 제품 중심 공급 확대와 범용제품 축소가 병존하는 가운데 공급구조 이원화가 심화될 전망

(1) 하반기 주요 이슈

- (중동 전쟁 영향) 2026년 하반기 중동 지역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원자재·에너지 가격 변동성, 물류 차질, 공급망 불안 등이 국내 주요 산업의 비용 부담과 수익성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자동차·일반기계는 원자재 및 해상운임 부담과 부품 조달비 상승으로 생산비 압박이 지속되고, 철강은 에너지·물류비 상승 영향으로 수익성 개선이 제한
- 조선산업은 해상 운임 강세와 LNG·유조선 중심 발주 흐름은 유지되나, 중동 불확실성 지속으로 시황 변동성과 프로젝트 지연 리스크는 상존
- 정유·석유화학·섬유는 원유 및 나프타 공급 불안과 원가 부담, 물류비 상승 영향으로 생산 및 수출 여건이 제한적으로 악화될 전망
- 반도체·정보통신기기·가전·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헬스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물류비 상승과 일부 원부자재 가격 부담 등 간접 비용 요인이 일부 지속될 전망

2026년 중동 전쟁 및 수출 영향

		영향 정도	내용
자동차	수출	X	·고유가 및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수출 감소 및 공급망 불안정 우려와 조달 비용 증가 예상
	생산	X	
조선	수출	□	·카타르 LNG 프로젝트 추진 차질에 따른 LNG운반선 인도 연기 가능성이 있으나, 수주산업의 특성과 대체 LNG 수요 확대·톤마일 증가 등으로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
	생산	□	
일반기계	수출	X	·(전체 수출)글로벌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심리 위축 및 중동 인프라플랜트 수주 감소로 인한 일반기계 전체 세계 수요 둔화
	생산	X	
철강	수출	□	·중동과의 낮은 교역비중으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하반기까지 중동 영향 지속 시 비용 상승에 따른 수출 및 생산 부담 확대
	생산	□	

(계속)

	영향 정도		내용
정유	수출	XX	· 원유 공급 불확실성 및 가격 변동성 확대에 의한 재고평가 손실 우려로 국내 정제설비 가동은 보수적으로 운영
	생산	XX	
석유화학	수출	X	· 원료비 상승과 생산시설 가동률 하향 압박으로 수출, 생산 모두 부정적
	생산	XX	
섬유	수출	X	· 원료가격 급등 및 제품가격 상승 · 채산성 악화 · 해상 운임 폭등 및 물류차질에 따른 수출량 감소 ·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중등 정통 의상용 폴리에스터 우븐 직물 생산 및 수출 감소 · 원사값 상승으로 인한 국산 중간재 가격 경쟁력 하락
	생산	X	
정보통신기기	수출	□	· 수출과 생산에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 다만 물류비 상승, 중등 수요 둔화 등 간접적 영향이 우려되나 중동지역은 주력 수출시장이 아님
	생산	□	
가전	수출	X	· 전체 비중은 낮으나 대중동 수출 급감으로 부정적 영향 · 국내 석유화학제품 공급 차질 시, 생산 차질 우려 존재
	생산	□	
반도체	수출	□	· 최근 반도체산업 투자는 개인보다는 기업의 비중이 높으며, AI 투자는 중동 전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 · 반도체산업은 중동지역 공급망 의존도가 낮아 영향이 제한적
	생산	□	
이차전지	수출	□	· 중동시장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4.3%에 불과 · 다만, 고유가 지속 시 배터리 수요 확대에 수출·생산에 일부 긍정 효과 예상 · 나프타 공급망 충격 확대될 경우 분리막 수급에 악영향, 배터리 생산 차질 가능성
	생산	□	
바이오헬스	수출	X	· 수입에 의존하는 중간재 비용과 물류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생산	X	

주: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중립 □, 부정적 X, 매우 부정적 XX.

2. 2026년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 수출: 반도체·정보통신기기 중심의 AI 특수와 고부가 IT 수요 확대에 힘입어 큰 폭 증가 전망

○ 2026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고성능 메모리·SSD 수요 급증 영향으로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중심의 IT신산업군이 수출 증가를 주도하며 전년 대비 31.9% 증가할 전망

- 2026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약 45.7%의 비중을 차지한 반도체산업이 101.9%나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

- 정보통신기기도 기업용 SSD 및 프리미엄 IT기기 수요 확대에 힘입어 93.2%나 증가하며

13대 주력산업 전체 수출 중 8.1% 비중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부상

- 반면 자동차·일반기계·섬유·가전·디스플레이 등은 미국 관세정책, 중동 리스크, 중국 경쟁 심화 및 글로벌 수요 둔화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

- (기계산업군) 하반기 수출은 일반기계가 1.4%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와 조선이 각각 0.6% 및 3.6% 감소하며 전년동기 대비 0.7%, 연간으로는 0.4% 감소
- (소재산업군) 정유, 철강 및 석유화학의 하반기 수출은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증가 전환으로 전년동기 대비 0.6%, 연간으로는 3.7% 증가 전망
- (IT산업군)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기의 호조가 지속되며 하반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65.7%, 연간 81.9% 증가 전망

□ 내수: 하반기 내수는 소비심리 회복과 AI·전기차 중심 수요 확대 영향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나, 고유가와 대외 불확실성, 건설경기 부진 등이 회복세를 제약할 전망

- (기계산업군) 하반기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에 그치겠지만, 조선은 64.8%나 감소
- (소재산업군) 하반기 철강 수요는 전년동기 대비 0.3%, 섬유는 2.7% 증가하는 반면, 석유화학은 0.9%, 정유는 8.8% 감소할 전망
- (IT산업군) 하반기 실제 수요 기준에서의 내수는 전년동기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

□ 생산: IT산업군 중심의 생산 확대는 지속되는 반면, 소재산업군의 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해외 생산 대체 영향이 큰 이차전지는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

- (기계산업군) 하반기 자동차 생산은 1.3% 증가하는 반면, 일반기계는 0.9% 감소, 조선은 컨테이너선 수출 부진으로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소재산업군) 하반기 철강 생산은 0.7%, 석유화학 1.9%, 섬유는 0.9% 증가하는 반면, 정유산업의 석유제품 생산은 21.1% 감소할 전망

- (IT신산업군) 하반기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69.6%, 정보통신기기는 70.5% 증가하는 반면, 디스플레이는 0.9% 감소할 전망

□ 수입: IT신산업군의 수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

- (기계산업군) 하반기 수입은 일반기계 1.8%, 조선은 11.9%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는 5.9% 감소하며 전년동기 대비 0.3% 감소하겠지만 연간으로는 2.3% 증가
- (소재산업군) 하반기 수입은 정유 14.5%, 석유화학 5.7%, 섬유는 2.7%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6.4%, 연간으로는 1.4% 증가
- (IT신산업군) 하반기 IT신산업군 수입은 반도체 25.8%, 정보통신기기 20.6%, 가전 2.5%, 디스플레이 19.7%, 이차전지 5.2%, 바이오헬스는 4.1%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19.2%, 연간으로는 20.8% 증가

3. 종합

□ 2026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종합

- 2026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은 AI 투자 확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반도체·정보통신기기·이차전지·바이오헬스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자동차는 친환경차 경쟁력으로 완만한 증가, 조선은 고선가 수주 인도로 양호한 흐름이지만, 일반기계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제한적 조정 국면이 지속될 전망
 - 정유·석유화학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출단가는 상승하겠으나, 원유 가격 변동성 및 공급 불확실성으로 인한 보수적 정제설비 운영으로 생산은 제한적
 - 디스플레이는 일부 모델 출시 지연 영향으로 수출은 약세이나 OLED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생산은 보합 수준 유지, 가전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관세·해외생산 확대 영향으로 제한적 회복에 그칠 전망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산업 전망 기상도

		수출		내수		생산		수입	
		하반기	연간	하반기	연간	하반기	연간	하반기	연간
기계 산업군	자동차	☁	☁	☁	☁	☁	☁	☔	☁
	조선	☁	☁	☔☔	☔☔	☁	☁	☔☔☔	☔
	일반기계	☁	☁	☁	☁	☁	☁	☁	☁
소재 산업군	철강	☁	☁	☁	☁	☁	☁	☁	☁
	정유	☁	☔	☔	☔	☔☔	☔☔	☔☔☔	☁
	석유화학	☔	☁	☁	☁	☁	☁	☔	☁
	섬유	☁	☁	☁	☁	☁	☁	☁	☁
IT 신산업군	정보통신기기	☔☔☔	☔☔☔	☔☔☔	☔☔☔	☔☔☔	☔☔☔	☔☔☔	☔☔☔
	가전	☁	☔	☁	☁	☁	☁	☁	☁
	반도체	☔☔☔	☔☔☔	☔☔☔	☔☔☔	☔☔☔	☔☔☔	☔☔☔	☔☔☔
	디스플레이	☔	☁	☔	☁	☁	☁	☔☔☔	☔
	이차전지	☔	☔	☁	☔☔☔	☔	☔	☔	☔
	바이오헬스	☔	☔	☁	☔	☁	☔	☁	☔

주: 1)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내수와 생산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제1장

거시경제 전망

제1장 거시경제 전망

1. 국내 실물경제 동향

□ 현 경기 판단: 수출과 내수 동반 개선에 힘입어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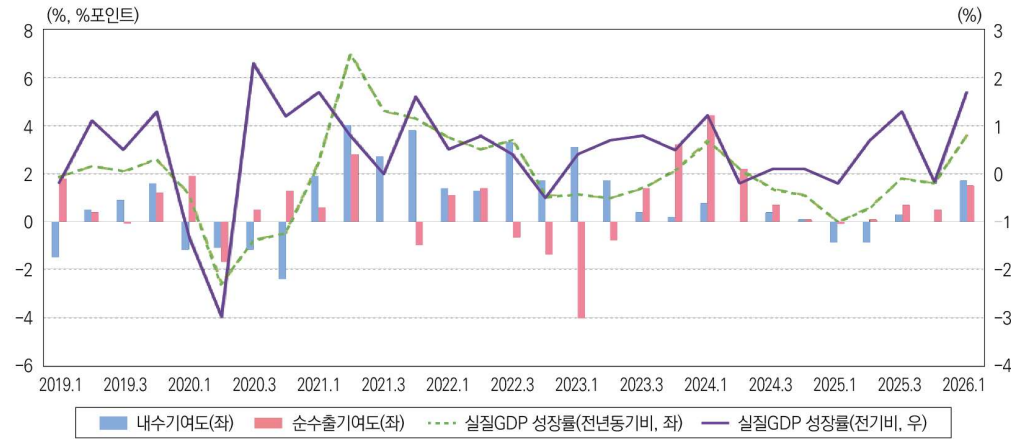
○ 국내 실물경기는 올 들어 소비가 전년 대비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IT 수출 급증과 반도체 관련 투자 확대, 교역조건 개선 등이 성장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

- 내수는 민간소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설비투자는 반도체와 전기차 수요 등에 힘입어 기계류와 운송장비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건설투자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등으로 감소세가 점차 둔화

- 수출(통관 기준)은 연초 예상치 못한 미국·이란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특히 반도체·ICT의 AI 수요 기반 증가세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철강, 일반 기계 등 전통 주력산업에서는 부진한 흐름이 지속

- GDP(전기비, %): (2025.1/4) -0.2 → (2/4) 0.7 → (3/4) 1.3 → (4/4) -0.2 → (2026.1/4) 1.7
- GDP(전년동기비, 이하 동일, %): (2025.2/4) 0.6 → (3/4) 1.8 → (4/4) 1.6 → (2026.1/4) 3.6
- 민간소비(%): (2025.1/4) 0.6 → (2/4) 0.9 → (3/4) 1.9 → (4/4) 1.9 → (2026.1/4) 2.6
- 설비투자(%): (2025.1/4) 5.8 → (2/4) 3.4 → (3/4) 1.0 → (4/4) -1.7 → (2026.1/4) 3.6
- 건설투자(%): (2025.1/4) -13.3 → (2/4) -11.4 → (3/4) -7.5 → (4/4) -7.0 → (2026.1/4) -1.4
- 통관수출(%): (2025.1/4) -2.3 → (2/4) 2.1 → (3/4) 6.5 → (4/4) 8.4 → (2026.1/4) 37.8

<그림 1-1> 국내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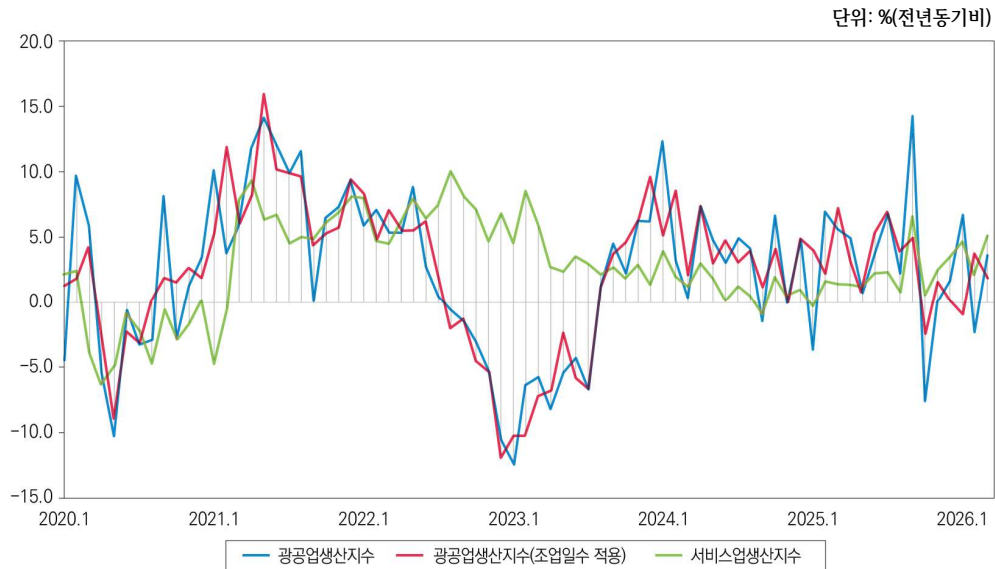
-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 생산이 2025년 중반 증가세가 확대된 이후 일시 조정을 거쳤으나 올해 들어 다시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는 등 변동성이 다소 큰 가운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서비스업 생산은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

- 전 산업(%): (2025.1/4) 0.3 → (2/4) 1.0 → (3/4) 3.6 → (4/4) -0.2 → (2026.1/4) 2.8
- 광공업(%): (2025.1/4) 2.9 → (2/4) 3.1 → (3/4) 7.8 → (4/4) -2.0 → (2026.1/4) 2.6
- 제조업(%): (2025.1/4) 2.8 → (2/4) 3.5 → (3/4) 8.1 → (4/4) -1.9 → (2026.1/4) 2.9
- 서비스(%): (2025.1/4) 0.9 → (2/4) 1.6 → (3/4) 3.2 → (4/4) 2.3 → (2026.1/4) 4.0

- 경기지표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올 들어 회복세로 전환된 모습이나, 생산·소비 등 일부 실물지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과 고용 둔화 등 영향으로 경기 회복의 강도가 아직 제한적인 모습이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반도체 경기 개선과 수출 회복 기대 등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향후 경기 개선 기대감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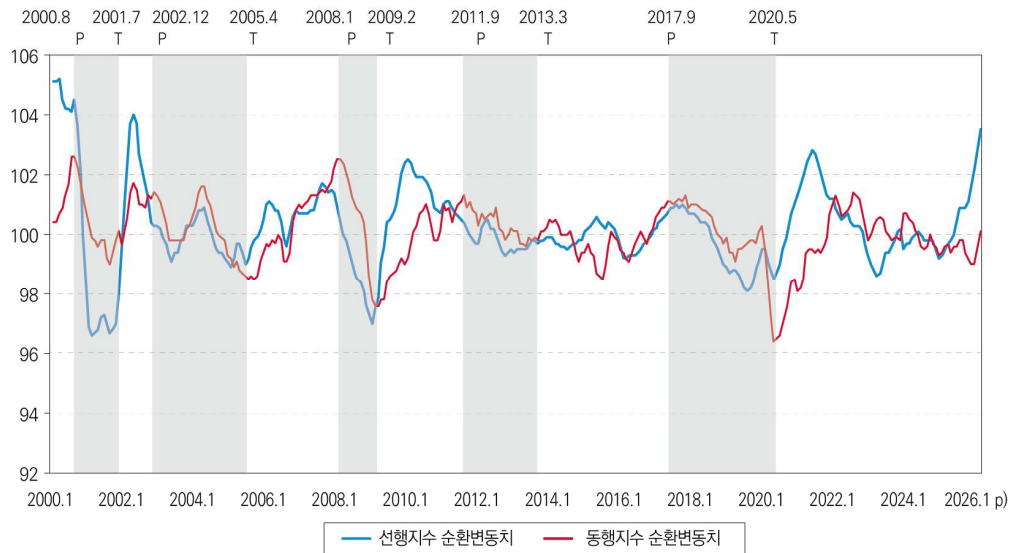
- 선행 순환변동치 전월차: (2025.10월) 0.2 → (11월) 0.6 → (12월) 0.7 → (2026.1월) 0.9 → (2월) 0.8 → (3월) 1.0
- 동행 순환변동치 전월차: (2025.10월) -0.4 → (11월) -0.2 → (12월) -0.2 → (2026.1월) 0.0 → (2월) 0.6 → (3월) 0.5

<그림 1-2>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1-3>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2. 대내외 여건 전망

(1) 세계경제

□ 2026년 동향: 연초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실물경기의 점진적 둔화 우려

○ 세계 실물경기는 2025년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지역의 분쟁 등 불확실성이 약해지면 서 완만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2026년 들어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 둔화 양상

- 지난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일시 급등한 이후 빠르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인 이후, 2026년 초 미국-이란 전쟁 발발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실물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

· 무역정책 불확실성(TPU): (2025.4월) 1,151.4pt(사상 최고치) → (2026.4월) 198.1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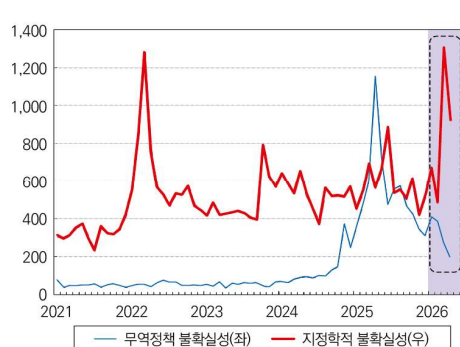
· 지정학적 위험도(GPR): (2026.3월) 327.0pt(2003.3월 이후 최고치) → (2026.4월) 230.8pt

- 전 세계 산업생산은 주요국들의 인플레이션 안정화 및 경기부양 기조 등에 힘입어 선진권에 서는 일본과 유로권을 중심으로, 신흥권의 경우 중국에서 증가율이 연초까지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점진적 둔화가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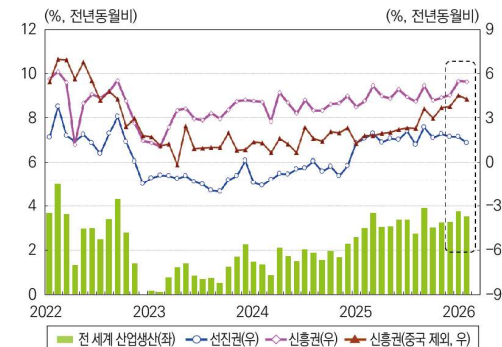
· 선진권 산업생산(전년동기비): (2024) -0.7% (2025.상) 1.6% (2025.하) 1.8% (2026.1~2월) 1.5%

· 신흥권 산업생산(전년동기비): (2024) 3.9% (2025.상) 4.5% (2025.하) 4.5% (2026.1~2월) 5.5%

<그림 1-4> 무역정책·지정학적 불확실성 지수 추이 <그림 1-5> 전 세계 및 권역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https://www.matteoiacoviello.com/>.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26년 전망: 무역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영향으로 성장률의 하락 예상

- 2026년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 정책과 미국-이란 전쟁 등이 더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제 하더라도 2025년보다 낮은 성장이 예상되며, 고유가 및 인플레이 영향 정도와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변화, AI발(發) IT 경기의 호조 지속 여부 및 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주요 변수
-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이 약해지고 있음에도 관세 정책의 향방이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세제 혜택에 따른 소비 증대와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 등이 성장을 지지할 것이나,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와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 등이 관건
 - 유로존은 역내 주요국들의 확장적 정책 기조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요인이 재발하면서 역내 성장 둔화가 불가피 해 보이며, 일본은 다카이치 정부의 성장 중심 적극 재정 기조(high-pressure economy)가 내수 지지 요인으로 작용하나, 고유가 지속 및 대외 수요 둔화 등은 성장 제한 요인
 -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 정책 지원(노후제품 교체 보조금, 서비스 소비 육성 등) 등으로 성장률 목표치(4.5~5%) 달성을 위해 주력할 것이나, 해외 수요 둔화 및 미국과의 무역분쟁 향방 등이 주요 관심
 -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미국-이란 전쟁 등이 앞으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제 하더라도 2026년에는 2025년보다 낮은 성장세가 불가피해 보이며, 유가 급등에 따른 인

<표 1-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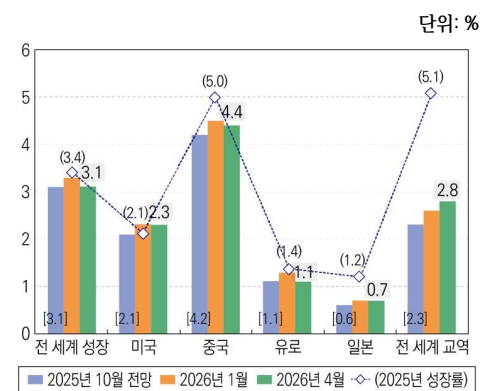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비

	2024	2025		2026	2026 전망치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4	IMF	ADB	OECD
전 세계	3.4 (2.9)	-	-	3.4 (2.9)	-	3.1 (2.6)	-	2.9
선진권	1.8	-	-	1.9	-	1.8	-	-
미국	2.8	2.0	2.2	2.1	2.7	2.3	2.3	2.0
유로존	0.9	1.6	1.3	1.5	0.8	1.1	1.1	0.8
일본	-0.2	1.8	0.4	1.1	0.6	0.7	0.7	0.9
신흥권	4.5	-	-	4.4	-	3.9	-	-
중국	5.0	5.0	5.0	5.0	5.4	4.4	4.6	4.4
세계교역 [제화]	3.7 [2.8]			5.1 [5.4]	-	2.8 [2.8]	-	-

자료: IMF(2026. 4월); ADB(2026. 4월); OECD(2026. 3월).

주: 전 세계는 PPP환율 적용 기준. 단, 괄호 안 수치는 시장환율 기준.

<그림 1-6> 세계 주요국 2026년 성장률 전망치



자료: IMF, WEO Databases.

플레 이연 효과와 인플레이 대응을 위한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 AI 관련 ICT 경기의 호조 지속 여부, 금리 변화 및 기업 실적 등 관련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이 주요 관심 요인

<표 1-2> 세계 주요 권역별 및 국가별 경기선행지수(CLI) 추이

	경기선행지수 ¹⁾ (장기 추세=100)						3(4)개월 전 대비 변화폭(p)							전년 동월비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	2026 4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4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4월			
G20개국	100.02	99.99	99.96	100.08	100.32	100.65	0.16	▲0.03	▲0.03	0.12	0.24	0.33	0.69		
G7(선진권)	99.76	99.75	99.87	100.19	100.56	100.82	0.16	▲0.01	0.12	0.32	0.37	0.26	1.07		
유럽 4개국 ²⁾	99.61	99.84	100.26	100.70	100.96	100.85	▲0.04	0.23	0.42	0.44	0.26	▲0.11	0.89		
아시아 5개국 ²⁾	100.17	100.15	100.01	99.90	99.87	100.12	0.18	▲0.02	▲0.14	▲0.11	▲0.03	0.26	0.02		
미국	99.93	99.80	99.74	99.95	100.38	100.85	0.32	▲0.13	▲0.06	0.21	0.43	0.47	1.13		
독일	99.42	99.85	100.38	100.72	100.89	100.90	0.01	0.43	0.53	0.34	0.17	0.01	0.85		
프랑스	99.20	99.41	99.56	100.16	100.76	100.79	0.20	0.21	0.15	0.60	0.60	0.02	1.35		
영국	100.26	100.30	100.84	101.11	101.06	100.81	▲0.42	0.04	0.54	0.26	▲0.04	▲0.25	0.37		
일본	99.58	99.46	99.52	99.82	100.07	100.34	▲0.16	▲0.13	0.06	0.30	0.26	0.27	0.90		
브라질	100.87	100.41	100.20	100.35	101.89	104.02	▲0.62	▲0.46	▲0.21	0.15	1.54	2.14	3.68		
중국	100.57	100.47	99.93	99.27	98.75	98.80	0.32	▲0.10	▲0.54	▲0.66	▲0.52	0.05	▲1.52		
인도	99.25	99.57	100.09	100.73	101.41	102.24	0.14	0.32	0.52	0.64	0.67	0.84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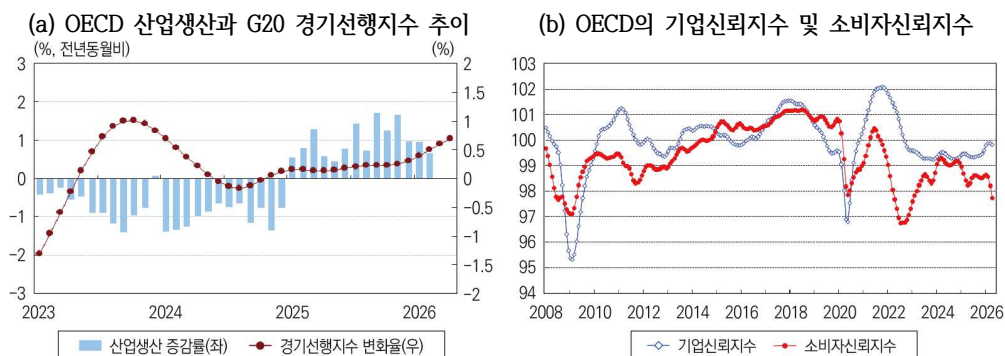
자료: OECD Data Explorer.

주: 1) 지수가 100 이상에서 상승(또는 하락) 시 경기 확장(또는 수축), 100 미만에서 상승(또는 하락) 시 경기 회복(또는 하강)을 의미.

2) 유럽 4개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아시아 5개국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등.

3) ▲는 마이너스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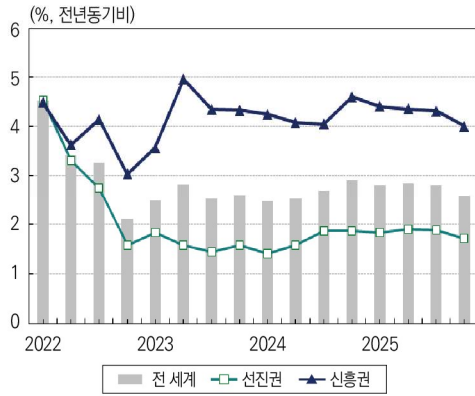
<그림 1-7> 세계 주요국의 경제지표 및 체감지표 추이(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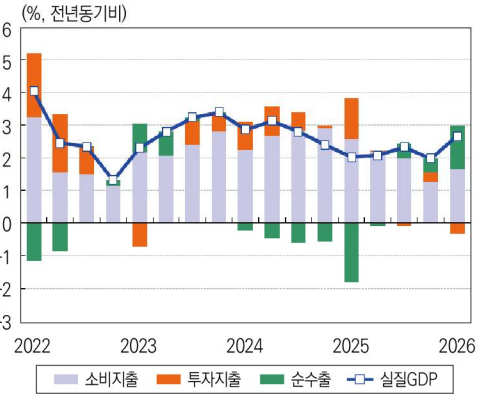
자료: OECD Data Explorer.

<그림 1-8>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실질GDP 성장률(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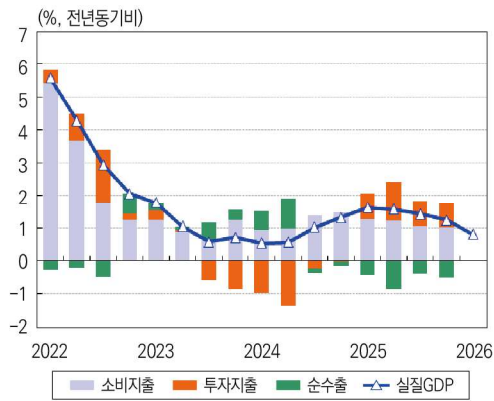
(a) 전 세계 및 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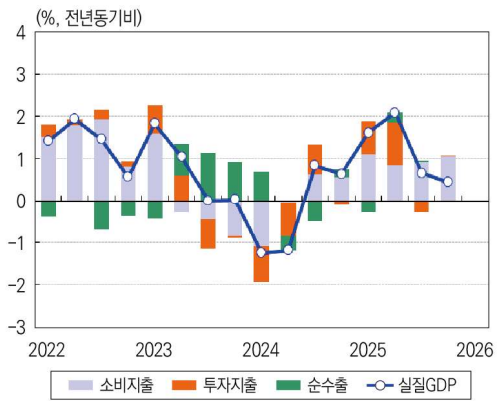
(b)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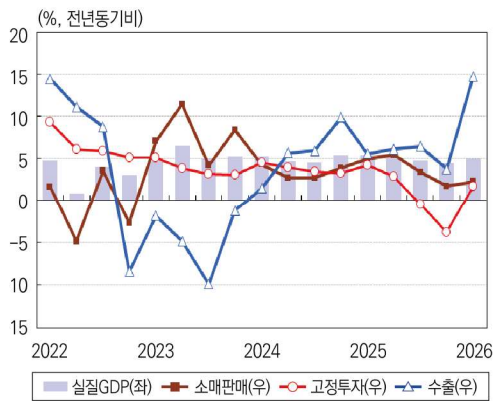
(c) 유로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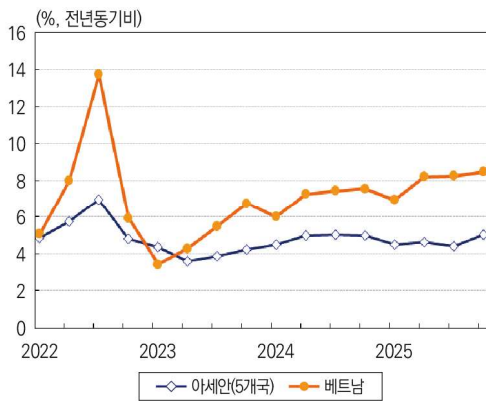
(d) 일본



(e)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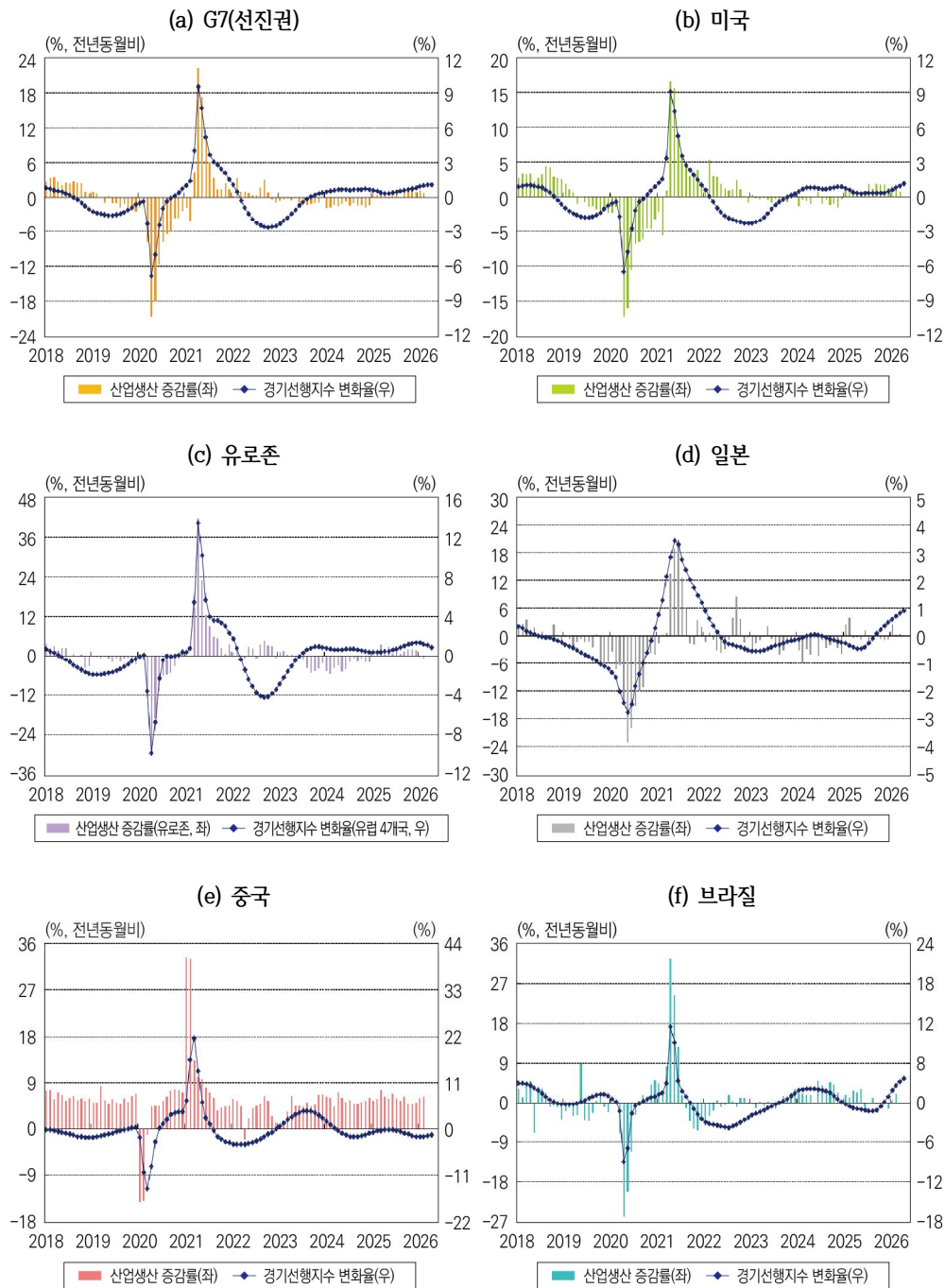


(f) 아세안(5개국) 및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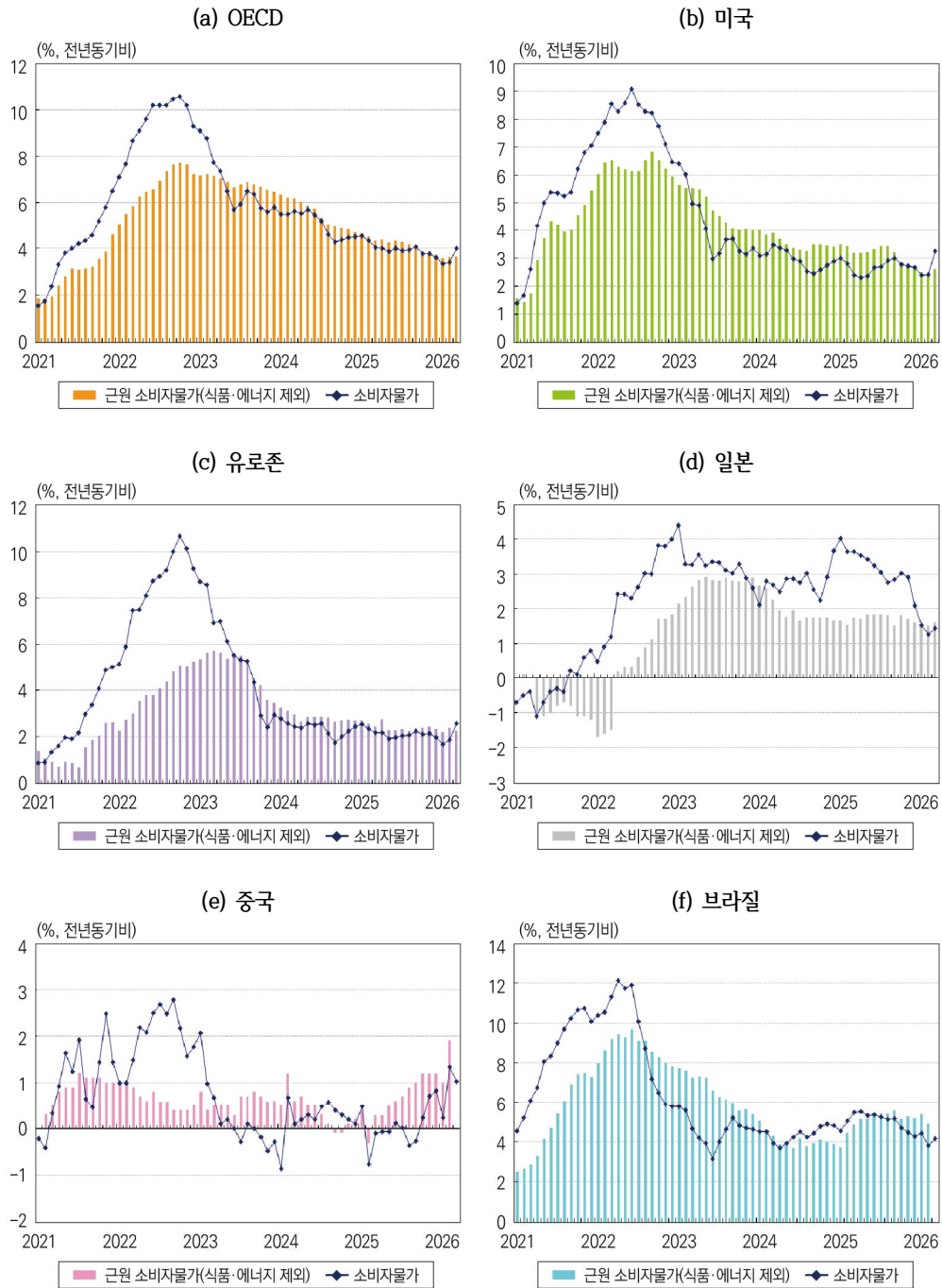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GEM Database; OECD Data Explorer.

<그림 1-9> 세계 주요국의 산업생산과 경기선행지수 변화를 추이(월별)



자료: OECD Data Explorer.

<그림 1-10> 세계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및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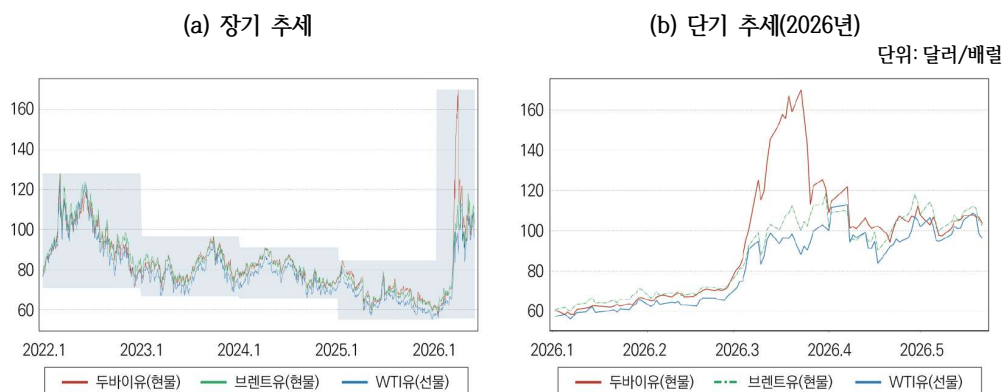


자료: OECD Data Explorer, World Bank GEM Database 등.

(2) 유가: 두바이유 연평균 92달러 내외 예상

- 2026년 상반기 국제유가는 미국·이란의 무력 충돌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급등한 이후, 휴전 협상 진전과 물류 일부 회복 기대로 상승폭이 점차 축소
- 연초 유가는 OPEC+의 점진적 증산과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 속에 약보합세를 이어가다,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습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으로 급등
- 3월 들어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실행, 중동 지역의 주요 석유·가스 시설 피격, 중동 산유국들(쿠웨이트·이라크·사우디 등)의 대규모 감산 조치 등으로 두바이 유가는 3월 중순 한때 배럴당 167달러까지 급등
- 이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략비축유 방출 합의, 미국·이스라엘의 추가 에너지 인프라 시설 공습 자제 시사, 미국의 대이란 휴전 협상안 전달 등 시장 안정 요인이 부각되면서 유가는 3월 말부터 조정 국면에 진입
- 5월 들어 미·이란 양측의 협상안 상호 거부가 이어지며 약보합 전환하였으나, 미·중 정상회담 호르무즈 개방 합의 기대, 종전 협상 교착에 따른 IEA의 석유재고 급감 경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최종 단계 진입 언급 등 강·약 요인이 교차하며 배럴당 100달러 초반 수준에서 등락 중

<그림 1-11>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

주: 음영 부분은 연간 변동 범위(최솟값~최댓값)임.

- 2026년 하반기 국제유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란 전쟁이 앞으로 더 이상 격화되지 않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점진적 개방을 전제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딘 하락세가 예상
- (수요 측면) 중동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원유 수요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 정책과 인도 등 신흥국들의 수요 회복이 부분적인 하방 완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공급 측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중동 산유국들의 대규모 감산과 주요 석유 인프라 피해가 원유 공급 차질을 초래하는 가운데 IEA의 전략비축유 방출과 OPEC+의 증산 합의가 공급 충격을 일부 완충하고 있으나, 물류 정상화 이전까지는 공급 불안이 지속
- 향후 유가 변동 요인으로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 여부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재개방 시점, 중동 주요 석유·가스 시설의 피해 복구 속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 정책 변화, 그리고 OPEC+의 산유량 조절 정책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상반기 평균 94.8달러(전년동기비 31.8% 상승), 하반기 89.3달러(전년동기비 33.4% 상승)로 예상하고, 연평균 92.1달러(전년 대비 32.6% 상승) 예상

<표 1-3> 국제유가 전망(미국 EIA 기준)

	2025					2026(e)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WTI유	71.8	64.6	65.7	59.6	65.5	72.0	101.7	91.0	83.7	87.1
브렌트유	75.8	68.0	69.0	63.6	69.1	80.2	114.7	99.7	88.0	95.6

자료: EIA 단기에너지전망 보고서(2026. 4월).

<표 1-4> 2026년 국제유가 전망

단위: 달러/배럴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두바이유	71.9 (-13.6)	67.0 (-11.8)	69.4 (-12.8)	94.8 (31.8)	89.3 (33.4)	92.1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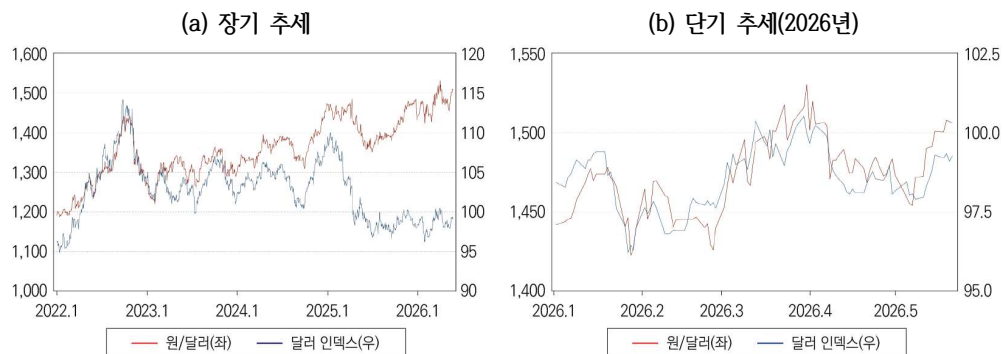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2) 2026년 상·하반기 및 연간은 5월 22일 현재 기준.

(3) 환율: 원/달러 연평균 1,460원 내외 예상

- 2026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중동 전쟁 개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국제유가 급등세 등 원화 약세 요인이 우세한 가운데 중동 전황에 따라 등락을 보이다, 5월 들어 미국·이란 협상 교착과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재차 상승한 모습
- 연초 환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AI발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이란 간 긴장 고조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과 반도체 수출 호조세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일시 하락
- 이후 중동 전쟁의 개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세와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에 따른 중동의 불확실성 재확대 등으로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중동 전황의 전개 시점에 따라서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
- 주요 중동 전황 전개: 중동 전쟁 개시(2월 말), 호르무즈 해협 봉쇄(3월 중순), 이란 항구 봉쇄 및 선박 나포·총격(4월 중순), 미군 이란 공습 및 트럼프 강경 발언(5월 7~15일)
- 2026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 최고치: 1,530.1원(3월 31일)
- 4월 초 미국·이란의 임시 휴전 합의(4월 7일) 이후 종전 협상 기대감과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환율이 하락 전환하였으나, 협상 교착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강경 발언, 국내 증시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1,500원대 안팎에서 등락 지속

<그림 1-12> 원/달러, 달러 인덱스 추이



자료: ICE Data Services, 한국은행.

- 2026년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인플레이 부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과 대미국 투자 집행 등이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나,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세, 국내 증시 관련 외국인 투자 유입,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영향 등을 바탕으로 점진적 하향세가 예상
- (상반기) 미국·이란 전쟁의 개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국제유가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 강화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환율은 당분간 1,500원대 안팎의 높은 수준이 이어질 전망
- 4월 초 미국·이란의 임시 휴전 합의를 계기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되고, 국제유가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나,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지속과 중동 리스크의 재부각 가능성 등은 원화 강세 폭을 제한하는 요인
- (하반기)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 기대감과 유가 하향 안정화 등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완만한 하락세가 예상되나, 유가 재상승 및 인플레이션 우려 재부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경우 하락폭이 제한될 가능성
- 인플레이션 향방에 따른 금리 정책 향배가 주목되는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 등은 원화 강세 요인이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대미국 투자 집행 등은 원화 약세 요인
-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평균 1,474.6원(전년동기비 3.4% 상승), 하반기 1,447.5원(전년동기비 2.1% 상승)으로 예상하고, 연평균 1,461.0원(전년 대비 2.7% 상승) 내외로 예상

<표 1-5> 2026년 원/달러 환율 전망

단위: 원/달러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426.1 (5.6)	1,417.3 (3.0)	1,422.4 (4.3)	1,474.6 (3.4)	1,447.5 (2.1)	1,461.0 (2.7)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2) 2026년 상·하반기 및 연간은 5월 22일 현재 기준(한국은행 원/달러 환율 증가).

3. 2026년 국내경제 전망

(1) 경제성장

- 2026년 국내경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 및 관련 비용 상승이 소비와 생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나, 추경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함께 반도체 등 IT 경기 호조로 인한 투자 및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5% 내외 성장률이 예상
-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금융시장(증시 등) 호조세 등을 배경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나,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환율 등이 물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금리 인하 지연 등이 회복세를 제한하면서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투자 여력 확대, AI 관련 첨단산업의 투자 수요 지속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나, 비IT부문 업황 부진 지속과 함께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연간 2.9% 증가를 예상
- 건설투자는 수주→착공→기성 전환의 지연 구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 부문에서의 제한적 회복 등이 우려되나, 건설수주 증가세 지속, 정부 SOC 예산 확대(27조 5천억 원, 전년

<표 1-6>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

	2024	2025			2026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2.0	0.3	1.7	1.0	2.9	2.1	2.5
민간소비	1.1	0.7	1.9	1.3	2.5	1.8	2.2
설비투자	1.7	4.5	-0.4	2.0	3.0	2.8	2.9
건설투자	-3.3	-12.4	-7.3	-9.8	-0.5	2.2	0.9
통관 수출	6,836 (8.1)	3,347 (0.0)	3,747 (7.4)	7,093 (3.8)	4,585 (37.0)	4,659 (24.3)	9,244 (30.3)
통관 수입	6,318 (-1.7)	3,072 (-1.5)	3,246 (1.5)	6,319 (0.0)	3,481 (13.3)	3,573 (10.1)	7,054 (11.6)
무역수지	518	275	501	774	1,104	1,086	2,190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6년 상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대비 7.9% 증가) 등에 힘입어 소폭의 증가 전환(2020년 이후 처음)이 예상

- 수출(통관 기준)은 하반기에도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의한 반도체 수요와 정보통신기기 등 ICT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전체 30.3%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대외적으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전개 양상,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 정도, AI 수요 기반의 ICT 경기 호조 지속 여부,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대내적으로는 소비 회복과 투자 호조의 지속 여부, 해외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의 부정적 영향 정도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2) 부문별 전망

1) 민간소비

-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와 고용 여건 개선,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재화(내구재, 준내구재 등)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
 - 민간소비는 2025년 3분기와 4분기 모두 전년동기비 1.9% 증가하고, 2026년 1분기에는 2.6% 증가하는 등 점진적인 회복세
 - 실질GNI(국민총소득)는 수입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물량 확대에 의한(소득)교역조건의 개선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지속
 - 수입물가 변화율(전년동기비, %, 달러 기준): (2025.3/4) -4.5 → (4/4) -2.8 → (2026.1/4) 5.4
 - 소득교역조건 변화율(전년동기비, %): (2025.3/4) 12.2 → (4/4) 11.4 → (2026.1/4) 41.3
 - 소매판매는 내구재(승용차·컴퓨터 등)와 준내구재(의복 등) 판매가 올해 1분기에 큰 폭 증가하고, 비내구재 판매도 장기간의 감소세를 벗어나 2분기 연속 증가
 - 내구재(전년동기비, %): (2025.3/4) 7.3 → (4/4) 1.2 → (2026.1/4) 6.1
 - 준내구재(전년동기비, %): (2025.3/4) 0.5 → (4/4) -0.2 → (2026.1/4) 4.7
 - 비내구재(전년동기비, %): (2025.3/4) -0.7 → (4/4) 1.0 → (2026.1/4) 1.6

<표 1-7> 민간소비 관련 지표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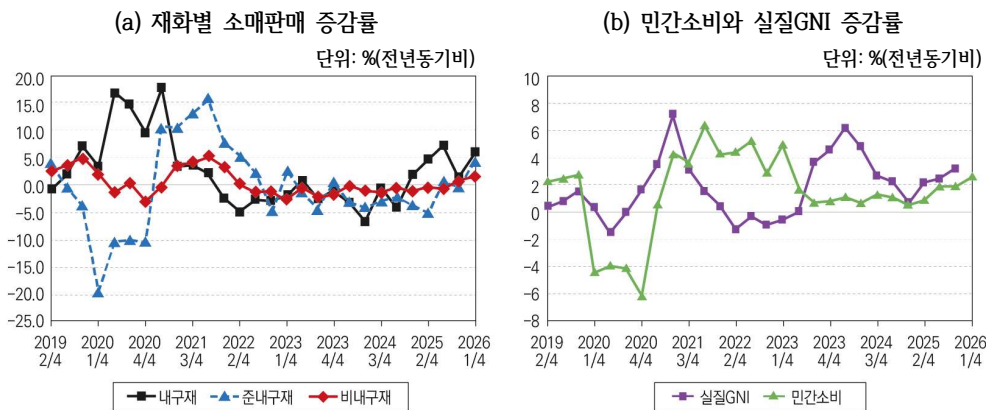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2024	2025					202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민간소비	1.1	0.6 (-0.1)	0.9 (0.5)	1.9 (1.3)	1.9 (0.3)	1.3	2.6 (0.5)
소매판매액지수	-1.9	-0.8 (0.6)	-0.1 (-0.6)	1.6 (1.2)	0.9 (0.6)	0.3	3.3 (2.4)
실질 GNI	3.9	0.7 (0.1)	2.2 (1.0)	2.5 (0.8)	3.2 (1.4)	2.2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주: () 안은 계절조정 자료의 전기비.

<그림 1-13> 소비지표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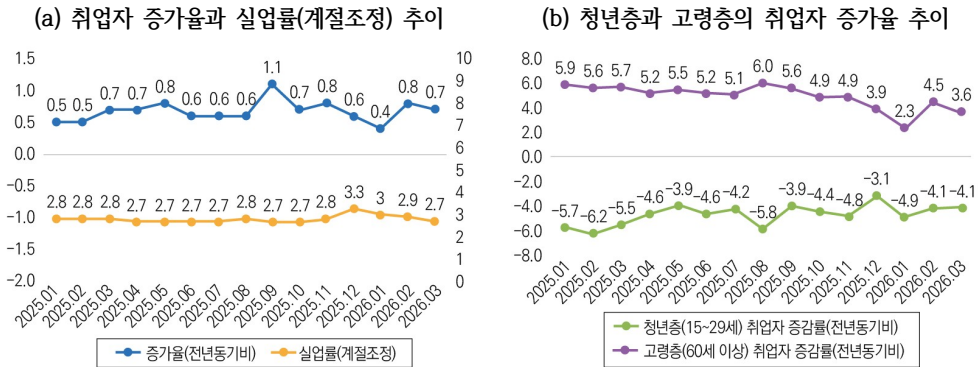
○ 고용 여건은 전 산업 취업자 수가 2026년 들어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실업률도 2% 대 후반 수준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연령 간 양극화 현상이 여전히 부담 요인이나, 청년층과 고령층 간 취업자 증가세 격차는 올 들어 다소나마 축소

- 취업자 수는 2026년 1분기 현재 전년동기비 0.6% 증가한 18만 3,000명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실업률은 2.9% 수준으로 지난 2025년 4분기와 동일

· 취업자 수(전년동기비, %): (2025.3/4) 0.8 → (4/4) 0.7 → (2026.1/4) 0.6

· 계절조정 실업률(%): (2025.3/4) 2.7 → (4/4) 2.9 → (2026.1/4) 2.9

<그림 1-14> 고용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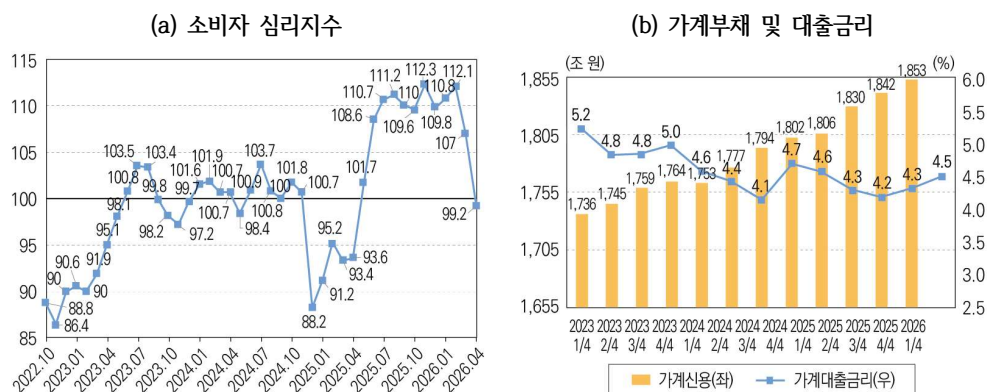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자료: 국가데이터처.

-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2025년 중순 이후 연초까지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중동 전쟁 여파로 100 이하로 급락하면서 소비심리가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가계부채 확대와 금리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가계의 부채 상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
- 소비자 심리지수는 2025년 11월에 최고치(112.3)를 기록한 이후 110 부근의 수치를 웃돌다 2026년 3월부터 점차 하락하면서 4월에는 100 이하 수준(99.2)으로 급락
- 가계부채는 2024년 2분기부터 7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계대출 금리가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상승 전환하면서 가계의 부채 상황 부담은 지속될 가능성

<그림 1-15> 소비자심리지수,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자료: 한국은행.

-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금융시장(증시 등) 호조세 등을 배경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환율 여건 등이 물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금리 인하 지연 등이 회복세를 제한하면서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수출 호조에 따른 소득 증대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유류 지원금과 추경 등), 금융시장 호조세 등은 소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중동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과 에너지 가격 및 고환율 등에 따른 물가 부담이 소비심리를 제약할 가능성

<표 1-8> 민간소비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민간소비	0.7	1.9	1.3	2.5	1.8	2.2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6년 상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2) 설비투자

- 설비투자는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에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25년 4분기의 감소세를 벗어나 2026년 1분기에 반등세를 시현
- 전기비(계절조정) 역시 4.8% 증가하면서 전분기의 감소세를 벗어나는 모습

<표 1-9> 설비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2024	2025					202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설비투자	1.7	5.8 (-0.4)	3.4 (-2.1)	1.0 (2.6)	-1.7 (-1.7)	2.0	3.6 (4.8)
기계류	1.8	2.5 (-4.6)	2.6 (-1.0)	0.6 (4.5)	-1.3 (0.0)	1.0	-
운송장비	1.4	20.4 (15.9)	5.8 (-5.8)	2.8 (-3.5)	-3.0 (-8.0)	5.6	-

자료: 한국은행.

주: 1) 2026년 1분기는 속보치.

2) ()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 설비투자지수도 2026년 1분기에 전년동기비 9.5% 증가하면서 지난 2025년 4분기의 부진(-6.2%)에서 벗어나고, 기계류(7.1%)와 운송장비(15.7%) 모두 증가세로 전환

- 기계류는 1분기 중 일반기계류(8.0%)·정밀기기(10.6%)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하고, 운송장비도 자동차(29.6%)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기타운송장비(-5.8%)의 부진을 상쇄

<표 1-10> 부문별 설비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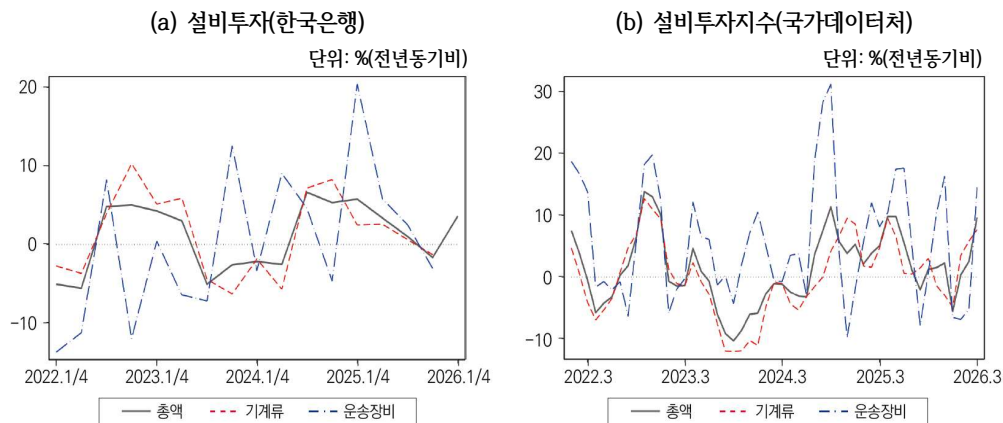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

		2025					2026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¹⁾	3월 ¹⁾
부 문 별	총지수	1.2	5.4	5.5	1.2	-6.2	9.5	13.6	6.2	9.2
	기계류	0.6	4.8	0.5	3.1	-4.7	7.1	15.7	3.9	3.5
	일반기계류	-0.3	8.1	-0.5	-0.2	-7.3	8.0	20.9	4.9	1.4
	전기 및 전자기기	0.3	-3.4	-1.0	8.0	-1.7	4.5	2.4	7.5	3.8
	정밀기기	9.3	9.1	13.1	11.4	4.0	10.6	22.0	-3.9	15.3
	기타기기	-4.5	-3.3	-6.7	-1.2	-6.4	1.4	8.7	-3.1	-0.9
	운송장비	2.3	7.9	17.4	-3.4	-9.5	15.7	7.7	11.8	24.2
	자동차	11.2	7.3	17.3	21.5	-2.1	29.6	32.0	39.2	20.9
	기타운송장비	11.8	8.7	17.4	-36.6	-20.1	-5.8	-21.5	-29.1	31.4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 잠정치.

<그림 1-16>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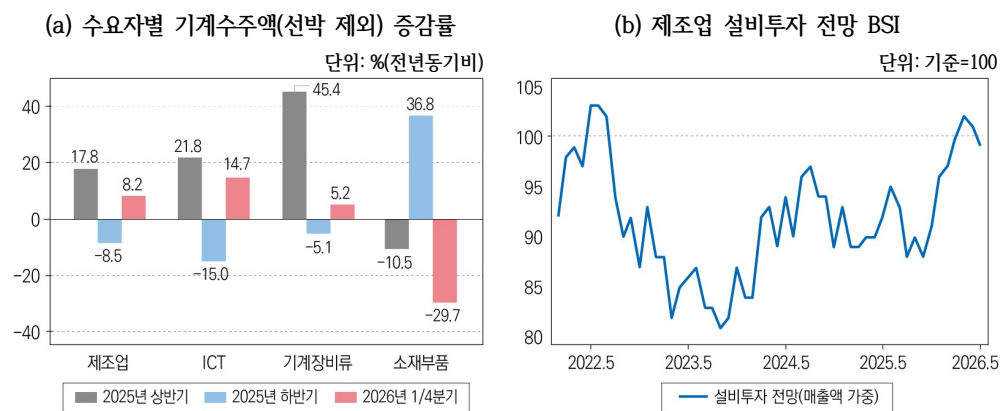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주: 설비투자지수 증감률은 3개월 중심향 이동평균.

- 설비투자 선행지표는 제조업 기계수주액이 지난 2025년 하반기에 ICT와 기계장비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2026년 1분기에는 특히 ICT 부문(14.7%)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비 8.2% 증가
- 한국은행의 설비투자 BSI도 2026년 1~2월에는 기준선(100)을 상회(2022년 이후 처음)하면서 국내 제조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을 시사

<그림 1-17>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주: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은 다음 달 전망.

- 제조업의 설비투자조정압력은 2026년 1분기에 ICT(2.0%포인트)와 소재부품(석유정제 6.3%포인트, 화학제품 3.5%포인트, 1차금속 3.4%포인트) 등 주요 업종에서 모두 높아짐에 따라 전년동기비 2.2%포인트 상승
- 제조업 재고율은 2026년 3월 현재 100%를 상당폭 하회(93.4%)하고 있으며, ICT 업종도 낮은 수준(80% 내외)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신규 설비투자 유인이 뒷받침되는 상황
- 다만, 자동차 재고율은 2026년 3월 현재 109% 수준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업종 간 차별적 양상이 나타나는 모습
- 자본재 수입액은 2026년 1분기에 전년동기비 21.6% 증가하면서 지난 2025년 하반기(월 평균 4.5%)보다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고, 특히 3월에는 100억 달러 규모를 상회하는 등 설비투자 수요가 확대된 상황을 반영

<표 1-11> 설비투자조정압력 추이

단위: %포인트

		2025					2026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1월	2월 ¹⁾	3월 ¹⁾
제조업		0.8	0.9	1.1	5.1	-3.8	2.2	6.3	-2.9	3.3
ICT		-1.1	3.0	0.2	2.5	-10.2	2.0	-7.1	13.5	0.6
기계 장비류	자동차	0.6	0.4	-0.5	7.4	-4.8	-0.1	17.4	-19.4	3.9
	기타운송장비	15.4	13.9	17.1	14.9	15.5	-3.3	0.9	-13.8	2.2
	일반기계	3.6	2.2	6.3	7.8	-1.7	3.9	13.7	-7.5	6.5
소재 부품	석유정제	-0.3	-5.2	-0.9	2.6	2.2	6.3	6.5	5.4	7.1
	화학제품	0.3	1.1	-0.2	2.7	-2.6	3.5	8.1	-1.0	3.3
	1차금속	-3.0	-7.4	0.0	0.8	-5.5	3.4	6.6	-0.8	4.1
	섬유제품	0.2	1.9	-3.4	4.5	-2.2	0.4	11.6	-13.6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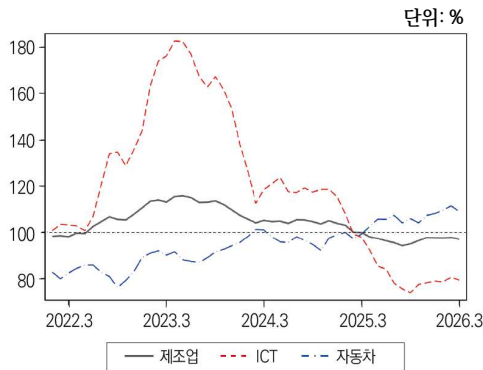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 1)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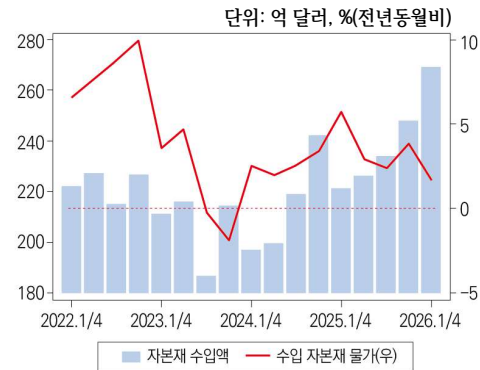
2) 설비투자조정압력 =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 제조업 생산능력 증감률.

<그림 1-18> 제조업 재고율과 자본재 수입 추이

(a) 주요 업종별 재고율



(b) 자본재 수입과 수입 자본재 물가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주: 1) 재고율 = (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2) 재고율은 3개월 중심향 이동평균. 자본재수입액은 달러 기준, 수입자본재물가는 원화 기준.

○ 2026년 설비투자는 국내 주요 제조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투자 여력 확대, AI 관련 첨단산업의 투자 수요 지속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삼성전자(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전년동기비 755% 증가)·SK하이닉스(37조 6천억 원, 405%

증가)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역대 최대 실적 달성으로 투자 재원이 크게 확충된 가운데 자본재 수입액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 다만, 글로벌 수요 둔화 조짐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 등은 투자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표 1-12> 설비투자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설비투자	4.5	-0.4	2.0	3.0	2.8	2.9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6년 상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3)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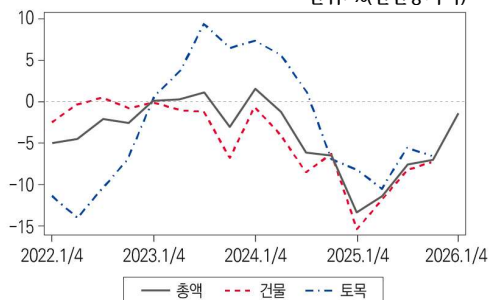
- 건설투자는 2026년 1분기에 전년동기비 -1.4%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2025년(연간 -9.8%)보다는 감소폭이 크게 완화

- 전기비(계절조정) 기준으로 2.8% 증가하면서 전분기의 감소세를 벗어난 모습이나, 건물 건설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회복 흐름이 제한적

<그림 1-19>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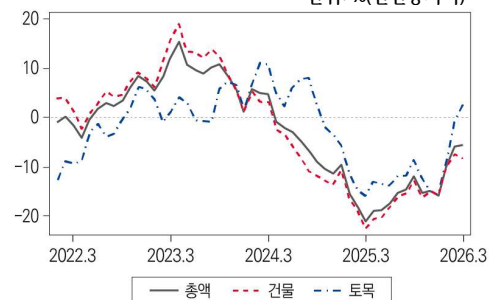
(a) 건설투자 증감률(한국은행)

단위: %(전년동기비)



(b) 건설기성액 증감률(국가데이터처)

단위: %(전년동기비)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주: 건설기성액(불변)은 3개월 중심향 이동평균.

- 건설기성액(불변)은 2026년 1분기에 전년동기비 -5.6%로 지난 2025년과 달리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고, 토목(2.6%)은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건물건설(-8.4%)은 여전히 부진
- 건설기성액(불변, 전년동기비, %): (2025.3/4) -11.9 → (4/4) -15.1 → (2026.1/4) -5.6
- * 건물건설부문(불변, 전년동기비, %): (2025.3/4) -13.0 → (4/4) -15.3 → (2026.1/4) -8.4
- * 토목건설부문(불변, 전년동기비, %): (2025.3/4) -8.6 → (4/4) -14.6 → (2026.1/4) 2.6

<표 1-13> 건설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2024	2025					202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건설투자		-3.3	-13.3 (-3.1)	-11.4 (-1.2)	-7.5 (0.6)	-7.0 (-3.5)	-9.8	-1.4 (2.8)
형태별	건물건설	-5.0	-15.3 (-5.4)	-11.8 (0.1)	-8.2 (-0.8)	-7.3 (-1.2)	-10.5	
	주거용 건물	-5.8	-20.5 (-8.8)	-14.3 (1.9)	-11.4 (-1.5)	-10.7 (-2.4)	-14.2	
	비주거용 건물	-4.3	-9.9 (-2.3)	-9.5 (-1.5)	-5.3 (-0.2)	-4.2 (-0.2)	-7.1	
	토목건설	1.3	-8.2 (2.6)	-10.5 (-4.0)	-5.6 (4.2)	-6.5 (-8.8)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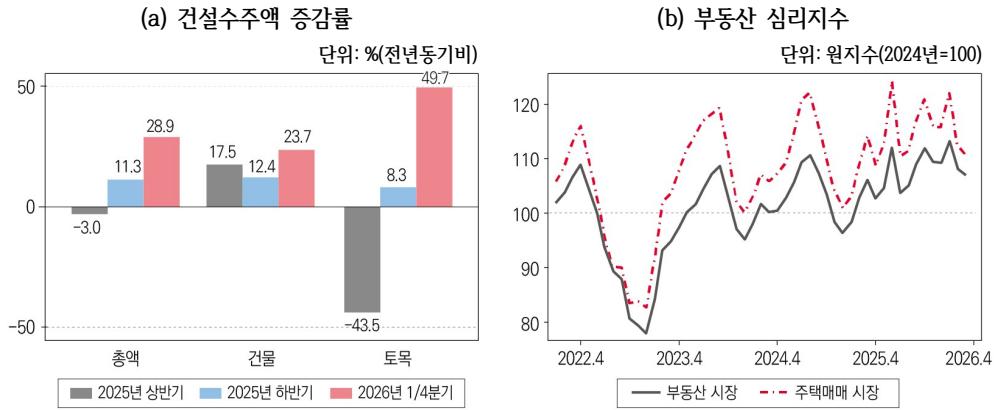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주: 1) 2026년 1분기는 잠정치.

2) ()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2026년 1분기에 전년동기비 28.9% 증가하면서 건물(23.7%)과 토목(49.7%)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도 2026년 3월 현재 기준선(100)을 상회(107)하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심리가 유지
- 건축허가(-5.0%)는 감소폭의 축소 양상에도 주거용 부문(-25.5%)에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착공은 주거용(41.9%)에서 급증세를 보인 반면, 상업용(-9.0%)과 공업용(-0.9%)에서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수주 증가가 허가·착공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모습
- 미분양 주택도 2025년 말 이후 정체(6만 5천 호)되어 있으며, PF 리스크 해소가 더딘 가운데 민간 주택수요 억제책이 지속되면서 수주에서 착공·기성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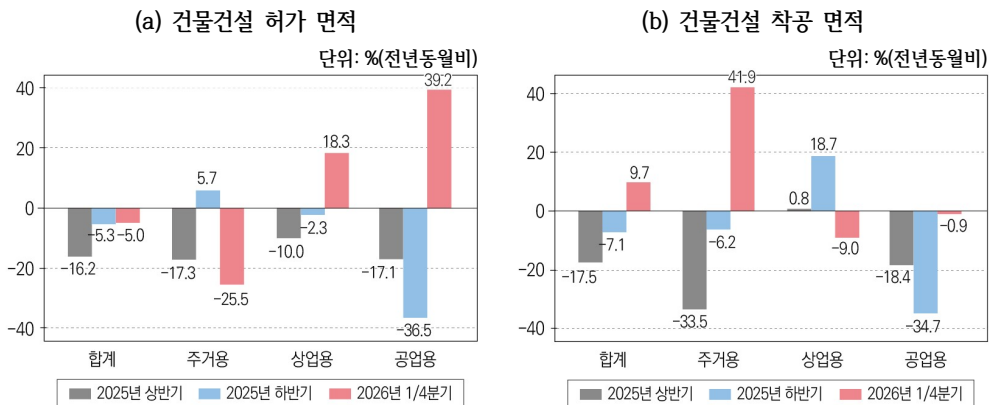
<그림 1-20> 건설투자 선행지표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자료: 국토연구원.

<그림 1-21> 건물건설 인허가 및 착공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토교통부.

주: 2025년 7~9월은 잠정치.

- 2026년 건설투자는 수주 → 착공 → 기성 전환의 지연 구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 건축 부문의 회복세 제한 등이 우려되나, 건설수주 증가세 지속, 정부 SOC 예산 확대(27조 5천억 원, 전년 대비 7.9% 증가) 등에 힘입어 소폭의 증가(0.9%) 예상
- 다만, 건설용 중간재 가격의 상승세 재개, 착공 지연 등의 영향이 기성으로 이어지는 데 상당한 시차가 예상되고, 미분양 해소 지연 및 민간 주택수요 억제책 지속 등으로 민간 건축 부문에서의 회복이 제한됨에 따라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

<표 1-14> 건설투자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투자	-12.2	-7.3	-9.8	-0.5	2.2	0.9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6년 상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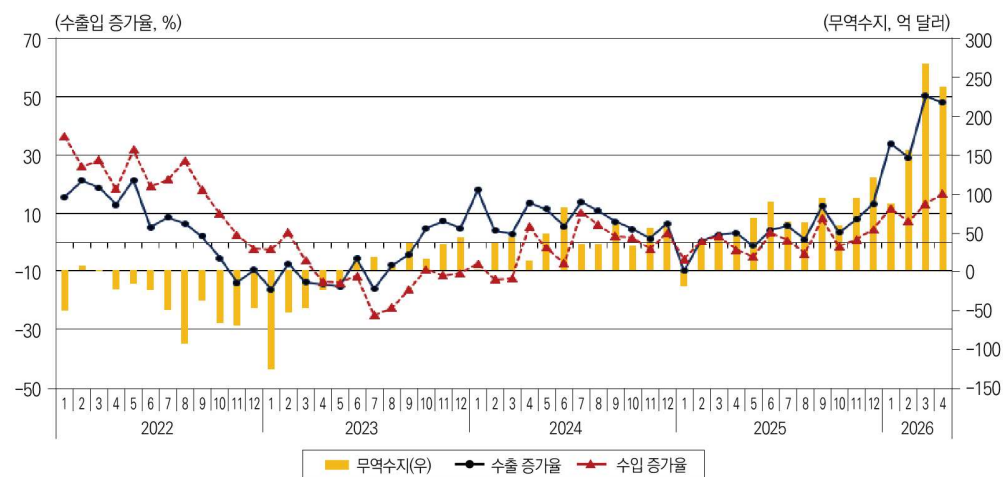
4) 수출입(통관 기준)

□ 2026년 동향: 반도체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

○ 수출(통관 기준)은 연초 예상치 못한 미국·이란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미국·중국)의 경제성장과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초유의 호황을 구가하는 모습

- 중동 전쟁과 보호무역 확산 등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력 품목이 전체 수출 확대를 주도

<그림 1-22>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입은 자본재 및 중간재 수요 증가에 힘입어 1분기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무역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

· 수출(전년동기비, %): (2024) 8.1 → (2025) 3.8, (2025.4/4) 8.4 → (2026.1/4) 38.3 → (4월) 48.0

· 수입(전년동기비, %): (2024) -1.7 → (2025) 0.0, (2025.4/4) 1.4 → (2026.1/4) 10.8 → (4월) 16.7

· 무역수지(억 달러): (2025.1/4) 67 → (2/4) 207 → (3/4) 224 → (4/4) 276 → (2026.1/4) 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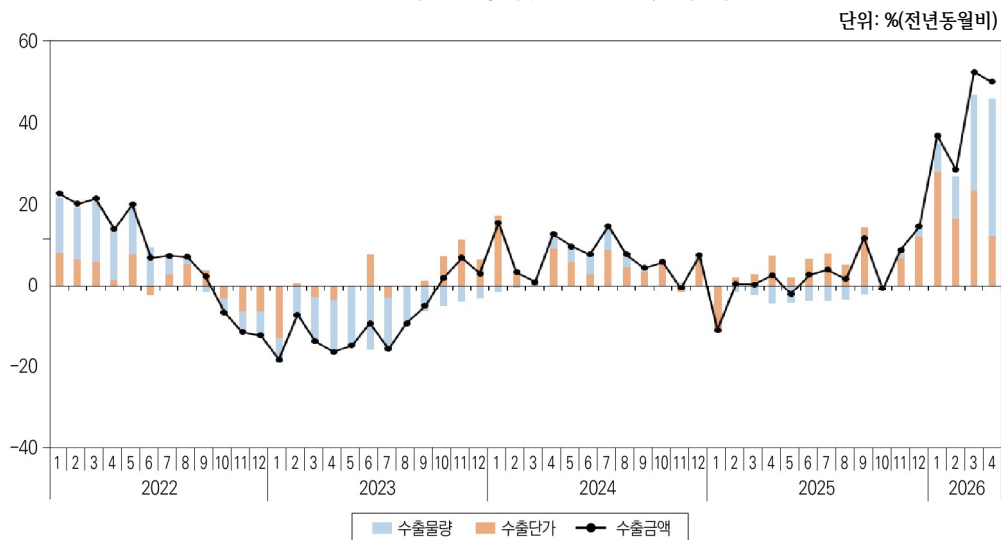
○ 수출금액을 단가와 물량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수출물량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 단가 역시 반도체 가격 강세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출 증가에 기여

- 2026년 1분기 수출은 물량 효과가 우세한 가운데 반도체 가격 강세 등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가격 효과도 상당 부분 기여

- 수출물량(전년동기비, %): (2024) 5.5 → (2025) 4.9, (2025.4/4) 6.2 → (2026.1/4) 23.1 → (4월) 12.4

- 수출단가(전년동기비, %): (2024) 1.8 → (2025) -1.8, (2025.4/4) 1.5 → (2026.1/4) 13.6 → (4월) 33.6

<그림 1-23> 수출물량 및 단가, 금액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수출단가지수는 수출금액지수를 수출물량지수로 나누어 산정.

○ 지역별 수출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 차별적 흐름

-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감소세(-1.7%)를 보인 것과 달리 반도체, 컴퓨터 등 IT 품목 수출 호조세로 2026년 1분기에 전년동기비 49.0% 증가

- 대미국 수출은 AI 인프라 확장 수요 등에 힘입어 반도체와 컴퓨터가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자동차, 일반기계 등은 감소세를 시현

* 대미국 반도체 수출(전년동월비, %): (2026.1월) 188.0 → (2월) 421.3 → (3월) 338.6 → (4월) 671.3

* 대미국 컴퓨터 수출(전년동월비, %): (2026.1월) 94.1 → (2월) 342.6 → (3월) 216.8 → (4월) 1,241.1

- 대EU 수출은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두 자릿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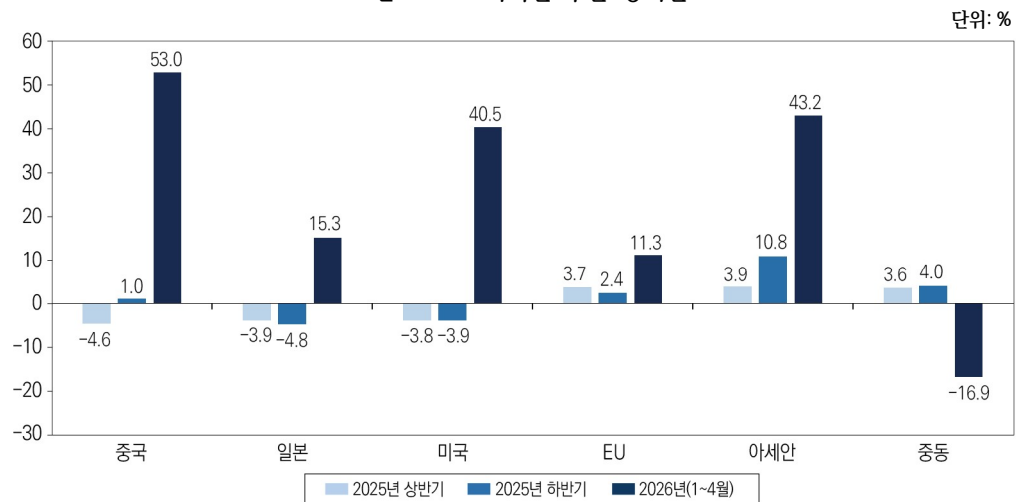
- 대아세안 수출은 자동차·자동차부품 등 감소에도 반도체와 컴퓨터를 중심으로 증가세

* 자동차, 자동차부품은 두 자릿수 감소세(2026년 1분기 누계 기준 각각 -29.4%, -24.2%)

- 대일본 수출은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등 품목에서 상당폭 증가

- 대중동 수출은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물류 차질 등 영향으로 다수 품목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3월에는 49.3%, 4월에는 24.9%나 감소

<그림 1-24> 지역별 수출 증가율



○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 컴퓨터 등 IT 품목에서 큰 폭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을 주도

-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가격의 높은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AI 서버 투자 확대와 일반 서버 수요가 맞물리면서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 1분기 반도체 수출: 대중국 221억 달러(+132.7%), 대미국 108억 달러(+313.7%)

총수출 대비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25년 24.4%에서 2026년 1분기 35.6%로 확대

- 컴퓨터 수출 역시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기업 데이터 생산 증가 등 영향으로 반도체와 함께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 석유화학제품은 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단가에 반영되면서 3월에 증가세로 전환되고, 석유제품은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상승세로 수출단가가 크게 오르면서 3월에 큰 폭으로 증가

<표 1-15> 주요 13대 품목별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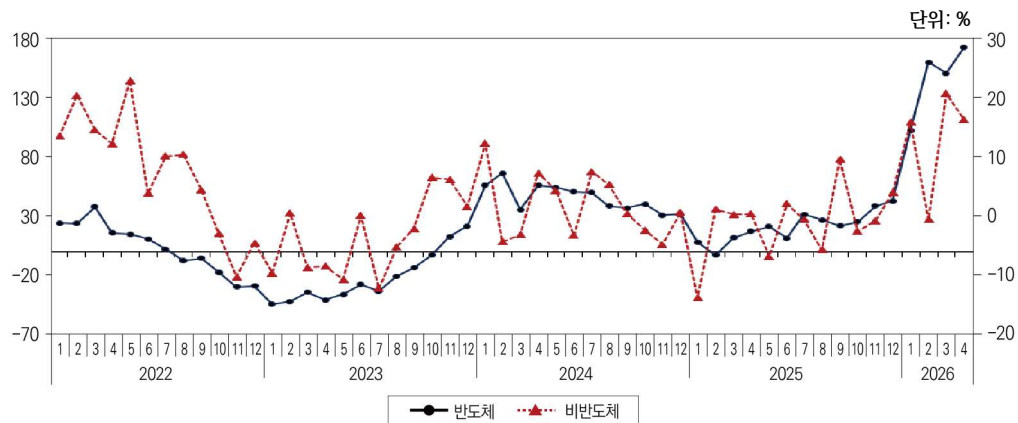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자동차	-0.1	1.7	11.5	0.1	-0.3	21.6	-20.8	2.2	-5.5
자동차부품	-1.8	-5.9	-3.5	-10.7	-7.7	3.9	-22.4	-2.6	-6.0
선박류	17.6	24.1	31.9	25.3	13.7	-0.1	41.3	10.8	43.8
일반기계	-4.2	-8.4	-7.1	-7.3	-5.3	8.4	-16.4	-6.3	-2.6
철강	-5.4	-9.0	-7.6	-16.3	-3.4	-0.1	-7.8	-2.3	-11.7
석유화학	5.0	-11.4	-9.5	-14.2	-2.0	-0.4	-14.1	9.5	7.9
석유제품	-3.2	-9.7	-2.3	2.6	30.9	8.6	3.3	86.1	39.9
섬유	-4.1	-7.5	-3.6	-9.6	-2.2	5.8	-16.8	2.6	3.8
가전	0.4	-8.8	-5.1	-8.7	-9.9	-0.3	-20.3	-7.9	-20.0
무선통신기기	11.1	0.4	-12.7	2.6	40.1	66.8	12.2	43.4	11.6
컴퓨터	76.7	4.4	-16.6	16.0	169.0	88.9	221.6	189.1	515.8
반도체	43.9	22.2	26.6	36.0	139.1	102.8	160.6	151.4	173.5
디스플레이	0.9	-9.4	-5.8	-3.7	5.5	26.1	-4.2	-1.5	-2.7

- 자동차 수출은 아세안·중동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EU 등지에서 전기차 수출 확대가 이를 일부 상쇄하는 등 지역별로 상이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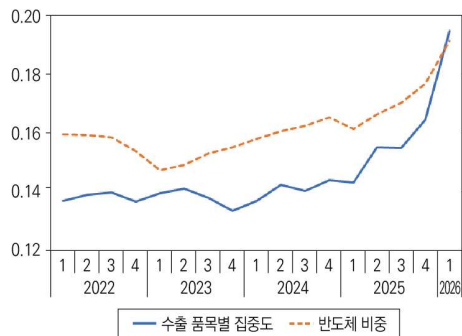
* 전기차 수출 증감률(전년동월비, %): (2025년) -13.6, (2026.1월) 21.2 → (2월) -8.3 → (3월) 32.1 → (4월) 23.0

<그림 1-25> 반도체와 비(非)반도체 수출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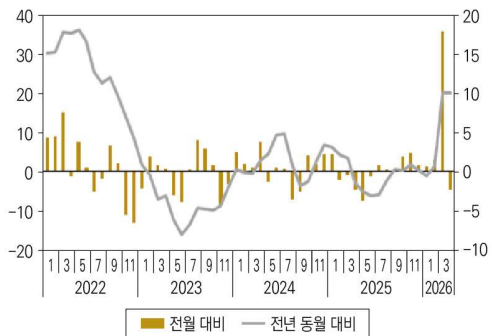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1-26> 수출 품목별 집중도 및 반도체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1-27> 수입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 수입은 반도체 수출 호조 등 영향으로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 자본재(반도체 제조용 기기 1분기 기준 58억 달러, +32.5%)와 중간재(메모리 78억 달러 +78.1%)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생산 및 투자 수요 확대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율

- * 중간재 수입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2026년 1분기 현재 29.3%로 여전히 높은 가운데 자본재는 네덜란드, 베트남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62.4%, 66.7% 증가
- 1차상품 수입은 비(非)에너지 원자재 수입 확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중동 리스크에 따른 수입선 다변화로 미국산(産) 원유 수입이 증가하면서 대미국 수입이 큰 폭 증가(3월 +67.8%)
- * 원유 수입은 유가 상승으로 수입단가가 상승한 반면에, 호르무즈 해협 운송 차질 등으로 수입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금액은 감소세가 지속
- 원유 수입액 증감률(전년동월비, %): (1월) -12.8 → (2월) -11.1 → (3월) -5.3

<표 1-16> 가공 단계별 수입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비)

	2025			2026(1~4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총수입	6,319	0.0	100.0	2,315	12.3	100.0
1차 상품	1,84	-8.4	20.3	451	5.4	19.5
(원유)	753	-11.8	11.9	246	-4.3	10.6
중간재	3,236	0.7	51.2	1,200	13.5	51.8
자본재	930	8.4	14.7	362	20.9	15.6
소비재	837	2.4	13.3	291	8.7	12.6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26년 전망: 수출 30.3%, 수입 11.6%, 무역수지 2,190억 달러 전망

- 수출(통관 기준)은 AI 인프라 투자 급증에 따른 반도체 수요와 정보통신기기 등 ICT를 중심으로 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전체 30.3%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동 전쟁 여파와 미국의 신(新)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 부정적 우려 요인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경쟁과 반도체 공급 부족 등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이 전체 수출 확대 견인
 - 반면에 자동차·자동차부품은 미국의 관세 부과 및 가격경쟁, 일반기계는 중동 전쟁에 따른 수주 감소, 석유화학·제품은 수출제한·통제 등으로 가격 하락 및 물량 감소 예상

- 물량은 중동 전쟁의 종전·재건에 따른 글로벌 교역 정상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미 관세 영향 본격화와 중동 전쟁발 고유가·인플레·글로벌 수요 위축 등 수출 여건 악화로 감소 예상
- 이 밖에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요인이 상수화될 것이 보여 향후 전개 양상을 주시할 필요가 있고, 중동 전쟁의 종전 및 재건에 따른 건설·플랜트의 직접 수혜, 방산·조선·전력기기 등 안보·동맹 재편의 수혜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수입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및 수입단가 상승,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수입 차질과 수입 물량 감소세가 완화되고, 에너지 수입과 반도체 등 ICT 수출 호조에 기인한 중간재 수입을 중심으로 연간 11.6% 증가 예상
- 환율·유가 상승으로 수입 물가는 상승 압력을 받겠지만, 반도체 등 ICT 수출 업황 호조 세로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일정 부분 물량 요인에 기인한 수입 증가 예상
- 2026년 무역수지는 연간 2,1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흑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표 1-17> 수출입 전망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비)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통관 기준 수출	6,836 (8.1)	3,347 (0.0)	3,747 (7.4)	7,093 (3.8)	4,585 (37.0)	4,659 (24.3)	9,244 (30.3)
통관 기준 수입	6,318 (-1.7)	3,072 (-1.5)	3,246 (1.5)	6,319 (0.0)	3,481 (13.3)	3,573 (10.1)	7,054 (11.6)
무역수지	518	275	501	774	1,104	1,086	2,190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연구원.

주: 2026년 상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참고> 가공단계별 수출 구조 변화와 3대 소비재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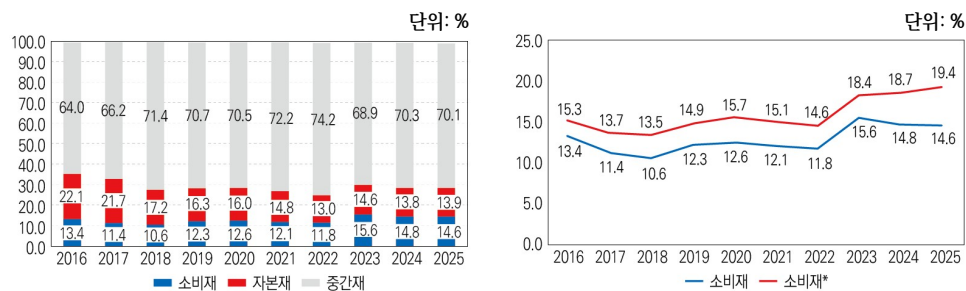
□ 분석 배경 및 목적

- 최근 한국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특정 품목·업종으로의 집중·편중이 심화하는 구조적 취약성 부각
- 이에,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K-소비재의 전략적 역할이 주목
 - 2016~2025년 가공단계별 수출 비중 추이와 주요 3대 소비재(농수산물·화장품·생활용품)의 성장 궤적을 분석하고, 소비재 수출 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 제시

□ 가공단계별 수출 비중 추이(2016~2025)

- 중간재 중심 구조 지속하에 자본재 비중 완만한 축소
 - 가공단계별 수출 구성을 보면, 최근 10년간 중간재 비중이 전체의 64~70%를 점유하는 압도적 중심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자본재와 소비재가 나머지를 이루는 형태
 - (중간재) 2016년 64.0% → 2025년 70.1%로 확대, 전체 수출의 최대 비중 차지
 - (자본재) 2016년 22.1% → 2025년 13.9%로 축소, 반도체 등 중간재 고도화에 따른 구조 전환 반영
 - (소비재) 2016년 13.4% → 2025년 14.6% 수준으로 완만한 증가세

<그림 1> 가공단계별 수출 비중 추이(2016~2025)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1차산업, 기타는 제외(좌). 2) 소비재*는 반도체 수출을 제외한 총수출 중 비중(우).

○ 소비재 비중의 점진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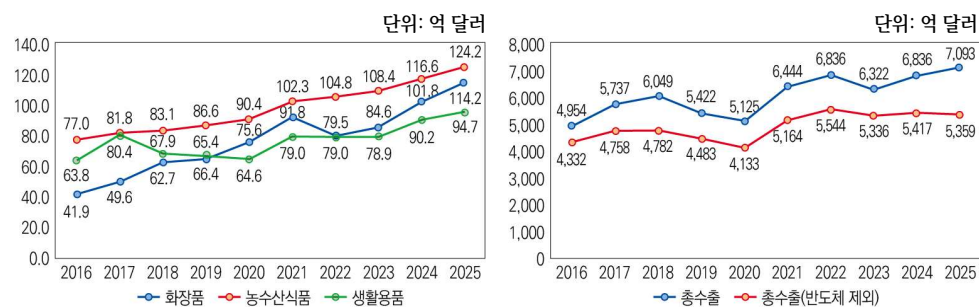
- 소비재 수출 비중은 2016~2025년 중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2022년 이후 가속화되는 모습
- 총수출 및 반도체 제외 총수출 중 소비재 비중은 최근 들어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소비재의 성장 여력이 존재함을 시사

□ 주요 3대 소비재 수출 동향

○ 3대 소비재¹⁾, 총수출 상회 성장 지속

- 농수산물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주요 3대 소비재 수출은 2016~2025년간 총수출 증가 추세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기록
- (화장품) 41.9억 달러(2016) → 114.2억 달러(2025), 2022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로 최근 2년 연속 100억 달러 돌파, 3대 소비재 중 최고 성장
- (농수산물식품) 77억 달러(2016) → 124.2억 달러(2025), 10년간 꾸준히 증가
- (생활용품) 63.8억 달러(2016) → 94.7억 달러(2025), 완만하지만 안정적 성장세 유지

<그림 2> 주요 3대 소비재 및 총수출 추이(2016~2025)



자료: 한국무역협회.

1) 3대 소비재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MTI 0, 화장품은 MTI 2273, 생활용품은 MTI 51(기타생활용품 MTI 52 제외) 기준이며, 패션의류(MTI441+5212+991), 섬유제품(MTI44) 등은 2026년 6월 1일자 MTI 코드 기준 개정이 예정(세부 품목 간 이동)되어 있고 규모 등을 고려해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 한편, 총수출 4,954억 달러(2016) → 7,093억 달러(2025)/총수출(반도체 제외) 4,332억 달러(2016) → 5,359억 달러(2025)로 반도체 기여가 상당 부분 차지

□ 화장품, 반도체에 버금가는 증가율로 수출 구조 다변화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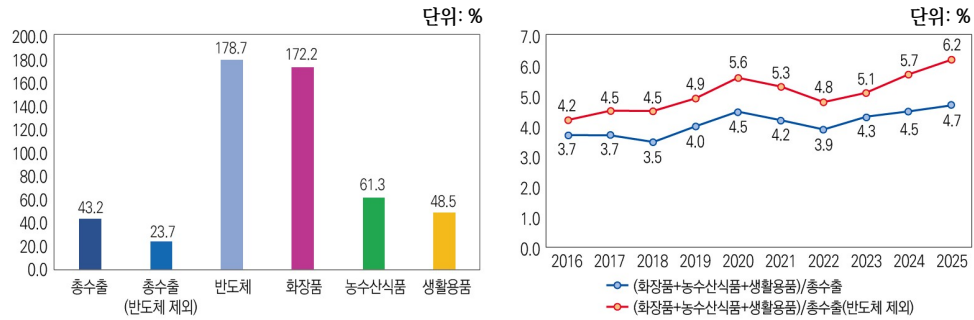
- 2016~2025년 품목별 수출 증가율을 보면, 반도체(178.7%)에 이어 화장품(172.2%)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
- 반도체와化粧품의 격차는 불과 6.5%포인트로 소비재 품목으로는 이례적인 성과
- 반도체를 제외한 총수출 증가율(23.7%)과 비교 시 化粧품은 7배 이상 상회하여, 비(非) 반도체 수출 구조 전환의 핵심 품목
- 농수산물(61.3%)과 생활용품(48.5%)도 총수출(43.2%)을 웃도는 증가율을 기록

<표 1> 2016~2025년 품목별 수출 증가율과 특징

품목	2016~2025 증감률(%)	특징
化粧품	172.2	K-뷰티 글로벌화, 아시아·북미 시장 확대 등
농수산물	61.3	한류 콘텐츠 연계 수요 증가, 간편식·HMR 성장 등
생활용품	48.5	친환경·프리미엄 제품 수출 확대
총수출	43.2	소비재 대비 증가 속도 열위

- 3대 소비재 합산 비중((化粧품+농수산물+생활용품)/총수출)은 2016년 3.7%에서 2025년 4.7%로 상승
- 반도체 제외 기준으로 산정하면 동 기간 4.2%에서 6.2%로 더욱 뚜렷하게 확대되며, 특히 2022년 이후 가파른 상승 흐름
- 이는 비반도체 수출 구조 내에서 K-소비재의 상대적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

<그림 3> 최근 10년간 주요 지표 수출증감률 및 주요 3대 소비재 비중 추이(2016~2025)



자료: 한국무역협회.

□ 시사점

○ 소비재 수출의 전략적 위상 강화

-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중간재 편중 심화 속에서 K-소비재는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
- 3대 소비재 모두 최근 10년간 총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류 콘텐츠·브랜드와의 시너지가 수출 성장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

○ 품목 다변화를 위한 정책과제

- 소비재 수출 집중 지원을 통한 반도체 의존도 완화 및 수출 구조 안정화 도모
- 농수산물, 화장품, 생활용품 등 3대 품목의 수출 인프라(인증, 물류, 마케팅) 강화
- 신흥시장(동남아·서남아, 중동, 중남미 등) 확대를 통한 지역 다변화와 병행 추진
- K-콘텐츠·한류와 연계한 소비재 브랜드 글로벌 전략 체계화

○ 모니터링 체계 점검 및 활용 강화

- 소비재 수출 비중이 지속 확대될 경우, 수출경기확산지수(선행 약 7.4개월)와 연동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실수출경기와의 괴리 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

이원복 부연구위원(wblee@kiet.re.kr)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1. 2026년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 (글로벌 수요 여건) AI 중심의 투자 확대와 신흥국 성장세가 일부 산업의 수요를 견인하겠으나, 미·이란 전쟁, 미국의 관세 강화, 고유가 및 글로벌 교역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전반적인 증가세는 제한될 전망
- 자동차산업은 인도·러시아 등 신흥국 중심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중국 시장 둔화와 관세 및 고유가 부담으로 글로벌 수요가 보합세를 보이며, 친환경차는 정책 지원 축소로 성장세가 제한
- 조선산업은 LNG운반선·유조선 중심의 양호한 발주 흐름과 친환경 선박 전환 수요가 지속되겠으나, 중동 사태와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IMO 환경규제 지연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
- 일반기계산업은 유럽·중국 제조업 회복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세 불확실성과 중동 수요 급감, 에너지·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글로벌 설비투자과 기계 수요가 전반적으로 둔화될 전망
- 철강산업은 신흥국 성장과 선진국 제조업 회복으로 수요는 완만히 개선되나, 중동 전쟁에 따른 물류비 상승과 중국 경기 둔화, 교역 위축으로 회복 속도는 제한될 전망
- 정유산업은 고유가와 경기 둔화 영향으로 글로벌 석유 수요가 감소 전환될 전망이며, 석유화학산업은 신흥국 중심의 완만한 수요 증가에도 중국의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부진, 보호무역 강화 등이 수요 회복을 제약

- 섬유산업은 세계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친환경 섬유와 탄소섬유·아라미드 등 고기능성 소재 수요는 확대될 전망
- 반도체산업은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힘입어 서버·HBM 중심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전망
- 정보통신기기산업은 AI 디바이스 확산과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로 성장세가 이어지나 전통 IT 기기 수요 둔화가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가전산업은 상반기 미국 소비 둔화와 관세 영향으로 부진하겠으나, 하반기에는 기저효과와 인도·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 중심의 수요 회복이 기대
- 디스플레이산업은 TV·모바일 수요는 정체되나 OLED 및 고부가 디스플레이 중심의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될 전망
- 이차전지산업은 전기차 및 ESS 수요 확대에 따라 중장기 성장세가 유지되나 지역별 수요 성장 속도는 차별화될 전망
- 바이오헬스산업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혁신 신약 및 CDMO 투자 확대에 힘입어 견조한 수요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표 2-1>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자동차	· 미-이란 전쟁 등 대외정세 불안정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
	· 고유가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 지속	☔
	· 주요국 적극 재정 정책	☀
조선	· 해운산업의 환경규제 대응, 미·중 규제에 따른 해운사 전략 변화	☔
	· 해운시황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해운사 발주 관망세	☔
	· 중국 조선사의 긴 납기와 한국 조선사의 선별 수주	☔
	· 천연가스 수출 프로젝트 확대	☀
	·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
일반기계	· 유럽 및 중국 제조업 경기 회복세	☀
	· 신흥국 중심 인프라 및 플랜트 투자 감소	☔
	·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통상 리스크 지속	☔
	·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글로벌 투자 위축	☔

(계속)

	주요 요인	영향 정도
철강	· 중동 전쟁에 따른 거시 지표 변동성 확대	☔
	· 인도 등 신흥국 고성장 및 선진권 경제의 수요 반등	☀
정유	·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지속, 경기 둔화, 에너지 절감 조치	☔
	· 중동 및 유럽의 석유제품 수요 감소	☔
	· 운송용 및 석유화학용 등 대부분의 석유제품 수요 위축	☔
석유화학	· 글로벌 경제성장률	☀
	· 보호무역주의 강화	☔
	· 중국발 수입 수요 증가율 둔화	☔☔
	· 에너지, 원료시장의 불확실성	☔
섬유	· 세계경제 전년 대비 낮은 성장세 지속	☀
	· 주요국의 금리 인하 기조 및 경기 부양 정책	☀
	· 미국발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 상존 및 세계 수요 위축	☔
	· 친환경 제품 수요 증가	☀
	· 산업용 섬유 수요 확대	☀
정보통신기기	·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및 대용량 기업용 SSD 수요 증가 지속	☀☀
	· AI PC 및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대중화	☀☀
	· 메모리 단가 상승으로 인한 세계 PC 및 스마트폰 수요 위축	☔
	· 미국 관세 정책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
가전	· 중동 전쟁 및 글로벌 경제성장률 둔화로 가전 소비심리 부진	☔
	· 미국 관세 영향 완화	-
	· 인도, 브라질, 동남아 등 신흥권 수요 증가	☀
반도체	· 빅테크 기업의 AI 관련 경쟁적 투자 지속	☀☀
	· 범용 메모리반도체 수요 기업의 적극적인 재고 확보 움직임	☀☀
디스플레이	· 아이폰 18 기본형 출시일(2026년 하반기 → 2027년 상반기) 변경	☔☔
	· D램 가격 급등에 따른 중국 스마트폰 제조원가 부담 가중 및 중저가 기기 출하 급감	☔
	· 애플 폴더블 출시(2026년 하반기)로 폴더블 수요 본격화	☀
	· 2026 FIFA 북미 월드컵(6~7월) 개최에 따른 대형 OLED TV 교체·신규 수요	☀
이차전지	· 미국 행정부의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폐지	☔
	· 유럽 주요국의 전기차 판매 증가에 따른 배터리 수요 확대	☀
	· 전력망 안정화,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ESS 수요 증가	☀
바이오헬스	· 특허만료와 정부 주도 약가 인하 정책으로 바이오시밀러·CDMO 수요 증가	☀☀
	·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저연령화 확대로 바이오헬스 기술 및 서비스 수요 급증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글로벌 공급 여건) AI 및 친환경 전환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편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갈등, 보호무역 강화, 중동 지정학 리스크 등으로 지역별 생산거점 다변화와 공급망 블록화가 가속화될 전망

- 자동차산업은 전동화·자율주행 투자 부담과 보호무역 강화로 중소 완성차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며 공급 확대보다 수익성 중심의 보수적 공급 전략이 확대되고, 중국업체들은 글로벌 시장 공략과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공급 영향력을 강화
- 조선산업은 미국·인도·베트남 등 신규 투자 확대 움직임에도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수주 잔량과 설비 확장을 기반으로 중국 중심의 공급 능력 확대가 지속될 전망
- 철강산업은 인도·동남아·중동 지역의 설비 증설 지속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EU는 보호무역 강화와 자국 생산 확대를 통해 수입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급구조가 재편
-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은 미-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에 따른 원유·나프타 공급 차질과 물류 불안으로 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중동 중심의 생산능력 증설이 지속되나 실제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될 전망
- 섬유산업은 미·중 갈등과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중국 의존도를 축소하고 동남아·중남미 중심의 공급망 다변화와 니어쇼어링이 확대되는 한편, 중국업체들의 제3시장 진출 확대로 글로벌 가격경쟁이 심화

<표 2-2>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공급구조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자동차	· 전동화 전환 및 자율주행 시스템 확대, 미국 고관세 정책 등에 따른 일부 중소 완성차업체의 공급능력 약화	☔
	· 미-이란 전쟁 및 보호무역정책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확대	☔
	· 중국 자동차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 심화	☀
조선	· 중국의 수주잔량 건조를 위한 공급 능력 확대	☀
	· 한-미, 미-일, 한-인도, 한-베트남, 한-필리핀, 한-페루 등 국가 간 조선산업 협력 확대	☀

(계속)

	주요 요인	영향 정도
철강	· 신흥국 중심의 설비 증설에 따른 과잉공급 압력	☀
	· 보호무역에 따른 수입대체	☀
정유	·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 불확실성	☔
	· 원유 가격 변동성 확대(재고평가 손실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	☔
	· 아시아·중동 주요 정유사들의 보수적 정제설비 운영	☔
	· 정제마진 호조	☀
석유화학	· 생산시설 신증설	☀
	· 주요 석유화학제품 스프레드	☔
	· 생산시설 가동률	☔☔
	· 중동지역 지정학적 변동성(나프타 수급 안정성, 공급정책 등)	☔
섬유	· 중국 의존도 축소	☀
	·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생산 거점 다변화	☔
	· 미국의 수입 섬유 및 의류 가격 상승, 대체 시장 가격 상승	☔
	· 중국의 EU, 동남아 등 시장 수출 확대에 경쟁 격화	☔
	· K-패션 공급망 영향력 강화	☀
정보통신기기	· 세계적인 AI·데이터센터 저장장치 수요 급증과 기업용 SSD 공급 부족	☀☀
	· HDD 공급 제약과 SDD가 공급 대체	☀☀
	· 하반기 애플의 AI 스마트폰 및 폴더블폰 신규 출시 전망	-
	· 글로벌 기업의 스마트폰·PC 생산지 다변화(중국 → 베트남, 인도 비중 확대)	-
	· 미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및 이란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
가전	· 제품 지능화 및 효율화 수요 증가에 따른 생활가전·조명기기 단가 상승	☀
	· LED TV, QLED TV 등 영상음향기기 시장에서 중국과 가격경쟁 심화	☔
	· 미국 관세, 물류비 상승, 반도체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제품가격에 반영	☀
반도체	· 개인 소비용 제품 공급에서 고부가 기업용 제품 중심 공급으로 전환	☀☀
	· 중국 반도체 기업의 생산 기술 향상	☀☀
디스플레이	· 한국, 중국의 IT용 OLED 8.6세대 하반기 양산	☀☀
	· 대만의 5세대 이하 구형 LCD 팹 처분	☔
이차전지	· 북미 지역의 한국 배터리 기업의 생산능력 확대	☀
	· 유럽, 중국 등 북미 외 지역의 중국 배터리 기업의 생산능력 증가	☔
바이오헬스	· 자국 내 첨단바이오 제조 역량 확보를 위한 공급망 재편 가속화	☔
	· 글로벌 CDMO 규모의 경쟁 심화	☔

주: (전년 대비) 단가 변화, ☔☔ 큰 폭 하락, ☔ 다소 하락, ☀ 다소 상승, ☀☀ 큰 폭 상승.

- 반도체산업은 AI 중심 수요 대응을 위해 HBM·서버용 메모리 생산이 확대되면서 범용 메모리 공급이 축소되는 구조적 공급 불균형이 지속될 전망
 - 정보통신기기산업은 스마트폰·PC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베트남·인도 등으로 다변화되며 아세안 중심 공급 비중이 확대될 전망
 - 가전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미국 관세 대응 차원에서 인도·브라질·멕시코 등 해외 생산 확대와 현지화 전략이 강화되며, 수익성이 낮은 생산거점의 구조조정 및 외주화도 확대될 전망
 - 디스플레이산업은 LCD 부문에서 중국 중심 공급 집중이 심화되는 반면, 한국은 OLED 중심의 고부가가치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형 OLED 시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이차전지산업은 북미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생산 비중 확대가 지속되는 반면,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생산능력 확대와 LFP 중심 경쟁력 강화로 중국 주도의 공급구조가 심화될 전망
 - 바이오헬스산업은 미국·EU 중심의 공급망 안보 강화와 리쇼어링·우방국 중심 공급망 구축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도 자국 중심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규제 통제를 강화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
- (제품단가 변화)중동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물류비 상승과 AI·고부가제품 중심의 수요 확대 영향으로 전반적인 상승 압력이 우세하겠으나,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경쟁 심화가 일부 산업의 가격 인상 폭을 제한할 전망
- 자동차산업은 물류비·원자재 조달비 상승과 내연기관차 판매 축소에 따른 수익성 확보 전략으로 차량 가격 상승 요인이 확대되겠으나, 중국발 저가 공세와 전기차 가격 경쟁 심화가 가격 인상을 제한
 - 조선산업은 중동 사태에 따른 운송 차질과 원자재·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높은 신조선가가 유지될 전망이며, 충분한 수주잔량으로 선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

- 철강산업은 상반기 에너지·운송비 및 원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글로벌 수요 회복 제한과 공급 정상화로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
- 정유산업은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강세 및 중동 리스크에 따른 공급 불안정으로 석유제품 수출단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상승 압력이 지속될 전망
- 석유화학산업은 원유·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과 에너지·물류비 상승으로 제품단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나, 중국발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로 가격 전가력은 제한될 전망
- 섬유산업은 유가 급등에 따른 화섬 원료 및 운송비 상승으로 제품단가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중국의 저가 공세 지속으로 범용제품의 수익성 악화가 심화될 전망
- 반도체산업은 AI 서버용 HBM·DDR5·eSSD 수요 급증과 범용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메모리 중심 단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 정보통신기기산업은 기업용 SSD 부족과 스마트폰·PC의 AI·프리미엄화로 SSD 및 완제품 단가 상승이 지속될 전망
- 가전산업은 AI·친환경·고효율 중심의 프리미엄 제품 확대와 반도체·물류비 상승 영향으로 생활가전 단가는 상승하겠으나, 영상음향기기는 글로벌 경쟁 심화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
- 디스플레이산업은 LCD 공급과잉과 대형 OLED 원가 절감으로 전반적 단가 하락 압력이 존재하나, 폴더블 OLED 등 고부가 제품 확대가 중소형 OLED 가격 하락을 일부 상쇄할 전망
- 이차전지산업은 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 가격 상승과 ESS·전기차 수요 회복으로 제품 단가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겠으나, 중국산 저가 LFP 배터리 확대가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
- 바이오헬스산업은 중동 불안에 따른 물류비와 콜드체인 운송비 상승으로 제품단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겠으나, 미국 의약품 관세 적용 범위에 따라 품목별 영향은 차별화될 전망

<표 2-3>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자동차	· 미-이란 전쟁에 따른 보험료, 부품 조달 비용 상승	☀
	· 수익성 개선을 위한 SUV, 고급 브랜드 등 수익성 높은 차량에 마케팅 활동 강화	☀
	· 전기차 판매 확산을 위한 보급형 전기차 출시	☔
	· 중국업체의 가격경쟁 우위를 활용한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 및 경쟁업체 대응 방안	☔
조선	· 하반기 세계 선박 발주량 감소 가능성에 따른 조선사 간 경쟁 심화	☔
	· 주요 기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원가 상승	☀
	· 중국 조선사의 장남기, 한국 조선사의 선별 수주	☀
일반기계	· 유럽 및 중국 제조업 경기 회복세	☀
	· 신흥국 중심 인프라 및 플랜트 투자 감소	☔
	·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통상 리스크 지속	☔
	·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글로벌 투자 위축	☔
철강	· 에너지, 물류비 상승 등 비용 상승과 수입규제 효과	☀☀
	· 제한적 실수요 회복	☔
정유	· 국제유가 상승	☀☀
	·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 속에 글로벌 정제마진 상승	☀
	· 주요 아시아 국가의 정제설비 가동률 감축에 따른 감산	☀
	· 걸프 지역의 제품 수출 감소	-
석유화학	·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	☀
	· 주요 제품 스프레드	☔
	· 원료수급 안정성	☀
섬유	· 원자재 가격 급등(유가, 화학섬유 원료, 염료 등)	☀☀
	· 물류 및 에너지 비용 상승	☀
	· 중국발 초저가 시장 확대 및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 인하 압력	☔
	· 고기능성 고부가 제품 수요 확대에 의한 단가 상승	☀☀
정보통신기기	· SSD 고사양화 및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	☀☀
	· 수요 대비 부족한 SSD 공급 물량	☀☀
	· 스마트폰 및 PC 제품 고급화(AI 내재화, 폴더블폰 등)	☀
	· 중국과의 경쟁 심화 및 단가 인하 압력	☔

(계속)

	주요 요인	영향 정도
가전	· 제품 지능화 및 효율화 수요 증가에 따른 생활가전·조명기기 단가 상승	☀
	· LED TV, QLED TV 등 영상음향기기 시장에서 중국과 가격경쟁 심화	☔
	· 미국 관세, 물류비 상승, 반도체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제품가격에 반영	☀
반도체	· HBM 등 고부가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	☀☀
	· 범용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	☀☀
디스플레이	· 중국의 LCD 공급 과잉 지속	☔
	· D램 가격 급등에 따른 간접 효과	☔
	· 대형 OLED 고정비 감소 및 대규모 수요	☔
	· 폴더블 OLED 출하	☀☀
이차전지	· 리튬, 니켈 등 배터리 핵심광물 가격 상승세	☀
	· 미국 ESS 시장 확대, 유럽 EV 판매량 증가 등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수요 증가	☀
	· 중국산 저가 LFP 배터리 점유율 확대	☔
바이오헬스	· 중동 전쟁 여파로 물류비 상승	☔
	· 미국 의약품 관세 적용 대상 제외	☀

주: (전년 대비) 단가 변화. ☔☔ 큰 폭 하락, ☔ 다소 하락, ☀ 다소 상승, ☀☀ 큰 폭 상승.

(1) 하반기 주요 이슈

- (중동 전쟁 영향) 2026년 하반기 중동 지역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원자재·에너지 가격 변동성, 물류 차질, 공급망 불안 등이 국내 주요 산업의 비용 부담과 수익성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자동차산업)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유가 영향으로 자동차 수요 감소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플라스틱·화학소재 조달비 및 물류비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가격 전가가 어려워 수익성 악화 우려가 확대
- (조선산업)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높은 운임과 LNG·유조선 수익성 개선으로 발주 여력 확대가 기대되나, 해운 시황 변동성과 카타르 LNG 사업 차질 등 불확실성도 상존
- (일반기계산업) 원유·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해상운임 급등, 선박 부족 심화로 생산원가 및 물류비 부담이 확대되며 글로벌 수출 여건이 악화될 전망

- (철강산업) 중동과의 교역 비중이 크지 않아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에너지·원자재·물류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가 존재하며, 이란 철강 생산 차질로 중국·동남아향 반제품 공급이 감소할 경우 국내 철강업계에는 일부 기회요인으로 작용 가능
- (정유산업) 미-이란 전쟁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 차질로 글로벌 정제마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원유 공급 불확실성 및 가격 변동성 확대에 의한 재고평가 손실 우려로 국내 정제설비 가동은 보수적으로 운영될 전망
- (석유화학산업) 호르무즈해협 리스크에 따른 나프타 조달 불안과 원료비 상승으로 NCC 가동을 유지와 원료 확보 부담이 확대되며, 생산 및 수출 물량 감소 가능성이 증가
- (섬유산업) 화섬 원료가격과 물류비 급등으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납기 차질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동향 직물 수출 감소 등 수출 위축 영향이 본격화될 전망
- (정보통신기기산업) 대중동 교역 비중이 낮아 직접적인 수출·생산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전쟁 장기화 시 물류비·부품소재 원가 상승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중소 협력업체의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
- (반도체산업) 중동 지역 공급망 의존도가 낮고 AI 중심의 글로벌 빅테크 투자 지속으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전동 IT제품 수요 둔화 가능성은 존재
- (가전산업) UAE·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중동시장 수출 감소와 물류 재이전 비용 증가 영향이 예상되며, 석유화학 원료 공급 차질 시 플라스틱 부품 수급 불안 가능성도 존재
- (디스플레이산업) 카타르산 헬륨 공급 차질에 따른 수입선 전환과 물류비 상승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전망
- (이차전지산업) 고유가 지속 시 전기차 및 ESS 수요 확대가 기대되나, 나프타 공급망 불안에 따른 분리막용 폴리에틸렌 수급 리스크가 공급망 부담 요인으로 작용
- (바이오헬스산업) 원부자재·의료용품 가격 상승과 운송 차질 우려가 존재하나, 공급망 다변화와 소재·부품 내재화 노력으로 산업 전반의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표 2-4> 2026년 중동 전쟁 및 수출 영향

	영향 정도		내용
자동차	수출	X	· 고유가 및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수출 감소 및 공급망 불안정 우려와 조달 비용 증가 예상
	생산	X	
조선	수출	□	· 카타르 LNG 프로젝트 추진 차질에 따른 LNG운반선 인도 연기 가능성이 있으나, 수주산업의 특성과 대체 LNG 수요 확대·톤마일 증가 등으로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
	생산	□	
일반기계	수출	X	· (전체 수출)글로벌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심리 위축 및 중동 인프라플랜트 수주 감소로 인한 일반기계 전체 세계 수요 둔화
	생산	X	
철강	수출	□	· 중동과의 낮은 교역비중으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하반기까지 중동 영향 지속 시 비용 상승에 따른 수출 및 생산 부담 확대
	생산	□	
정유	수출	XX	· 원유 공급 불확실성 및 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른 제고평가 손실 우려로 국내 정제설비 가동은 보수적으로 운영
	생산	XX	
석유화학	수출	X	· 원료비 상승과 생산시설 가동을 하향 압박으로 수출, 생산 모두 부정적
	생산	XX	
섬유	수출	X	· 원료가격 급등 및 제품가격 상승 · 채산성 악화 · 해상 운임 폭등 및 물류차질에 따른 수출량 감소 ·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중동 정통 의상용 폴리에스터 우븐 직물 생산 및 수출 감소 · 원사값 상승으로 인한 국산 중간재 가격 경쟁력 하락
	생산	X	
정보통신기기	수출	□	· 수출과 생산에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 다만 물류비 상승, 중동 수요 둔화 등 간접적 영향이 우려되나 중동지역은 주력 수출시장이 아님.
	생산	□	
가전	수출	X	· 전체 비중은 낮으나 대중동 수출 급감으로 부정적 영향 · 국내 석유화학제품 공급 차질 시, 생산 차질 우려 존재
	생산	□	
반도체	수출	□	· 최근 반도체산업 투자는 개인보다는 기업의 비중이 높으며, AI 투자는 중동 전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 · 반도체산업은 중동지역 공급망 의존도가 낮아 영향이 제한적
	생산	□	
이차전지	수출	□	· 중동시장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4.3%에 불과 · 다만, 고유가 지속 시 배터리 수요 확대에 수출·생산에 일부 긍정 효과 예상 · 나프타 공급망 충격이 확대될 경우, 분리막 수급에 악영향, 배터리 생산 차질 가능성
	생산	□	
바이오헬스	수출	X	· 수입에 의존하는 중간재 비용과 물류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생산	X	

주: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중립 □, 부정적 X, 매우 부정적 XX.

- (주요 이슈: 산업별) 중국과의 전기차·반도체 경쟁 심화와 미국 관세·EU 규제 강화, 중동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전 산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AI·친환경 수요 산업은 성장세를 유지하나 범용 제조업은 수출 경쟁과 수익성 압박이 심화될 전망
- (자동차산업) 중국 전기차 기업의 유럽·동남아·중동 시장 확대 및 국내 시장 진입 강화로 글로벌 경쟁 심화와 수출·내수 가격 압력 확대
 - (조선산업) 한·미·인도 협력 확대 및 동남아 생산기지 증설이 진행되나 단기 성과는 제한적이며 중장기 수출 기반 확충 요인으로 작용
 - (일반기계산업) 미국 301조 조사 및 보호무역 강화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글로벌 설비투자 및 기계 수요 위축 요인으로 작용
 - (철강산업) EU 철강 TRQ 강화로 대EU 수출 감소 및 무역장벽이 확대되며 수출 구조 재편과 일부 품목의 내수 전환 압력 발생
 - (석유화학산업) 미국 관세 및 중국 자급률 상승으로 대외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범용제품 중심으로 가격 경쟁 및 수익성 압박 심화
 - (섬유산업) 원료비 및 운송비 상승과 중국 저가 공세 지속으로 채산성 악화가 심화되며 범용제품 중심 수출 경쟁력 약화
 - (정보통신기기산업) 미국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AI 서버·SSD 수요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유지로 영향은 제한적이나 가격 변동성 확대
 - (반도체산업) AI 투자 확대와 HBM·DDR5 수요 증가로 공급 부족이 지속되며 중국 기업의 추격과 경쟁 심화가 병존
 - (디스플레이산업) EU 규제 대응 부담과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고부가 OLED 확대와 LCD 공급과잉이 혼재하며 구조적 변동성 확대
 - (이차전지산업) EU 산업정책과 중국 저가공세 속에서도 전기차·ESS 수요 증가로 성장세는 유지되나 해외 생산 의존도 확대
 - (바이오헬스산업)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글로벌 규제·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령화 기반 수요로 안정적 성장세 지속

<표 2-5> 2026년 산업별 기타 주요 이슈 및 수출 영향

	주요 이슈	영향 정도		내용
자동차	중국 경쟁력 강화	수출	X	· 중국 자동차업체의 유럽 및 국내 시장 진출로 우리 업체 시장점유율 잠식 우려
		생산	X	
	해외 생산	수출	X	· 보호무역 강화 및 현지 수요 대응을 위해 BEV, HEV 등 생산모델 변경
		생산	□	
조선	해외 조선산업 협력	수출	○	· 한-미, 한-인도-조선협력 및 베트남, 필리핀 등 조선산업 협력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조선 기자재 및 기술 수출이 기대 · 다만, 베트남이나 필리핀과 같이 국내 대기업이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지역은 단기적으로, 미국이나 인도와 같이 신규 협력 투자가 진행되는 곳은 장기적으로 확대될 전망
		생산	○	
철강	EU 보호무역 강화	수출	X	· 쿼터 축소에 따른 EU향 수출 물량 감소가 예상되나, 대체수출 등으로 대응함에 따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생산	□	
석유화학	중국 자급률 상승	수출	XX	· 중국시장 내 한국산 수입 수요 감소 · 중국산 범용제품의 한국향 유입으로 생산 감소
		생산	X	
	사힌 프로젝트 상업가동	수출	○	· 생산능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 수출량 증가 영향에는 제한적
		생산	◎	
정보통신기기	애플 폴더블폰 신규 출시	수출	□	· 하반기 애플의 iOS스마트폰 및 폴더블폰 출시에 따라 세계 시장경쟁이 확대 · 반면, 국내 폴더블폰 관련 핵심부품의 수출·생산에는 긍정적 영향 예상
		생산	□	
가전	해외 생산	수출	X	· 글로벌 경쟁 및 수요에 대응한 해외 생산 확대로 국내 생산·수출 위축 · 주요 기업의 설비투자 대부분이 해외에 집중
		생산	X	
반도체	메모리반도체 수급 불안	수출	○	· 범용 메모리반도체뿐만 아니라 HBM 수급도 원활하지 않아 메모리반도체 단가는 계속 상승하여 개인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 ·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생산과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
		생산	○	
	중국 기업 추격 심화	수출	□	· 중국 기업의 생산 제품이나 기술력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 예정
		생산	□	
이차전지	EU 산업가속화법(IAA) 제정	수출	X	· EU의 산업가속화법(IAA) 제정으로 향후 EU시장 진출시 유럽 현지 생산의 중요성 증대 → 현지 생산 강화로 수출에는 일부 악영향 가능성 · 한국배터리 기업은 유럽 현지 생산거점을 이미 확보한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수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생산	○	
바이오헬스	해외 생산	수출	○	· 리스크 관리 역량은 개선, 단기 수출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생산	○	

주: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중립 □, 부정적 X, 매우 부정적 XX.

2.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부문별 전망

□ 수출: 반도체·정보통신기기 중심의 AI 특수와 고부가 IT 수요 확대에 힘입어 큰 폭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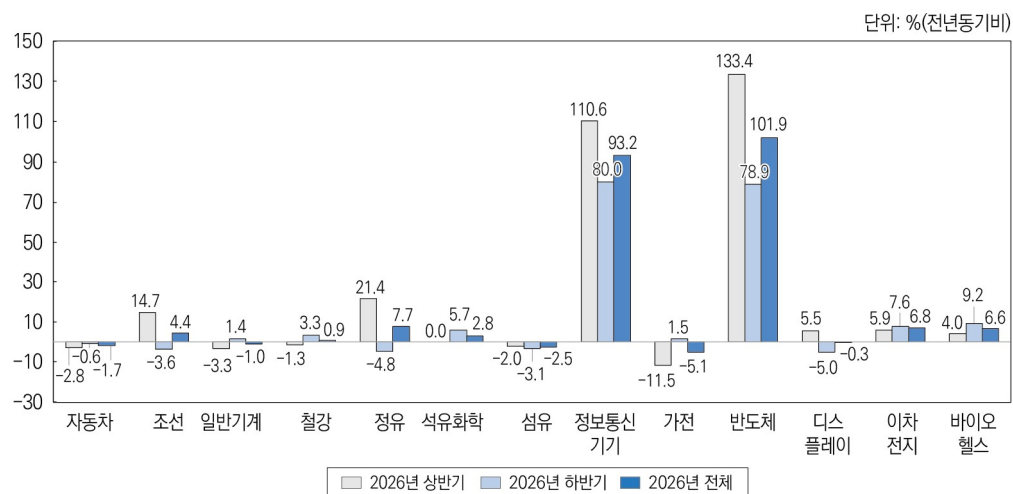
○ 2026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고성능 메모리·SSD 수요 급증 영향으로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중심의 IT산업군이 수출 증가를 주도하며 전년 대비 31.9% 증가할 전망

- 2026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약 45.7%의 비중을 차지한 반도체산업이 101.9%나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

- 정보통신기기도 기업용 SSD 및 프리미엄 IT기기 수요 확대에 힘입어 93.2%나 증가하며 13대 주력산업 전체 수출 중 8.1% 비중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부상

- 반면 자동차·일반기계·섬유·가전·디스플레이 등은 미국 관세정책, 중동 리스크, 중국 경쟁 심화 및 글로벌 수요 둔화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

<그림 2-1>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전망



주: 1) 달러화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 (기계산업군) 하반기 수출은 일반기계가 1.4%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와 조선이 각각 0.6% 및 3.6% 감소하며 전년동기 대비 0.7%, 연간으로는 0.4% 감소
 - (자동차) 하반기 글로벌 수요 부진과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0.6% 감소하면서 2026년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1.7% 감소한 915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26.상) 미-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지역 수출 부진과 국내 완성차업체의 현지 생산 감소로 인한 부품 수출 감소, 수출단가 하락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8% 감소한 458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를 기록할 전망
 - (조선) 하반기 고가의 해양플랜트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비 소폭 감소하지만,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332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2026.상) 고가의 LNG운반선을 비롯한 수출선 물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14.7% 증가한 160억 달러 추정
 - (일반기계) 하반기 중동 전쟁 긴장 완화 및 중국·EU 제조업 회복에 따른 기계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국인 미국 수출 부진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6.상) EU 및 중국 시장의 회복세와 인도 등 일부 신흥시장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국인 미국 및 중동시장 부진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 추정
- (소재산업군) 정유, 철강 및 석유화학의 하반기 수출은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증가 전환으로 전년동기 대비 0.6%, 연간으로는 3.7% 증가 전망
 - (철강) 2026년 철강 수출은 주요국의 무역보호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의 회복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지면서, 전년 대비 0.4% 증가한 2,840만 톤 규모를 기록할 전망
 - (2026.상) 2026년 상반기 철강 수출은 비용 상승에 따른 글로벌 철강가격 인상과 봉형 강류 수출 급증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의 수출 급감세가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
 - (정유) 2026년 석유제품 수출은 원유 수급 불안과 재고평가 손실 우려로 인한 가동률 하향 조정 및 보수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및 정제마진 호조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

- (2026.상) 석유제품 수출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내 석유제품 생산 축소 영향으로 수출 물량이 감소하겠지만 국제 유가 급등 및 정제마진 호조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전년동기 대비 21.4% 증가

- (석유화학) 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과 수출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급률 상승, 미국 관세·비관세 장벽, 세계 교역 둔화,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물량 기준 감소압력이 지속되며 전년비 물량기준 1.3% 감소, 금액기준 2.8% 증가

- (2026.상) 수요 회복에 따른 물량 증가라기보다는 유가·나프타 가격 상승이 제품단가에 반영되며 금액기준으로 소폭 증가

- (섬유) 하반기 섬유 수출은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원료가 상승) 및 물류비 급등, 미국발 보편 관세 불확실성, 중국산 저가 물량의 제3국 밀어내기 공세가 겹치며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 연간으로는 2.5% 감소

- (2026.상) 중동사태 발발,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대미 및 대세계 수출 둔화, 생산기지향 사·직물 수출 위축 등으로 2.0% 감소

○ (IT산업업군)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기의 호조가 지속되며 하반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65.7%, 연간 81.9% 증가 전망

- (정보통신기기) 하반기에도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기업용 SSD 수요와 단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약 93.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6.상) 이란 전쟁 등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AI 도입·활용 확산에 따른 SSD 수요 증가 및 단가 상승과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 호조에 따른 통신기기 수출 확대로 전년동기비 약 110.6% 큰 폭 증가 추정

- (가전) 전년도 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인도, 중남미 등 신흥국의 생활가전 수요 여건 개선으로 하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1.5% 증가하겠지만 연간으로는 5.1% 감소

- (2026.상) 중동 전쟁, 선진권 소비심리 부진, 미국 관세 지속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부진과 해외 생산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11.5% 감소

<표 2-6>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 일부 경쟁업체 경쟁력 약화 · HEV 경쟁 우위 지속	·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 미-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및 불확실성 증대 · 중국업체 글로벌 판매 전략 강화	· 국제정세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HEV 등 친환경차 경쟁우위 확보로 수출 물량은 증가하나 가격경쟁 격화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금액은 감소
조선	· 선가 급등기 수주 선박 건조 및 고가의 LNG 운반선 인도 지속 · 수출선 물량 증가 · 선박용 엔진을 비롯한 조선기자재 수출 증가	· 2025년 고가의 해양플랜트 수출이 많았던 기저효과 · 컨테이너선 인도 감소	· 해양플랜트 감소에도 선가 급등기 수주 선박 건조 및 고가의 LNG운반선 인도로 소폭 증가
일반 기계	· 중국 및 EU제조업 경기 개선 및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을 위한 투자 증가에 따라 일반 기계 수요 증가 예상	· 미-이란 전쟁 영향으로 해외 플랜트 및 EPC(설계·조달·시공) 부문 수주 감소 · 이에 따라 관련 기계 기자재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관세조치 이후 글로벌 제조업 설비투자 수요 감소 지속	· 주요 수출국인 대미국 수출 감소 지속 및 미-이란 전쟁에 따른 해외 플랜트 수주의 급격한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 및 EU지역 제조업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감소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
철강	· 세계 수요 소폭(0.3%) 회복 · 수출단가 인상 · 환율효과	· EU 셰이프가드 쿼터 강화 · 일본, 아세안 등에서의 무역구제 확대	· 수출다변화, 수출단가 인상 및 전년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 예상
정유	· 국제 원유가격 상승 및 정제마진 호조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 국내 정유사의 정제설비 가동률 하향 조정 및 보수적 운영 · 원유 수급 불안 및 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평가 손실 우려	· 수출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및 정제마진 호조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전체 수출액은 증가
석유 화학	· 수출단가 상승 · 인도·아세안 대체시장 성장 · 환율 효과	· 중국 (범용제품 중심) 자급률 상승 · 미국 관세 인상 · 나프타 원가 상승 · 국내 생산시설 가동 차질	· 물량 감소압력 확대 · 단가 인상 효과로 수출액 감소폭 제한적
섬유	· 전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 미국 내 대중국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 글로벌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소비 증대 · 한류 확산에 따른 K-패션 수요 확대 · 첨단소재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수출 확대 · 원료가 상승에 따른 제품단가 인상 효과	· 중동 사태로 인한 원료가 및 물류비 폭등 · 미국발 보편 관세 및 통상 불확실성 지속 · 중국산 저가 제품의 제3시장 덤핑 및 시장 잠식 · 고유가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글로벌 소비 위축	· 2026년 하반기 수출은 첨단소재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동발 공급망 충격(원가/물류비)과 미국발 통상 규제, 중국의 저가 공세 등 강력한 하방 리스크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하며 연간 기준으로 역성장(-2.5%)이 불가피
정보 통신 기기	· 데이터센터·서버 투자 확대 · AI PC 교체수요로 인한 SSD 수요 증가 · SSD 수요 증가와 단가 상승 · 신규 스마트폰 출시 및 부품 수요 확대	· 해외 생산 확대 · 시장경쟁(폴더블폰 등) 심화 · 지정학 및 공급망 불확실성 ·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구매 소비심리 저하	· 하반기에도 글로벌 IT 투자 확대에 따른 SSD수요 증가 및 단가상승이 수출 증가를 이끌 전망

(계속)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가전	· 미국 관세 부담 완화 · AI 가전 등 고부가 제품 수요 증가 · 원재료비, 물류비, 관세 부담 등 비용의 제품가격 반영에 따른 제품단가 인상	· 최대수출국인 미국 수요 부진 · 유럽, 일본 등 주요 수출국 경제성장 둔화 · 인도, 미국, 멕시코 등 해외 생산 증가 · 주요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 심화	· 최대 수출국인 미국 수요의 부진과 해외 생산 증가가 부정적 요인이거나, 기저효과 영향으로 하반기 수출은 소폭 증가
반도체	·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관련 경쟁적 투자 지속 · 범용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단가 상승	· 메모리반도체 단가 급등으로 인한 IT 제품 수요 감소	· 빅테크 기업의 AI 관련 투자가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며 국내 반도체 수출 호조세 지속
디스플레이	· 애플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와 관련한 초도 물량 수출 예정 · 3분기 애플 맥북 프로형 공급 예정	· 글로벌 OLED 소형 시장 축소(Omdia 2026년 377억 달러, -11% YoY)로 전반적 수요 기반 약화 · 아이폰 18 기본형 출시 지연(2027년 초로 이연)	· 애플향 IT OLED-폴더블 신규 고단가 물량공급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OLED 소형 시장 축소 및 아이폰 18의 출시 지연의 영향으로 2025년 대비 소폭 감소 전망
이차전지	· 미국 내 전력망·데이터센터용 ESS 수요 증가 · 유럽 전기차 시장 수요 확대 · 리튬·코발트 등 광물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	·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따른 전기차 수요 감소 · 미국, EU 등 주요 수출시장의 현지 생산 물량 증가에 따른 수출 대체 현상 가속화	· 해외시장에서의 ESS 수요 확대, 수출단가 상승 등 영향으로 하반기 수출 증가 전망
바이오헬스	· 국내 신약의 수출시장 다변화 · 진단·영상·미용 의료기기 수요 확대 · 해외 바이오시밀러 우호 정책 확대 · 다국적 제약사의 CDMO 수요 증가	· 해외 생산기지 이전 ·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 국내 일부 공정·제품 생산 지연	· 해외 수주 증가 및 국산 의약품의 료기기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8%대 성장

- (반도체) 하반기에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공격적이며 경쟁적인 AI 서버 등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추세가 지속되며 연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0% 이상의 역대 최고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2026.상) 2025년 4분기부터 AI 서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AI 가속기에 채용되는 HBM 수출 증가와 범용 메모리반도체 단가 상승으로 전년동기 대비 133%라는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

- (디스플레이) 하반기 애플의 폴더블 출시 및 맥북 프로 등의 수요가 신규로 발생하나, 애플 아이폰 18 기본형 출시 지연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연간기준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169억 3,300만 달러로 보합

· (2026.상) LG디스플레이의 애플 공급 확대와 FIFA 월드컵(6~7월) 수요로 전년동기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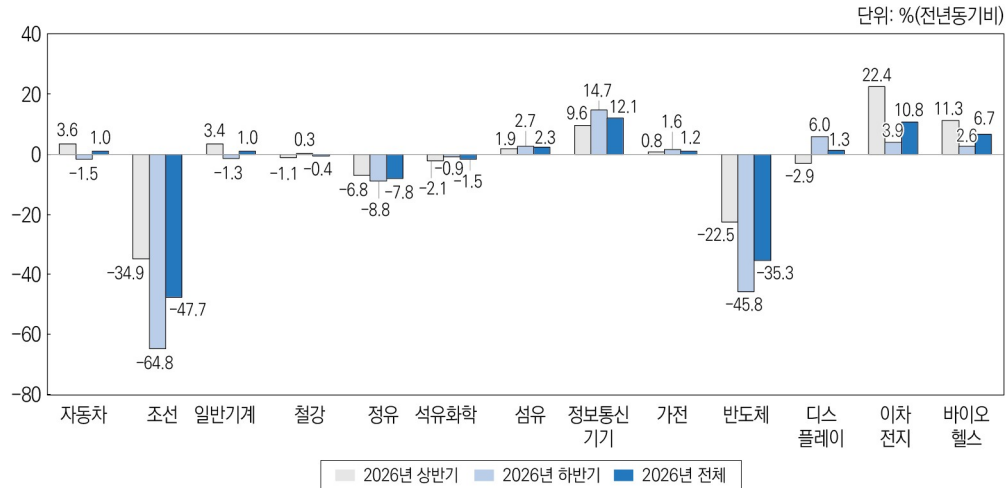
비 5.5% 증가한 80억 2,6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이차전지) 미국 ESS 수요 확대, 유럽 전기차 판매 증가 등 해외 배터리 수요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기저효과 영향 등에 힘입어 2026년 수출은 전년 대비 6.8% 증가 전망
- (2026.상) 수출단가 상승 및 미국·유럽 시장의 배터리 수요 증가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5.9% 증가한 38억 1,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023년 상반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
- (바이오헬스) 해외 바이오시밀러 우호 정책 확대와 미국 관세 불확실성의 단기 완화, 진단·영상용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K-피부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로 의약품부터 의료기기까지 주력 품목의 수출 확대가 지속되며 전년 대비 8.1% 증가 전망
- (2026.상) 미국 관세 위협으로 인한 2025년 선제적 수출 급증의 기저효과로, 2026년 상반기 수출 증가세는 당초 예상보다 둔화되며 전년동기비 5.5% 성장을 기록

□ 내수: 하반기 내수는 소비심리 회복과 AI·전기차 중심 수요 확대 영향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나, 고유가와 대외 불확실성, 건설경기 부진 등이 회복세를 제약할 전망

- (기계산업군) 하반기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에 그치겠지만, 조선은 64.8%나 감소
- (자동차) 볼륨차종 모델 노후화와 고유가 및 물가상승 등 경기 부진 속에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폐지로 하반기 내수는 전년동기 대비 1.5% 감소하지만 2026년 내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171만 대를 기록할 전망
- (2026.상)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집행과 고유가에 따른 전기차 수요 확대 등의 요인으로 전년동기 대비 3.6% 증가한 86만 6,000대를 기록할 전망
- (조선) 내수를 유지했던 LNG운반선과 컨테이너선 인수가 크게 감소하여 벌크선과 유조선의 인수 증가에도 전년 대비 47.7% 감소 전망
- (2026.상) 2025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해운사는 LNG운반선을 16척 인수한 반면, 2026년 상반기에는 5척으로 크게 축소

<그림 2-2>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률 전망



주: 1)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2) 조선산업의 내수는 국적 선사가 국내 또는 해외 조선사에 발주하여 인수받는 물량(OGT)으로 국내 해운사의 선박 발주량이 많지 않고 일정하지 않으므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

- (일반기계) 설비투자의 완전한 회복과 건설투자 증가세 전환 등 주요 수요 부문의 개선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할 전망

· (2026.상) 국내 건설경기의 지속적 약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방위산업 등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며 전년동기비 3.4%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소재산업군) 하반기 철강 수요는 전년동기 대비 0.3%, 섬유는 2.7% 증가하는 반면, 석유화학은 0.9%, 정유는 8.8% 감소할 전망

- (철강) 2026년 철강 수요는 수요산업의 소폭 회복에 힘입어 실수요가 전년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재 감소 영향으로 명목소비는 전년 수준에 머물 전망

· (2026.상) 민간소비 심리 회복과 설비투자 확대 등에 따라 수요 회복이 기대되었으나, 고유가와 대외 불확실성 등 부정적 외부 요인이 회복세를 제한할 전망

- (정유) 항공유 중심의 전반적 석유제품 수요 위축 지속으로 전년 대비 7.8% 감소

· (2026.상) 항공유를 비롯한 운송용 석유제품 소비 감소와 석유화학용 석유제품(나프타

및 LPG)의 동반 수요 부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6.8% 감소

- (석유화학) 소비 회복, 자동차·전기전자·포장재 수요, 공급망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5% 감소할 전망

· (2026.상) 소비 회복세와 자동차 생산 증가에 힘입어 일부 회복 조짐을 보였으나, 건설 경기 부진과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회복 강도는 제한적

- (섬유) 하반기 내수는 고부가가치 섬유 수요 확대 및 수입 증대 등에 힘입어 2.7%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2.3% 증가

· (2026.상)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등 여건 악화 속에서도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유류비 지원 등 확장적 재정 기조로 전년동기비 1.9% 증가

○ (IT신산업군) 하반기 실제 수요 기준에서의 내수는 전년동기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

- (정보통신기기산업) 하반기에도 온디바이스 AI 및 기업용 SSD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6년 내수는 전년 대비 12% 정도 증가할 전망

· (2026.상) 신규 출시된 프리미엄급 AI 스마트폰과 기업의 PC 교체수요, 기업용 고용량 SSD 수요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약 9.6%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가전) 중동 전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부진에도 불구하고 경기 호조 및 기저 효과에 힘입어 2026년 내수는 전년 대비 1.2% 증가 전망

- (반도체) 하반기에도 SSD, 컴퓨터(부품) 수출 호조가 지속되며 실수요는 증가하겠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메모리반도체 부족 현상 심화로 인한 빠른 속도의 재고 감소로 재고를 포함한 통계상의 내수는 감소로 표시

· (2026.상) 반도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SSD, 컴퓨터(부품)의 수출 증가로 내수가 소폭 증가

- (디스플레이) 전방산업의 해외 이전 확대로 큰 폭의 내수 증가는 구조적으로 제한적이지만 현대 및 기아 등 완성차 업체의 국내 생산 차량용 디스플레이 수요 확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전년 대비 1.3% 증가할 전망

- (이차전지) 국제정세 불안과 고유가 흐름 속 전기차·ESS 등 수요 확대에 힘입어 2026년 내수는 10.8% 증가 전망
 - (2026.상) 국내 전기차 생산·판매 증가 추세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이차전지 내수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22.4% 증가할 것으로 추정
- (바이오헬스) 정부가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 분야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을 추진, 동시에 시장 내 필수약품·신약 처방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6.7% 성장 전망
 - (2026.상) 독감 대유행, 당뇨·비만치료제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11.3% 증가

<표 2-7>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 평가
자동차	· 다양한 차급과 고급브랜드의 HEV 모델 출시 ·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 ·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한 정부 인센티브 강화	· 고유가 등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 여력 감소 ·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폐지	· 볼륨 차종 모델 노후화와 경기 침체 등 부정적 요인 우세로 소폭 감소
조선	· 해외 조선사에 발주한 벌크선과 유조선의 인수 증가	· 대규모 내수를 지탱했던 LNG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의 인수 감소	· 우리나라 해운사가 인수해야 할 물량이 LNG운반선, 컨테이너선 감소로 급감
일반 기계	· 수요산업(반도체, 방산 등)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 건설투자 증가세 전환	· 중동 전쟁 및 미국 관세정책 지속에 따른 제조업 경기 회복 모멘텀 제약	· 수요산업 설비투자 회복과 건설투자 증가 전환 등으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나, 대외 환경 불확실성에 의한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철강	· 수요산업의 회복 기초 · AI·에너지 전환 관련 분야 성장에 따른 고부가가치 강재 수요 확대	· 범용 봉형강 및 판재류 수요 부진 · 수입 철강재 감소에 따른 명목소비 감소	· 국내 수요는 전년보다 다소 개선되었으나 미약할 전망. 최근 급격하게 나타난 수요 침체 기초는 진정될 전망
정유	·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 유류세 한시 인하 확대 및 연장 · 고유가 피해지원금	· 고유가 지속 · 정부 규제 강화로 인한 경유 수요 감소 · 전기차 보급 확대	· 항공유를 비롯한 운송용 석유제품 소비 감소와 석유화학용 석유제품(나프타 및 LPG)의 동반 수요 부진 전망
석유 화학	· 전방산업(포장재·자동차·전기전자, 배터리·친환경 소재)의 선제적 재고 확보 수요 증가	· 건설 부진, 제품가격 상승 · 공급 부족, 후방업체 원가 부담	· 실수요 회복력은 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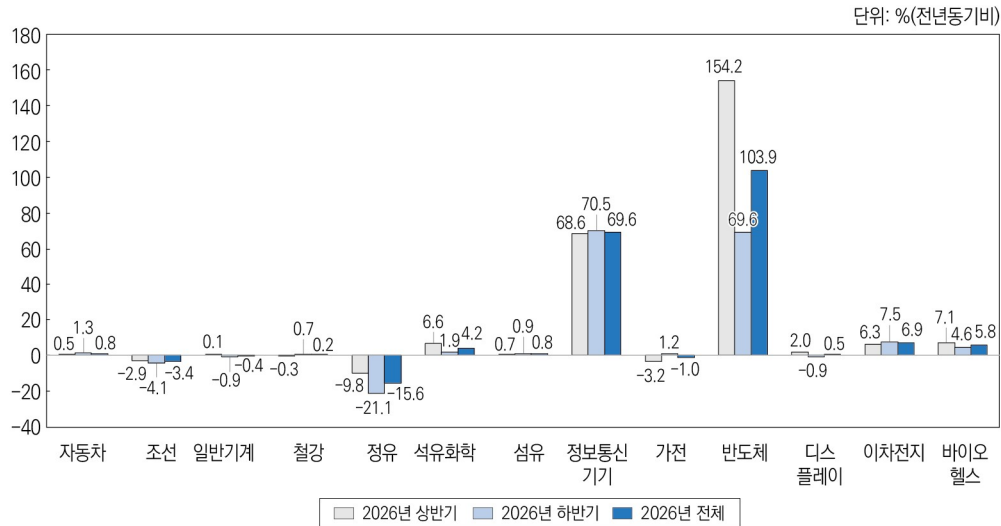
(계속)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 평가
섬유	· 첨단 섬유(탄소섬유·아라미드) 증설 가동 · F/W 의류 수요 회복 및 기저효과 ·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및 내수 진작 정책 · 중저가 의류 및 수입 소재 유입 확대	· 중동 사태에 따른 원료가(30~40%) 급등 · 고유가발 물가 상승 및 금리 인하 지연 우려 · 국내 범용 섬유 생산기반의 구조적 약화 · 가계부채 체증에 따른 실질 구매력 제한	· 2026년 내수는 첨단소재 공급 확대와 의류 소비 회복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보이나, 중동발 원가물류 충격과 고금리 지속에 따른 가계 부담이 성장을 제약하며 연간 2.3% 수준의 완만한 성장에 그칠 전망
정보통신기기	· AI 인프라 투자에 따른 기업용 SSD 수요 증가 · 스마트폰 신제품(AI폰, 폴더블폰 등) 출시 효과 · 기업·공공부문 AI PC 교체수요 · 기업들의 DX·AI 투자	· 가계 대출 부담과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 · 가격 상승과 국내 스마트폰 교체주기 연장	·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효과, 기업용 SSD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내수가 증가할 전망
가전	· 경제성장을 및 민간소비 회복 · AI 가전 등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 · 가전 구독서비스 확대 · 기저효과	· 물가 상승 및 내구재 소비심리 부진	· 경기 호조와 구독서비스 확대, 기저 효과 영향으로 하반기 내수는 증가세를 유지
반도체	· SSD, 반도체 (부품) 수출 증가 · 국내 AI 컴퓨팅 센터 등 인프라 구축	· 재고 감소	· 수출용 SSD 등에 부품용으로 사용되는 반도체 수요는 증가하지만 수출과 재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내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
디스플레이	· 아이폰 18 기본형 출시 이연에 따른 하반기 수출 조정 · 중국산 LCD 수입 정상화 · 차량용 디스플레이 국내 수요 확대	· 전방산업 국내 생산거점 해외 이전 지속 · D램 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IT기기 수요 위축	· 차량용·산업용 등 실질 수요가 일부 존재하나 전방산업의 해외 이전으로 국내 수요 규모는 구조적으로 제한적이며, 내수 지표는 수출입 변동에 따른 전자 성격이 강함을 감안할 필요
이차전지	· 전기차, ESS 등 배터리 수요산업의 국내 수요 개선 흐름 견조	·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정세 불안,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 수요산업 개선 영향으로 국내 이차전지 내수 증가
바이오헬스	· 필수약품 소비 증가 · 국내·외 신약 출시 기대 · 보건·복지 관련 예산 지원 확대	· 중동 전쟁발(發) 조달 차질에 따른 일부 품목 가격 상승으로 처방 지연	· 내수 진작 정책과 실질 의료수요 증가가 동시에 작용하며 전년 대비 6% 이상 성장

□ 생산: IT산업군 중심의 생산 확대는 지속되는 반면, 소재산업군의 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해외 생산 대체 영향이 큰 이차전지는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

○ (기계산업군) 하반기 자동차 생산은 1.3% 증가하는 반면, 일반기계는 0.9% 감소, 조선은 컨테이너선 수출 부진으로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

<그림 2-3>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률 전망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 (자동차) 대외환경 불안 속에 공급망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내수 증가로 인해 하반기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하면서 2026년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413만 대로 4년 연속 400만 대를 상회할 전망
- (2026.상) 화재로 인한 부품 조달 차질로 일부 업체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수출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0.5% 증가한 212만 대를 기록할 전망
- (조선) 높은 수준의 가스운반선 생산이 지속되나, 컨테이너선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3.4% 감소한 1,180만CGT가 될 전망
- (2026.상) LNG운반선, LPG운반선, 유조선 건조 증가에도 컨테이너선 물량이 급감하면서 2.9% 감소될 것으로 추정
- (일반기계) 수출 감소폭은 축소(-8.4% → -1.0%)되나, 내수 증가세(+1.0%)가 소폭 둔화하며 전년 대비 -0.4% 수준의 보합세가 예상
- (2026.상) 수출은 감소(-3.3%)한 반면, 내수는 소폭 증가(+3.4%)하면서 전년 대비 0.1%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소재산업군) 하반기 철강 생산은 0.7%, 석유화학 1.9%, 섬유는 0.9% 증가하는 반면, 정유산업의 석유제품 생산은 21.1% 감소할 전망
 - (철강) 하반기 글로벌 철강 수요 회복세가 제한적이거나 증가세로 전환되고, 비용 상승, 수입규제 강화,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소폭(0.2%) 증가하며 최근 2년 연속 이어진 감소세에서 소폭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 (2026.상)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수요 개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고비용에 따른 수익성 압박이 생산 회복을 제약하며 0.3% 감소 추정
 - (정유) 하반기에도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과 재고평가 손실 우려로 정유사의 보수적 운영이 지속되며 전년동기 대비 21.1% 감소, 연간 기준으로는 15.6% 감소할 전망
 - (2026.상) 석유제품 생산은 원유 수급 차질로 인한 국내 정제설비의 가동을 하향조정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9.8% 감소
 - (석유화학) 기존 NCC의 구조조정과 낮은 스프레드로 회복력은 제한적이지만, 사후 프로젝트와 정부의 원료수급 지원에 힘입어 전년 대비 4.2% 증가
 - (2026.상) 원료 수급 불안으로 가동을 하방압력이 컸으나, 전년동기 기저효과와 정부의 나프타 도입 지원 및 기초유분 수급 관리로 6.6% 증가
 - (섬유) 하반기 생산은 내수 증가, 첨단소재 생산설비 증설 및 본격 가동, 기능성 소재 수요 확대 등으로 0.9%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0.8% 증가 전망
 - (2026.상) 첨단소재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와 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기반 약화 및 수입 의존도 확대, 대미 수출 둔화 등의 영향으로 0.7%의 낮은 성장세
- (IT산업군) 하반기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69.6%, 정보통신기기는 70.5% 증가하는 반면, 디스플레이는 0.9% 감소할 전망
 - (정보통신기기) 2026년 생산은 하반기에도 고성능 SSD 수요 증가와 단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69.6%의 큰 폭 증가 전망

- (2026.상) SSD 중심의 수출 증가와 단가 상승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68.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가전) 하반기 국내·외 수요 여건의 개선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1.2% 증가하겠지만 상반기 수출 부진에 따른 생산 감소로 2026년 생산은 1.0% 감소 전망
- (2026.상)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 위축이 지속되며 전년동기비 3.2% 감소될 것으로 추정
- (반도체) 상반기에 진행된 투자로 인해 하반기부터는 생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며 전년 대비 103.9%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6.상) 2025년 말부터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전년동기비 154.2% 증가
- (디스플레이) 하반기 아이폰 기본형 출시 이연이라는 외생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가치 OLED 제품(폴더블·IT OLED·OLED 모니터) 중심의 생산 구조 전환이 하방을 흡수하며 연간 기준으로는 소폭 성장
- (2026.상) SDC A6(8.6세대) IT OLED 라인의 6~7월 양산 개시와 LGD의 애플 공급 물량 확대 등으로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며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
- (이차전지) 전기차 및 ESS 등 수요 부문의 업황 개선으로 국내 배터리 생산은 전년 대비 6.9% 증가 전망
- (2026.상) 국내 생산능력 자체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배터리 수요 확대 영향으로 국내 공장에서의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6.3% 증가
- (바이오헬스) 국내·외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의약품 CDMO 생산 확대와 의료기기 수요 증가가 전체 생산 증가를 주도하며 6% 내외 증가
- (2026.상) 바이오시밀러, 신약 및 백신, 의료기기 등 최근 수출 실적이 좋았던 바이오헬스 품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년동기 대비 7.1% 확대

<표 2-8>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 전기차 전용 신규 공장 본격 가동 · 중견업체 실적 부진을 위한 생산 강화	· 미국 고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 정책 강화로 해외 생산 증가 · 미-이란 전쟁 등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 및 공급망 불확실성 증가	· 미-이란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장 본격 가동, 중견업체 생산활동 강화 등으로 소폭 증가
조선	· LNG운반선, LPG운반선, 유조선 건조 증가	· 컨테이너선 인도 물량 감소	· 가스운반선 및 유조선 건조 증가에도 컨테이너선 인도 물량이 감소하여 소폭 감소
일반 기계	· 반도체·방위산업 등 수요산업 업황 개선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 대내외 기계류 투자심리 위축요인 상존(성장 양극화,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지속 등)	· 수출 감소폭 축소와 내수 회복으로 보합세 예상
철강	· 국내·외 수요의 소폭 회복 · 전기로 등 신규 설비 가동	· 건설 시장 부진 장기화 · 에너지, 환경 관련 비용 급증에 따른 수익성 압박	· 최근 2년간의 부진 추세는 완화되나 생산 비용 인상, 제한적 수요 회복에 따라 전년 수준 기록 예상
정유	· 고수준의 정제마진 지속	·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 · 원유가격 하락시의 재고평가 손실 우려	· 정유사의 정제설비 보수적 운영이 지속되며 전년 대비 15.6% 감소
석유 화학	· 사힌 프로젝트 · 내수 일부 회복 · 정부 원료수급 지원 · 통합설비 효율화	· 기존 NCC 감산 및 자발적 구조조정 · 제품 스프레드 위축	· 전년비 증가
섬유	· 2025년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 · 첨단소재(탄소섬유, 아라미드) 증설분 본격 가동 ·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소재 투자 확대 · 고기능성 의류 소재(스판덱스 등) 수요 지속	· 중동 사태로 인한 원료가(30~40%) 폭등 · 해상운임 급등 및 물류 차질에 따른 채산성 훼손 · 범용 부문의 구조적 감산 및 수입산 시장 잠식 · 원가 상승을 반영한 제품가 인상 시 수요 위축 우려	· 2026년 생산은 2025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첨단소재 신증설 효과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겠으나, 중동발 공급망 충격(원가·물류비)과 범용 부문의 경쟁력 약화가 성장을 제약하며 0.8% 수준의 완만한 회복에 그칠 전망
정보 통신 기기	· 수출 및 내수 증가 · 제품 수출·생산 단가 상승	· 스마트폰 해외 생산 확대 · 주요 부품의 해외 현지 조달 및 생산 증가	· SSD 중심 수출 확대 및 단가 상승 등에 힘입어 생산이 큰 폭 증가
가전	· 내수 및 수출 개선 · 기저효과 · 프리미엄 제품 생산 증가	· 글로벌 경쟁 심화 및 현지 수요에 대응한 해외 생산 확대 · 국내 설비투자 및 생산능력 위축 · 수입 증가	· 해외 생산 확대로 국내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나 내수·수출 개선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하반기 생산은 소폭 증가 전망
반도체	· 첨단 공정 전환과 신규 설비투자 확대	· 없음	· 기존 설비의 효율성 증가와 신규투자로 인해 반도체 생산능력은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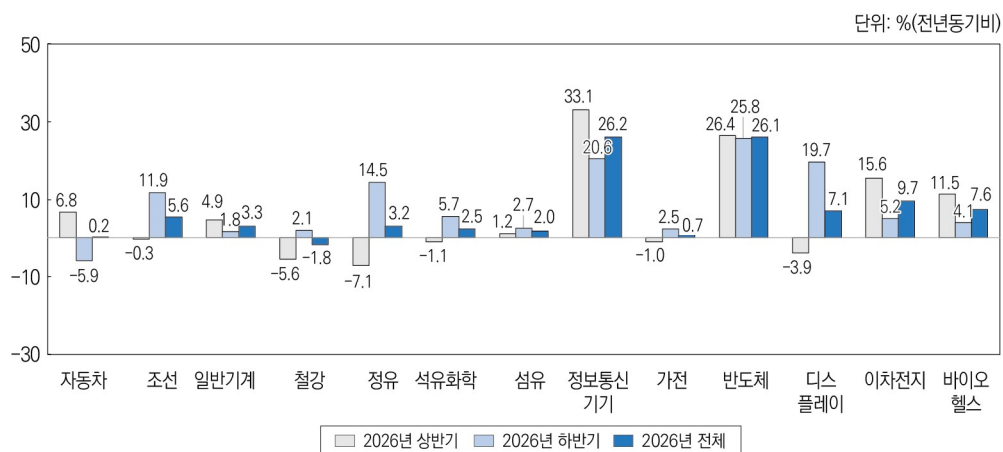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디스플레이	· SDC A6 IT OLED 양산 본격화 및 애플 폴더블·프로 시리즈 생산 지속 · OLED 모니터 등 IT OLED 수요 확대	· 아이폰 18 기본형 출시 이연에 따른 표준형 OLED 생산 감소 · TV OLED 단가 하락	· 아이폰 기본형 이연에도 고부가가치 신제품과 갤럭시 시리즈 연중 생산이 공백을 흡수하며 보합권 유지
이차전지	· 국내외 전기차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증가	· 국내 생산능력 정체 추세 지속	· 국내 생산능력은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국내 공장의 가동률 향상 등을 통해 생산 증가 전망
바이오헬스	· 대규모 CDMO 본격 가동 및 신규 공장 개시로 생산능력 증설 · 의료기기 수출 증가세 유지	·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 강화로 채산성이 낮은 의약품 공급 축소 및 투자 위축 · 국내 일부 공정·제품 생산 지연 · 미국 현지 생산시설 정식 가동	· 전 세계 바이오헬스 수요 증가와 국내 생산 역량 개선으로 연간 5.8% 성장

□ 수입: IT산업군의 수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

○ (기계산업군) 하반기 수입은 일반기계가 1.8%, 조선은 11.9%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는 5.9% 감소하며 전년동기 대비 0.3% 감소하겠지만 연간으로는 2.3% 증가

- (자동차) 하반기에는 개소세 인하 폐지, 물가 인상 영향 및 전년동기 호실적에 따른 역기저로 전년동기비 5.9% 감소가 예상되나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0.2% 증가한 214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를 기록할 전망

<그림 2-4>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률 전망



주: 1) 달러화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 (2026.상)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집행과 고유가에 따른 전기차 수요 증가로 인해 테슬라 등 전기차 중심의 판매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6.8%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조선) 수입 기자재가 많은 가스선 생산 증가, 중국, 일본 등으로부터의 선박 수입은 유지되면서 전년 대비 5.6% 증가 전망
- (2026.상) 조선기자재 수입은 증가하지만 예상보다 선박 수입이 많지 않아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의 수입이 예상
- (일반기계) 대외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수요산업 설비투자 수요의 점진적 회복과 자동화·친환경 설비투자 지속으로 관련 완제품 및 부품 수입 수요가 확대되며 전년 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6.상) 수요산업 설비투자의 점진적 회복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4.9%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소재산업군) 하반기 수입은 정유 14.5%, 석유화학 5.7%, 섬유는 2.7%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6.4%, 연간으로는 1.4% 증가
- (철강) 국내 수요의 정체 기조 속에서 무역구제 정책 효과 발현에 따라 물량기준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하며 최근의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
- (2026.상) 상반기 수입은 시황 및 글로벌 수급 여건 변화에 따라 월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시장 정체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5.6% 감소할 전망
- (정유)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입단가 상승, 정유사 가동률 조정 영향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할 전망
- (2026.상) 중동 전쟁 심화에 따른 수급 불안과 정기보수,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
- (석유화학) 나프타, 기초유분 및 범용수지의 단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전년 대비 2.5% 증가
- (2026.상) 중동사태 이후 나프타 수급 차질과 가격상승이 부각되면서, 단순 내수 대응형 수입보다 공급망 안정화 목적의 원료·기초유분 조달 성격이 강화

- (섬유) 중동 사태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과 중국발 과잉 물량의 국내 유입, 해외 생산 제품의 역수입 확대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 2.7%, 연간 2.0% 증가할 전망
- (2026.상)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저가 의류 및 섬유소재 수요 확대, 국내 생산 중단 품목의 수입 대체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2% 소폭 증가
- (IT산업군) 하반기 IT산업군 수입은 반도체 25.8%, 정보통신기기 20.6%, 가전 2.5%, 디스플레이 19.7%, 이차전지 5.2%, 바이오헬스는 4.1%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19.2%, 연간으로는 20.8% 증가
- (정보통신기기) 하반기에도 SSD 수요 증가 및 단가 상승이 이어지고 신규 출시 예정인 국내외 스마트폰 및 AI PC 수요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26% 증가할 전망
- (2026.상) AI 수요 확산으로 SSD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국내·외 스마트폰 신제품 교체수요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약 33%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가전) 내수 회복세와 가성비를 갖춘 중국 브랜드의 시장 진입 확대로 하반기에 2.5%,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0.7% 증가 전망
- (반도체) 국내 기업과 정부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중국에서 가공된 웨이퍼의 다음 공정을 위한 국내로의 반입도 확대되며 전년 대비 26.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6.상) 국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와 제조 공정상 필요한 수입이 증가
- (디스플레이) 상반기 구조적 감소(-3.9%)와 작년 하반기 LGD 광저우 공장 매각 이후 중국산 LCD 공급 재편 과정에서 조달 물량이 일시 급감했던 기저효과 반등(+19.7%)이 복합 작용하며 전년 대비 7.1% 증가
- (2026.상) 주요 세트업체의 국내 생산거점 해외 이전으로 LCD 수요가 차량용·산업용 등 특수 목적에 국한되고 OLED는 국내 자급 구조가 유지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3.9% 감소
- (이차전지) 전기차 내수·수출 증가와 제품단가 확대 영향으로 2026년 연간 수입은 9.7% 증가 전망

- (2026.상) 국내시장 전기차 판매·수출 증가로 국내 전기차 생산량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거점에서 생산된 배터리 수입이 증가
- (바이오헬스) 희귀의약품·암 검진 장비 등 수입 선호 품목의 수요 확대로 7.6% 증가
- (2026.상) 지난해부터 확대된 수입 당뇨·비만치료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희귀의약품 지원 제도 강화로 완제의약품 및 원부자재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표 2-9>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 중국산 전기차 경쟁력 향상 · HEV, EV 수요 확대 · AS 및 OEM 부품 수요 증가	· 혼다 등 일본 및 유럽 브랜드 철수 및 국내 시장 경쟁력 약화 · 국내 완성차 고급브랜드 라인업 확대	· 중국산 EV 수요 증가 지속되나 전년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입차 브랜드 감소 등에 하반기 감소 전환
조선	· 수입기자재가 많은 가스온반선의 고수준 생산 지속 · 국내 해운사의 선박 수입 물량 증가	· 컨테이너선 및 해양플랜트 물량감소로 블록 수입 감소 · 기자재 국산화 및 국산 기자재 탑재 노력을 통한 수입 감소	· 국내 해운사의 해외 선박 도입 및 해외 기자재 수입으로 지속 증가
일반 기계	· 반도체·IT업황 개선에 따른 관련 설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AI 자율제조 확산과 디지털·그린 전환(DX·GX) 대응 생산공정 고도화, 저탄소·친환경 제조장비 및 산업기계에 대한 투자 수요 지속 전망	·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물가 상승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반도체·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설비 투자 회복과 AI·디지털·그린 전환(AI·DX·GX) 대응 투자 확대가 수입 증가를 견인 · 글로벌·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철강	· 중국의 내수 부진, EU시장의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국내 유입 가능성 · 내수의 소폭 회복과 원가 부담에 따른 저가 수입재 선호 유인 증가	·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 범위 확대 · 우회덤핑 제도 강화, 수입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의 비관세 장벽 강화	· 국내 내수 규모 정체와 수입재 방어 강화로 수입 물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 예상
정유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 · 국내 정제설비 가동률 하향조정	·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등의 수입 차질	· 하반기 수입물량은 소폭 감소하겠지만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액은 증가
석유 화학	· 국내 생산 차질 보완 · 중국산 범용제품 유입 · 내수 일부 회복	· 환율 부담 및 물류비 상승 · 구조조정에 따른 중간재 수요 감소	· 물량은 품목별 혼조, 금액은 증가
섬유	· 원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인상 · 중국 과잉 물량 및 직구 플랫폼의 국내 잠식 · 해외 생산 거점으로부터의 역수입 지속 확대 · 국내 생산 중단 품목의 수입 대체 수요 발생	· 해상운임 급등(3~4배)에 따른 수입 비용 부담 · 고금리 및 고물가 지속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 · 가계 부채 부담 증가로 인한 가처분 소득 감소	· 2026년 수입은 고유가에 따른 수입 단가 상승과 중국발 저가 물량 유입, 국내 생산 기반 약화에 따른 수입 대체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년 대비 2.0% 증가

(계속)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정보통신기기	· 애플 신규 아이폰 및 폴더블폰 출시 전망 · 해외 생산 제품의 역수입 · SSD·스토리지 시장 확대 · AI PC 교체 수요 증가	· 제품 고급화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으로 소비심리 저하 · 국내 정보통신기기 제품의 경쟁력 제고	· AI 전환 수요 증가와 외산 신제품 출시 등으로 수입수요 증가 전망
가전	· 내수 회복 · 중국 브랜드 국내 시장 진입 확대(여러 브랜드의 적극적 움직임)	· 한국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구독 서비스 확대, 스마트홈 플랫폼 지배력 강화) · 수입 물가 상승	· 수입 물가 상승으로 상반기 수입은 다소 감소하나, 국내 경기 호조 및 내수 회복세 진입으로 하반기 수입은 증가
반도체	· 국내 AI 센터 확충 · 반도체 생산 공정 과정에서 이동	· 없음	· 국내 신산업 수요 및 IT 제품 생산을 위한 수입 증가
디스플레이	· LGD 광저우 매각 이후 CSOT 계열 LCD 공급 재편 정상화(기저효과 해소) · 차량용·산업용 특수 LCD 수입 수요 지속	· 주요 세트업체 국내 생산거점 해외 이전 지속으로 디스플레이 전방수요 구조적 감소	· 하반기 수입 증가는 기저효과 주도이며 기저효과 소멸 이후에는 구조적 제한 요인 재작용으로 수입 확대 여지 제한적
이차전지	· 국내 전기차 내수 수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배터리 수입(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 조달물량 등) 증가	· 국내 배터리 생산공장의 가동률 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 증가(국내 생산물량의 수입물량 대체 강화)	· 국내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배터리 수입 증가 전망
바이오헬스	· 노후장비 교체 및 첨단의료장비 도입 · 희귀의약품 규제 완화 및 신속 접근성 확대로 개발·처방 증가	· 중동전쟁 여파로 비용 증가 · 원부자재 조달 경쟁	· 수입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 증가세는 10% 미만

3. 종합

□ 2026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종합

- 2026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은 AI 투자 확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반도체·정보통신기기·이차전지·바이오헬스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자동차는 친환경차 경쟁력으로 완만한 증가, 조선은 고선가 수주 인도로 양호한 흐름이지만, 일반기계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제한적 조정 국면이 지속될 전망
 - 정유·석유화학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출단가는 상승하겠으나, 원유 가격 변동성 및 공급 불확실성으로 인한 보수적 정제설비 운영으로 생산은 제한적
 - 디스플레이는 일부 모델 출시 지연 영향으로 수출은 약세이나 OLED 등 고부가 제품 중

심으로 생산은 보합 수준 유지, 가전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관세·해외 생산 확대 영향으로 제한적 회복에 그칠 전망

○ <자동차> 2026년 하반기 대외여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경쟁 우위로 성장세 유지 전망

- 2026년 하반기 미-이란 전쟁 여파와 중국업체 해외 진출 강화에도 불구하고 HEV 등 친환경차 경쟁우위 확보와 경쟁업체 부진에 따른 반사효과로 수출이 소폭 상승하며 생산 증가 예상

○ <조선> 2026년 하반기에도 조선산업은 양호한 흐름 예상, 연간으로 성장세 지속

- 2026년 조선산업은 납기나 수출 선종 변화로 인해 물량은 소폭 조정되더라도 고선가 수주 물량 인도로 수출은 지속 성장하고, 가스운반선 시장 호조로 수주도 증가할 전망

○ <일반기계> 2026년 하반기 일반기계산업은 수출 감소세가 완화 기조를 보이지만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전반적으로 완만한 조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통상 리스크 완화와 국내 투자 환경 개선 여부에 따라 본격적인 회복 국면 전환 기대

○ <철강> 2026년 하반기 주요 지표 개선으로 2027년 업황 회복 기대 확대

- 중동 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 지난해의 침체 흐름이 완화되고, 하반기에는 국내·외 실수요 개선에 힘입어 소비와 생산이 증가 전환될 전망

- 다만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및 에너지 리스크,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치 등 추가 수입규제 가능성은 업황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는 주요 하방 요인으로 작용

○ <정유> 국내 정유사의 보수적 정제설비 운영으로 석유제품의 생산 및 수출물량은 감소하겠지만, 국제유가 급등 및 고수준 지속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액은 증가

- 글로벌 정제마진은 석유제품의 글로벌 공급이 타이트한 기조 속에서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고유가와 더불어 수출단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석유화학> 2026년 하반기에는 사후 프로젝트의 상업가동과 정부의 나프타 수급지원이 생산 감소폭을 제한

- 기존 NCC의 구조조정과 낮은 스프레드, 수출물량 부진은 업황 회복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섬유> 2026년 하반기 섬유산업은 내수 견인으로 소폭의 회복세 예상,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수출이 부진한 반면 내수·생산 실적 소폭 개선 전망
 - 글로벌 경기 부양 정책과 2025년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 첨단 섬유 소재의 본격적인 증설 가동에 힘입어 생산(+0.8%)과 내수(+2.3%)가 소폭 증가하며 업황이 다소 개선될 전망
- <정보통신기기> 2026년 하반기 AI 수요 급증으로 인해 SSD 수요 증가와 단가 상승 영향으로 수출과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 전망
 - 세계적으로 AI의 대규모 도입 및 활용 확산으로 인한 AI 인프라 투자가 하반기에도 확대되면서 국내 업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SSD가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할 전망
 - 특히 메모리 및 SSD의 공급 부족에 따른 높은 단가가 큰 폭의 수출·생산 증가를 이끌 전망
 - 세계 스마트폰과 PC 시장은 높은 수준의 메모리 및 SSD 가격 등으로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나, 국내 프리미엄폰·핵심부품 수출은 단가 상승 등에 힘입어 증가 예상
- <가전> 2026년 하반기는 기저효과로 수출과 생산이 소폭 증가로 전환할 전망이며, 연간으로는 상반기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실적 감소가 예상
 - 미국 관세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해외 생산 확대 영향으로 2026년 하반기 수출과 생산은 제한적인 회복에 그칠 전망
 - 내수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 호조와 기저효과 영향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수입은 내수 회복과 중국 제품의 국내 시장 진입 확대로 소폭 증가
- <반도체> 2026년 하반기 반도체산업은 AI 서버 등의 인프라에 채용되는 메모리반도체 수요 확대와 범용 메모리반도체 단가 상승 영향으로 인해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들은 2026년 세계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반도체 영향으로 인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투자가 하반기에도 지속됨에 따라 관련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며,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수출과 생산 확대를 견인

○ <디스플레이> 주요 모바일기기 부문에서 일부 모델의 출시가 2027년 초로 이연됨에 따라 하반기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생산은 아이폰 기본형 공백을 폴더블·맥북 프로 OLED·IT OLE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 슬롯 재배분으로 흡수하며 전년 대비 보합 수준(-0.9%) 유지 전망

○ <이차전지> 수출과 생산이 플러스 증가세로 전환

- 국내·외 배터리 수요 개선, 제품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해외 현지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생산에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표 2-10>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산업 전망 기상도

		수출		내수		생산		수입	
		하반기	연간	하반기	연간	하반기	연간	하반기	연간
기계 산업군	자동차	☁	☁	☁	☁	☁	☁	☔	☁
	조선	☁	☁	☔☔	☔☔	☁	☁	☀☀	☀
	일반기계	☁	☁	☁	☁	☁	☁	☁	☁
소재 산업군	철강	☁	☁	☁	☁	☁	☁	☁	☁
	정유	☁	☀	☔	☔	☔☔	☔☔	☀☀	☁
	석유화학	☀	☁	☁	☁	☁	☁	☀	☁
	섬유	☁	☁	☁	☁	☁	☁	☁	☁
IT 신산업군	정보통신기기	☀☀	☀☀	☀☀	☀☀	☀☀	☀☀	☀☀	☀☀
	가전	☁	☔	☁	☁	☁	☁	☁	☁
	반도체	☀☀	☀☀	☔☔	☔☔	☀☀	☀☀	☀☀	☀☀
	디스플레이	☔	☁	☀	☁	☁	☁	☀☀	☀
	이차전지	☀	☀	☁	☀☀	☀	☀	☀	☀
	바이오헬스	☀	☀	☁	☀	☁	☀	☁	☀

주: 1)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내수와 생산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 수입과 내수는 전년도에 이미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올해 들어 수출과 생산까지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황 개선 흐름이 가시화
- <바이오헬스> 2026년 하반기에도 주력 품목의 수출 성장세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연간으로는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미국·EU 등 선진국 시장향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급등, 미국 관세정책 변동성 등의 대외 변수와 약가 인하 정책, 선도기업 내 노사갈등 등 대내 변수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표 2-11>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93,316 (-0.5)	47,113 (-2.5)	46,062 (2.4)	93,175 (-0.2)	45,792 (-2.8)	45,794 (-0.6)	91,586 (-1.7)
조선	25,636 (17.6)	13,981 (19.1)	17,835 (28.3)	31,816 (24.1)	16,042 (14.7)	17,187 (-3.6)	33,229 (4.4)
일반기계	51,172 (-4.2)	23,614 (-9.4)	23,283 (-7.2)	46,897 (-8.4)	22,830 (-3.3)	23,609 (1.4)	46,438 (-1.0)
철강	33,282 (-5.4)	15,613 (-6.0)	14,672 (-12.0)	30,285 (-9.0)	15,403 (-1.3)	15,150 (3.3)	30,553 (0.9)
정유	50,326 (-3.2)	21,583 (-18.4)	23,876 (-0.0)	45,459 (-9.7)	26,210 (21.4)	22,740 (-4.8)	48,949 (7.7)
석유화학	47,985 (5.0)	21,719 (-11.1)	20,801 (-11.7)	42,520 (-11.4)	21,728 (0.0)	21,983 (5.7)	43,711 (2.8)
섬유	10,463 (-4.1)	4,892 (-8.2)	4,787 (-6.8)	9,679 (-7.5)	4,795 (-2.0)	4,640 (-3.1)	9,435 (-2.5)
정보통신기기	31,510 (29.5)	13,878 (8.8)	18,184 (-3.0)	32,061 (1.8)	29,227 (110.6)	32,723 (80.0)	61,950 (93.2)
가전	7,974 (0.4)	3,701 (-10.7)	3,567 (-6.9)	7,269 (-8.9)	3,275 (-11.5)	3,621 (1.5)	6,896 (-5.1)
반도체	141,920 (43.9)	73,254 (11.4)	100,150 (31.5)	173,404 (22.2)	170,977 (133.4)	179,152 (78.9)	350,129 (101.9)
디스플레이	18,747 (0.9)	7,608 (-14.4)	9,377 (-4.9)	16,985 (-9.4)	8,026 (5.5)	8,907 (-5.0)	16,933 (-0.3)
이차전지	8,202 (-16.6)	3,603 (-9.0)	3,625 (-14.6)	7,228 (-11.9)	3,817 (5.9)	3,901 (7.6)	7,717 (6.8)
바이오헬스	15,479 (13.3)	8,428 (10.7)	8,404 (6.9)	16,832 (8.7)	8,764 (4.0)	9,181 (9.2)	17,945 (6.6)
13대 합계	536,012 (10.3) <78.4>	258,987 (-1.2) <77.4>	294,623 (7.5) <78.6>	553,610 (3.3) <78.1>	376,886 (45.5) <82.2>	388,588 (31.9) <83.4>	765,471 (38.3) <82.8>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 안은 전체 수출에서 13대 주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표 2-12>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물량, 원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천 대)	2,783 (0.6)	1,412 (-3.8)	1,325 (0.7)	2,736 (-1.7)	1,437 (1.8)	1,337 (0.9)	2,774 (1.4)
조선 (만 CGT)	859 (12.1)	494 (21.1)	478 (6.0)	972 (13.2)	571 (15.6)	516 (7.9)	1,087 (11.8)
일반기계 (십억 원)	69,178 (-0.5)	33,589 (-5.6)	33,118 (-3.3)	66,707 (-4.5)	32,939 (-1.9)	34,063 (2.9)	67,002 (0.4)
철강 (천 톤)	28,350 (3.7)	14,227 (4.8)	14,023 (-5.1)	28,249 (-0.4)	14,295 (0.5)	14,060 (0.3)	28,356 (0.4)
정유 (십만 배럴)	5,142 (4.0)	2,447 (-5.0)	2,643 (3.0)	5,090 (-1.0)	2,054 (-16.1)	1,964 (-25.7)	4,017 (-21.1)
석유화학 (천 톤)	39,427 (7.2)	15,991 (-17.8)	19,082 (-4.5)	35,072 (-11.0)	15,888 (-0.6)	18,745 (-1.8)	34,633 (-1.3)
섬유 (십억 원)	14,260 (-0.5)	6,979 (-3.0)	6,785 (-4.0)	13,761 (-3.5)	7,027 (0.7)	6,589 (-2.9)	13,616 (-1.1)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42,598 (33.4)	19,791 (14.9)	25,813 (1.7)	45,604 (7.1)	42,833 (116.4)	46,549 (80.3)	89,382 (96.0)
가전 (십억 원)	10,874 (4.8)	5,278 (-5.6)	5,056 (-4.3)	10,334 (-5.0)	4,800 (-9.1)	5,142 (1.7)	9,942 (-3.8)
반도체 (십억 원)	191,879 (48.8)	104,468 (17.7)	141,943 (37.7)	246,410 (28.4)	250,567 (139.9)	254,396 (79.2)	504,963 (104.9)
디스플레이 (십억 원)	25,585 (5.3)	10,860 (-9.5)	13,289 (-2.1)	24,148 (-5.6)	11,762 (8.3)	12,648 (-4.8)	24,410 (1.1)
이차전지 (십억 원)	11,090 (-13.6)	5,138 (-3.9)	5,138 (-10.6)	10,276 (-7.3)	5,594 (8.9)	5,539 (7.8)	11,132 (8.3)
바이오헬스 (십억 원)	21,106 (18.3)	11,988 (15.5)	11,954 (11.5)	23,942 (13.4)	12,645 (5.5)	13,246 (10.8)	25,891 (8.1)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표 2-13>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단위: %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천 대)	1,646 (-5.7)	836 (3.9)	862 (2.4)	1,698 (3.2)	866 (3.6)	849 (-1.5)	1,715 (1.0)
조선 (만 CGT)	324 (90.6)	172 (8.2)	128 (-22.4)	300 (-7.4)	112 (-34.9)	45 (-64.8)	157 (-47.7)
일반기계 (십억 원)	125,284 (-0.2)	62,971 (6.5)	64,698 (3.8)	127,669 (5.1)	65,129 (3.4)	63,833 (-1.3)	128,962 (1.0)
철강 (천 톤)	47,867 (-8.7)	21,992 (-12.6)	21,613 (-4.8)	43,604 (-8.9)	21,739 (-1.1)	21,674 (0.3)	43,413 (-0.4)
정유 (십만 배럴)	9,584 (3.5)	4,561 (-4.6)	4,755 (-1.0)	9,316 (-2.8)	4,251 (-6.8)	4,335 (-8.8)	8,586 (-7.8)
석유화학 (천 톤)	9,304 (-9.0)	4,447 (-8.1)	4,347 (-2.7)	8,794 (-5.5)	4,354 (-2.1)	4,308 (-0.9)	8,663 (-1.5)
섬유 (십억 원)	65,154 (2.2)	33,664 (0.2)	31,461 (-0.3)	65,126 (0.0)	34,313 (1.9)	32,297 (2.7)	66,610 (2.3)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45,650 (-10.5)	26,247 (4.9)	25,083 (21.6)	51,330 (12.4)	28,779 (9.6)	28,783 (14.7)	57,562 (12.1)
가전 (십억 원)	31,434 (-35.0)	15,248 (-0.5)	15,225 (-5.5)	30,473 (-3.1)	15,366 (0.8)	15,468 (1.6)	30,834 (1.2)
반도체 (십억 원)	54,858 (-11.1)	27,429 (4.1)	33,187 (16.4)	60,616 (10.5)	21,246 (-22.5)	17,992 (-45.8)	39,237 (-35.3)
디스플레이 (십억 원)	28,887 (12.1)	15,565 (15.9)	13,661 (-11.6)	29,226 (1.2)	15,110 (-2.9)	14,486 (6.0)	29,596 (1.3)
이차전지 (십억 원)	3,929 (-60.4)	1,755 (3.2)	2,977 (33.6)	4,732 (20.5)	2,148 (22.4)	3,094 (3.9)	5,242 (10.8)
바이오헬스 (십억 원)	52,267 (-2.4)	26,003 (6.4)	28,994 (4.2)	54,997 (5.2)	28,931 (11.3)	29,736 (2.6)	58,668 (6.7)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표 2-14>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단위: %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천 대)	4,128 (-2.7)	2,111 (-1.6)	1,991 (0.4)	4,102 (-0.6)	2,121 (0.5)	2,016 (1.3)	4,137 (0.8)
조선 (만 CGT)	1,152 (24.7)	656 (19.3)	566 (-6.0)	1,222 (6.1)	637 (-2.9)	543 (-4.1)	1,180 (-3.4)
일반기계 (십억 원)	149,127 (-3.3)	73,896 (-0.9)	74,137 (-3.3)	148,033 (-2.1)	73,959 (0.1)	73,438 (-0.9)	147,397 (-0.4)
철강 (천 톤)	66,568 (-4.7)	32,069 (-4.4)	31,160 (-5.6)	63,229 (-5.0)	31,983 (-0.3)	31,373 (0.7)	63,356 (0.2)
정유 (십만 배럴)	12,761 (2.4)	6,190 (-2.6)	6,462 (0.9)	12,652 (-0.9)	5,582 (-9.8)	5,100 (-21.1)	10,682 (-15.6)
석유화학 (천 톤)	21,091 (-2.5)	10,019 (-7.8)	10,449 (2.2)	20,468 (-3.0)	10,684 (6.6)	10,650 (1.9)	21,334 (4.2)
섬유 (십억 원)	53,140 (-0.2)	27,987 (-2.7)	23,825 (-2.3)	51,812 (-2.5)	28,180 (0.7)	24,050 (0.9)	52,230 (0.8)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51,723 (11.7)	27,145 (10.4)	27,817 (2.5)	54,962 (6.3)	45,776 (68.6)	47,435 (70.5)	93,211 (69.6)
가전 (십억 원)	30,925 (-1.4)	14,613 (-4.3)	14,457 (-7.7)	29,070 (-6.0)	14,151 (-3.2)	14,628 (1.2)	28,779 (-1.0)
반도체 (십억 원)	149,099 (36.5)	80,822 (15.3)	118,476 (49.9)	199,298 (33.7)	205,465 (154.2)	200,973 (69.6)	406,437 (103.9)
디스플레이 (십억 원)	49,314 (8.6)	24,028 (6.1)	24,861 (-6.7)	48,889 (-0.9)	24,508 (2.0)	24,630 (-0.9)	49,138 (0.5)
이차전지 (십억 원)	8,028 (-28.6)	3,566 (-6.7)	3,756 (-10.7)	7,321 (-8.8)	3,791 (6.3)	4,037 (7.5)	7,828 (6.9)
바이오헬스 (십억 원)	45,069 (3.7)	23,407 (13.1)	24,567 (0.8)	48,974 (6.4)	25,076 (7.1)	25,688 (4.6)	50,764 (5.8)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표 2-15>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20,628 (-9.4)	10,237 (-0.8)	11,180 (8.4)	21,417 (3.8)	10,929 (6.8)	10,521 (-5.9)	21,450 (0.2)
조선	4,007 (60.4)	2,394 (43.6)	2,228 (-4.8)	4,622 (15.3)	2,386 (-0.3)	2,493 (11.9)	4,879 (5.6)
일반기계	30,879 (0.4)	15,933 (3.8)	16,647 (7.2)	32,580 (5.5)	16,710 (4.9)	16,952 (1.8)	33,662 (3.3)
철강	21,118 (-6.4)	9,394 (-13.5)	9,258 (-9.8)	18,652 (-11.7)	8,870 (-5.6)	9,453 (2.1)	18,323 (-1.8)
정유	25,058 (8.2)	11,083 (-13.4)	10,144 (-17.3)	21,227 (-15.3)	10,297 (-7.1)	11,611 (14.5)	21,908 (3.2)
석유화학	12,386 (2.0)	5,080 (-19.5)	5,735 (-5.6)	10,815 (-12.7)	5,025 (-1.1)	6,065 (5.7)	11,090 (2.5)
섬유	19,261 (2.0)	8,873 (-0.4)	10,175 (-1.7)	19,048 (-1.1)	8,980 (1.2)	10,448 (2.7)	19,428 (2.0)
정보통신기기	27,017 (-3.2)	13,248 (1.3)	16,260 (16.6)	29,508 (9.2)	17,630 (33.1)	19,612 (20.6)	37,242 (26.2)
가전	8,344 (2.8)	4,146 (-1.0)	4110 (-1.1)	8,256 (-1.1)	4,105 (-1.0)	4,212 (2.5)	8,317 (0.7)
반도체	72,216 (15.8)	35,814 (7.4)	39,973 (2.8)	75,787 (4.9)	45,273 (26.4)	50,292 (25.8)	95,565 (26.1)
디스플레이	3,785 (5.7)	1,679 (-18.4)	1,473 (-14.6)	3,153 (-16.7)	1,613 (-3.9)	1,763 (19.7)	3,376 (7.1)
이차전지	5,169 (-41.5)	2,333 (-2.3)	3,076 (10.6)	5,409 (4.6)	2,696 (15.6)	3,236 (5.2)	5,932 (9.7)
바이오헬스	20,758 (-2.8)	10,253 (-1.1)	11,516 (10.8)	21,769 (4.9)	11,437 (11.5)	11,986 (4.1)	23,423 (7.6)
13대 합계	270,626 (2.2) <42.8>	130,467 (-0.9) <42.5>	141,775 (2.0) <43.7>	272,243 (0.6) <43.1>	145,951 (11.9) <41.9>	158,644 (11.9) <44.4>	304,595 (11.9) <43.2>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 안은 전체 수입에서 13대 주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표 2-16> 2026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물량, 원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천 대)	281 (-2.2)	145 (11.2)	178 (18.0)	323 (14.8)	181 (24.9)	170 (-4.5)	351 (8.7)
조선 (만 CGT)	31 (158.3)	10 (-41.2)	40 (185.7)	50 (61.3)	46 (360.0)	18 (-55.0)	64 (28.0)
일반기계 (십억 원)	41,743 (4.4)	22,663 (8.2)	23,679 (11.7)	43,642 (10.0)	24,109 (6.4)	24,458 (3.3)	48,567 (4.8)
철강 (천 톤)	9,650 (-2.5)	4,149 (-20.1)	4,476 (0.5)	8,625 (-10.6)	4,052 (-2.4)	4,361 (-2.6)	8,413 (-2.5)
정유 (십만 배럴)	3,938 (5.8)	1,866 (-5.8)	2,052 (4.9)	3,918 (-0.5)	1,961 (5.1)	1,979 (-3.6)	3,940 (0.6)
석유화학 (천 톤)	9,297 (2.4)	4,973 (7.0)	5,046 (8.6)	10,019 (7.8)	4,975 (0.0)	4,889 (-3.1)	9,864 (-1.5)
섬유 (십억 원)	26,273 (5.9)	12,654 (5.2)	14,421 (1.3)	27,075 (3.1)	13,160 (4.0)	14,836 (2.9)	27,996 (3.4)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36,524 (-0.3)	18,892 (7.0)	23,080 (22.3)	41,972 (14.9)	25,836 (36.8)	27,897 (20.9)	53,733 (28.0)
가전 (십억 원)	11,383 (7.4)	5,913 (4.6)	5,824 (1.7)	11,737 (3.1)	6,016 (1.7)	5,981 (2.7)	11,997 (2.2)
반도체 (십억 원)	72,216 (15.8)	35,814 (7.4)	39,973 (2.8)	75,787 (4.9)	45,273 (26.4)	50,292 (25.8)	95,565 (26.1)
디스플레이 (십억 원)	5,158 (10.2)	2,397 (-13.8)	2,088 (-12.2)	4,485 (-13.0)	2,364 (-1.4)	2,503 (19.9)	4,868 (8.5)
이차전지 (십억 원)	6,991 (-39.3)	3,327 (3.2)	4,360 (15.7)	7,687 (9.9)	3,951 (18.8)	4,595 (5.4)	8,546 (11.2)
바이오헬스 (십억 원)	28,303 (1.5)	14,584 (3.2)	16,381 (15.6)	30,965 (9.4)	16,501 (13.1)	17,294 (5.6)	33,795 (9.1)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연구진

거시경제 전망

총괄 및 국내경제	홍성욱 선임연구위원
세계경제	민성환 선임연구위원
유가 및 환율	강성우 연구원
소비	원혜진 연구원
투자	김태훈 부연구위원
수출	이원복 부연구위원
	한정민 전문연구원

13대 주력산업 전망

총괄	최동원 부연구위원
자동차	김경유 선임연구위원
조선	이은창 연구위원
일반기계	박상수 연구위원
	김태영 부연구위원
철강	이재운 선임연구위원
정유	최동원 부연구위원
석유화학	조용원 연구위원
섬유	이임자 연구위원
	문지원 연구원
정보통신기기	김종기 선임연구위원
가전	심우중 전문연구원
반도체	김양평 전문연구원
디스플레이	김민지 전문연구원
이차전지	황경인 연구위원
바이오헬스	정지은 부연구위원

KIET 경제·산업 전망 2026-01(1)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발행일 2026년 5월 26일
발행인 권남훈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홈페이지 www.kiet.re.kr
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문 의 044-287-3146
인쇄처 거목정보산업(주)

ISSN 2983-0338

내용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역제를 금합니다.